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6-10

ISSN 2765-4931

202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21. 12.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발간사

2020년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한 571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무역환경 및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해외 직접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세계적 유동성 확대에 따른 연기금 등의 금융투자 증가로 금융보험업 투자가 185억 달러로 투자업종 1위를 차지하였고,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산업의 시설투자 등에 힘입어 제조업 투자는 131억 달러로 투자업종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2020년 회계연도 성장성과 수익성은 전년 대비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현지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7% 감소한 96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1.9%,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한 0.3%를 시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현지법인 영업 부진이 지속될 경우, 2021 회계연도 경영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장벽을 우회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주요 수단인 바,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통계 작성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통계 산출 및 해외 현지법인 경영성과 분석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입안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경영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해외투자기업들과 외국환은행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모쪼록 동 자료가 우리 해외직접 투자기업, 정부 관계부처, 관련 연구기관 등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수립 및 정책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소장 이상현

목 차 CONTENTS

요약	016
----	-----

머리말	026
-----	-----

제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031
-----	---------------------	-----

I. 2020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	032
----------------------	-----

1. 분석범위	032
---------	-----

가. 분석대상	032
---------	-----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033
-----------------	-----

(1) 업종별 현황	033
------------	-----

(2) 지역별 현황	034
------------	-----

(3)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034
------------------	-----

2. 경영성과	035
---------	-----

가. 매출액	035
--------	-----

나. 영업이익	037
---------	-----

다. 당기순이익	041
----------	-----

(1)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041
------------------	-----

(2) 당기순이익 현황	043
--------------	-----

(3) 당기순이익 분포 및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048
---------------------------------------	-----

3. 매출입 현황	051
-----------	-----

가. 매출 현황	051
----------	-----

나. 매입 현황	055
----------	-----

4. 재무 현황	059
----------	-----

가. 부채비율	059
---------	-----



나. 차입금	061
다. 이자보상배율	065
라. 유동비율	066
마. 금융비용부담률	068
II.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효과 분석	070
1. 투자수익	070
가. 투자수익률	070
나. 투자자순이익	072
다.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074
라. 대부이자	076
2. 배당금	078
3. 수출입 효과	080
가. 순수출	080
나. 수출입 유발효과	083
4. 고용효과	085
III. 기타 분석	088
1. 설문사항	088
가. 개 요	088
나. 투자목적별 현황	089
다. 영업환경 현황	089
라. 운영상 애로사항	092
마.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	095
바. 향후 투자 계획	097

목 차 CONTENTS

제2부	주제별 심층 분석	101
	IV. 5년 시계열 현지법인 경영분석	102
	1. 분석목적	102
	2. 분석범위	102
	3. 최근 5년간 경영분석	105
	가. 경영성과	105
	(1) 매출액	105
	(2) 영업이익	111
	(3) 당기순이익	117
	나. 매출입	122
	(1) 매출입 비중	122
	(2) 업종별 매출입	122
	(3) 지역별 매출입	124
	(4) 수출입 유발효과	126
	다. 재무현황	127
	(1)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127
	(2) 부채비율	129
	(3) 차입금의존도	130
	(4)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132
	라. 투자수익	134
	(1) 투자수익률	134
	(2) 투자자순이익	135
	(3) 로열티	136
	(4) 배당금	137



V.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138

1. 분석 목적 138

2. 분석범위 138

3. 2020년 경영성과 141

가. 매출액 141

나. 수익성 143

다. 매출입 148

라. 투자수익 및 배당금 150

마. 수출입 유발효과 152

4. 최근 3년 경영성과 153

가. 매출액 및 매출입구조 153

나. 수익성 158

다. 투자수익 162

라. 수출입 유발효과 167

VI. 시사점 170

1.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경영실적 전반적 악화 170

2. 베트남 중심의 對 ASEAN 투자 확대 지속 171

3.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전략 수립 필요 172

제3부 ————— **부록** 173

제4부 ————— **참고자료** 235

목 차 CONTENTS

표목차

[표 I-1]	분석대상 현지법인 범위(2020년말 기준)	32
[표 I-2]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 현황	33
[표 I-3]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	34
[표 I-4]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34
[표 I-5]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현황	35
[표 I-6]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	36
[표 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37
[표 I-8]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38
[표 I-9]	업종 및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38
[표 I-10]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39
[표 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40
[표 I-1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현황	41
[표 I-13]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41
[표 I-14]	업종 및 지역별 흑자 및 적자 현지법인 현황	42
[표 I-1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흑자 현지법인 현황	43
[표 I-16]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44
[표 I-17]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45
[표 I-18]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상위 10개 국가 현황	45
[표 I-19]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46
[표 I-2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47
[표 I-2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48
[표 I-22]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현황	50
[표 I-23]	현지법인 매출현황	51
[표 I-24]	주요 업종별 매출 현황	52
[표 I-25]	주요 업종별 매출 비중	52
[표 I-26]	지역별 매출 현황	53
[표 I-27]	지역별 매출 비중	53



[표 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현황	54
[표 I-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비중	54
[표 I-30]	현지법인 매입 현황	55
[표 I-31]	주요 업종별 매입 현황	56
[표 I-32]	주요 업종별 매입 비중	56
[표 I-33]	지역별 매입 현황	57
[표 I-34]	지역별 매입 비중	57
[표 I-35]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현황	58
[표 I-36]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비중	58
[표 I-37]	업종 및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59
[표 I-3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60
[표 I-39]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 현황	61
[표 I-4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차입금 현황	62
[표 I-41]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63
[표 I-4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64
[표 I-43]	업종 및 지역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65
[표 I-44]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66
[표 I-45]	업종 및 지역별 유동비율 현황	67
[표 I-46]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유동비율 현황	67
[표 I-47]	업종 및 지역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68
[표 I-4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69
[표 II-1]	현지법인 투자수익률 현황	70
[표 II-2]	업종 및 지역별 투자수익률 현황	71
[표 II-3]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수익률 현황	72
[표 II-4]	업종 및 지역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73
[표 II-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73
[표 II-6]	업종 및 지역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74

목 차 CONTENTS

표목차

[표 I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75
[표 II-8]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현황	76
[표 II-9]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대부이자 현황	77
[표 II-10]	업종 및 지역별 배당금 현황	78
[표 I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금 지급 현황	79
[표 II-12]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 현황(달러)	79
[표 II-13]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 현황	80
[표 II-14]	주요 업종별 순수출 현황	80
[표 II-15]	주요 업종별 순수출 세부 현황	81
[표 II-16]	지역별 순수출 현황	81
[표 II-17]	지역별 순수출 세부 현황	82
[표 II-18]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현황	82
[표 II-19]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세부 현황	82
[표 II-20]	현지법인 수출입 유발효과	83
[표 II-21]	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83
[표 II-22]	지역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84
[표 II-23]	투자자 기업규모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84
[표 II-24]	직종별 고용 현황	85
[표 II-25]	업종별 고용 현황	86
[표 II-26]	지역별 고용 현황	86
[표 II-27]	지역 및 직종별 고용 현황	87
[표 I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	87
[표 II-29]	투자자 기업규모 및 직종별 고용 현황	87
[표 III-1]	업종 및 지역별 분석대상 현지법인수	88
[표 III-2]	업종별 경쟁관계	90
[표 III-3]	지역별 경쟁관계	91
[표 III-4]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93



[표 III-5]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94
[표 III-6]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95
[표 III-7]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96
[표 III-8]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98
[표 III-9]	지역별 투자 계획	99
[표 IV-1]	분석대상 법인수 추이	103
[표 IV-2]	분석대상 법인 투자잔액 추이	104
[표 IV-3]	매출액 추이	105
[표 IV-4]	업종별 매출액 추이	106
[표 IV-5]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추이	107
[표 IV-6]	지역별 매출액 추이	108
[표 IV-7]	지역별 매출 증가율 추이	108
[표 IV-8]	업종별 평균 매출액 추이	109
[표 IV-9]	지역별 평균 매출액 추이	110
[표 IV-1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추이	110
[표 IV-11]	영업이익 추이	112
[표 IV-12]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추이	113
[표 IV-13]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114
[표 IV-14]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115
[표 IV-15]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116
[표 IV-16]	당기순이익 추이	117
[표 IV-17]	업종별 평균 당기순이익 추이	118
[표 IV-18]	업종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119
[표 IV-19]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120
[표 IV-2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121
[표 IV-21]	주요 업종별 매출 비중 추이	123

[표 IV-22]	주요 업종별 매입 비중 추이	123
[표 IV-23]	지역별 매출 비중 추이	124
[표 IV-24]	지역별 매입 비중 추이	125
[표 IV-25]	수출입 유발효과 추이	126
[표 IV-26]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127
[표 IV-27]	업종별 부채비율 추이	129
[표 IV-28]	지역별 부채비율 추이	129
[표 IV-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추이	130
[표 IV-30]	업종별 차입금의존도 추이	130
[표 IV-31]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추이	131
[표 IV-32]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추이	131
[표 IV-33]	업종별 유동비율 추이	132
[표 IV-34]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추이	133
[표 IV-35]	투자수익률 추이	134
[표 IV-36]	업종별 투자자순이익 추이	135
[표 IV-37]	업종별 로열티 추이	136
[표 IV-38]	업종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추이	137
[표 V-1]	제조업 세부업종별 현지법인 현황	139
[표 V-2]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현지법인수 현황	140
[표 V-3]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투자잔액 현황	140
[표 V-4]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현황	141
[표 V-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매출 현황	142
[표 V-6]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현황	143
[표 V-7]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144
[표 V-8]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145
[표 V-9]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현황	146
[표 V-10]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147



[표 V-11]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147
[표 V-12]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비중	148
[표 V-13]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 비중 현황	149
[표 V-14]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현황	150
[표 V-1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배당금 현황	151
[표 V-16]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152
[표 V-17]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액 추이	153
[표 V-18]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추이	154
[표 V-19]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비중 추이	156
[표 V-20]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 비중 추이	157
[표 V-21]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추이	158
[표 V-22]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159
[표 V-23]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추이	160
[표 V-24]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161
[표 V-25]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자순이익 추이	162
[표 V-26]	제조업 세부업종별 로열티 추이	163
[표 V-27]	제조업 세부업종별 대부이자 추이	164
[표 V-28]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추이	165
[표 V-29]	제조업 세부업종별 배당금 추이	166
[표 V-30]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액 추이	167
[표 V-31]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입액 추이	168
[표 V-32]	제조업 세부업종별 순수출액 추이	168
[표 V-33]	제조업 세부업종별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169

[그림 I-1]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비중	36
[그림 I-2]	구간별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분포	49
[그림 I-3]	매출현황 및 비중	51
[그림 I-4]	현지법인 매입현황 및 비중	55
[그림 II-1]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비중 현황	77
[그림 III-1]	투자목적별 현황	89
[그림 III-2]	현지법인 경쟁관계	90
[그림 III-3]	업종별 경쟁관계	91
[그림 III-4]	지역별 경쟁관계	92
[그림 III-5]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92
[그림 III-6]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93
[그림 III-7]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94
[그림 III-8]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95
[그림 III-9]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96
[그림 III-10]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97
[그림 III-11]	현지법인 향후 투자 계획	97
[그림 III-12]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98
[그림 III-13]	지역별 향후 투자 계획	99
[그림 IV-1]	매출액 추이	105
[그림 IV-2]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비중 추이	111
[그림 IV-3]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112
[그림 IV-4]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117
[그림 IV-5]	매출입 비중 추이	122
[그림 IV-6]	수출입 유발효과 추이	126



[그림 IV-7]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128
[그림 IV-8]	투자수익률 추이	134
[그림 V-1]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익성 추이 비교	161
[그림 V-2]	제조업 로열티 지급액 추이	163
[그림 V-3]	제조업 투자수익률 추이	165
[그림 VI-1]	중국, 베트남, 아세안 현지법인의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171

요약 SUMMARY

I. 경영분석 대상 및 방법

제1부에서는 2020년말 기준으로 투자잔액 2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 8,697개사 중 5,556개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2020 회계연도 경영분석을 실시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전체	62,905	418,545
자료수집대상	8,697	262,070
분석대상	5,556	213,387
분석대상/자료수집대상	63.9	81.4

제2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별 심층 분석을 실시

- 최근 5년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시계열 경영성과
-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성과



II. 경영분석 결과

1. 2020 회계연도 경영분석

가. 경영성과

- 전체 분석대상 현지법인(5,556개사)의 매출액은 5,321억 달러, 영업이익은 99억 달러, 당기순이익은 14억 달러 기록
- 영업이익률은 1.9%, 당기순이익률은 0.3%를 기록하였으며, 국내기업(각각 4.2%, 2.8%) 대비 낮은 수준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전년 대비 1.0%p, 0.8%p 감소

(단위: %)

구분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전체
영업이익률	1.9	△4.7	2.2	1.9
당기순이익률	0.7	△27.2	2.0	0.3

나. 매출입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은 현지매출 비중이 6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수출 비중은 16.9%, 제3국 수출 비중은 14.2%를 기록, 각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출액	52,198	314,447	77,693	12,140	21,719	53,925
비중	9.8	59.1	14.6	2.3	4.1	10.1

요약 SUMMARY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입은 현지매입 비중이 41.6%, 한국수입 비중은 44.5%, 제3국수입 비중은 13.9%를 기록, 각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입액	49,132	122,793	166,362	17,913	28,956	28,440
비중	11.9	29.7	40.2	4.3	7.0	6.9

다. 재무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부채비율 141.7%, 차입금의존도 25.3%, 유동비율 142.6%, 이자보상배율 1.8배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이 전년 대비 저하

(단위: %, 배)

구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제조업	152.3	28.6	145.7	2.4
광업	117.7	29.5	137.0	영업적자
도소매업	132.9	5.9	139.1	7.6
전체	141.7	25.3	142.6	1.8

라. 투자수익

- 분석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전년 대비 1.9%p 하락한 3.7%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수익				투자잔액 (B)	투자수익률 (A/B)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금 액	4,225	3,345	416	7,987	213,387	3.7



마. 무역수지 개선효과

- 한국기업의 對 현지법인 수출액은 1,843억 달러, 수입액은 898억 달러로 순수출액은 944억 달러를 실현하여 전년 대비 1.6% 감소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순수출(수출 - 수입)
관계회사	166,362	77,693	88,669
기타	17,913	12,140	5,773
전체	184,275	89,833	94,442

- 현지법인과 거래에 따른 수출 유발효과는 86.4%, 수입 유발효과는 42.1%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전년(46.6%)대비 2.3%p 하락한 44.3%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 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 유발효과 (E=C/A)	
213,387	184,275	86.4	89,833	42.1	44.3

요약 SUMMARY

2. 최근 5년간 경영분석

가. 경영성과

-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비교 결과, 2017년까지 증가하던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감소폭이 더 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매출액	131	139	124	115	96
평균영업이익	3.3	4.2	3.9	3.3	1.8
평균당기순이익	1.8	2.6	1.3	1.3	0.3

- 업종별 당기순이익률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2018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업은 변동성이 크며, 도소매업은 2018년 이후 상승세임.

(단위: %)

당기순이익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3.1	3.1	1.7	1.1	0.7
광업	△32.6	△4.7	0.4	4.0	△27.2
도소매업	0.7	0.6	1.0	1.9	2.0
전체	1.4	1.8	1.1	1.1	0.3

나. 매출입

- 매출의 경우 2018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현지매출 비중은 2019년 68.6%, 2020년 68.9%로 상승하여 진출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중심의 영업방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매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현지매입과 한국수입이 고른 양상이나,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한국수입 비중이 현지매입 비중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남.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현지매출	67.2	64.4	62.5	68.6	68.9
한국수출	15.8	17.6	19.5	16.5	16.9
제3국수출	17.0	18.0	18.0	14.8	14.2
현지매입	40.3	36.9	36.9	43.7	41.6
한국수입	42.0	46.4	45.8	42.2	44.6
제3국수입	17.7	16.7	17.2	14.2	13.9

다. 재무안정성

-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2017년 및 2018년에는 2016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19년에는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대체로 저하되었음. 2020년에는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유동비율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저조한 수익성 등으로 이자보상배율 지표는 악화되었음.

(단위: %, 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채비율	현지법인	166.3	152.0	128.0	144.3	141.7
	국내기업	121.2	114.1	111.1	115.7	118.3
차입금의존도	현지법인	30.4	27.0	22.8	27.1	25.3
	국내기업	29.8	28.8	28.8	29.5	30.4
유동비율	현지법인	134.9	133.8	130.5	135.8	142.6
	국내기업	131.6	134.0	138.5	140.4	141.1
이자보상배율	현지법인	2.8	4.1	3.8	2.5	1.8
	국내기업	4.4	5.4	4.7	3.3	3.3

요약 SUMMARY

라. 투자수익

- 2018년 이후 투자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투자잔액 비중이 높은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의 투자수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9%p 감소한 3.7%의 투자수익률을 시현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투자수익률(A/B)	6.0	7.4	5.8	5.6	3.7
투자수익(A)	11,029	14,229	10,887	11,492	7,987
투자자순이익	7,512	10,111	6,892	7,021	4,225
로열티	3,075	3,730	3,476	3,918	3,345
대부이자	442	388	519	553	416
투자잔액(B)	182,619	192,189	187,063	205,727	213,387

마. 무역수지 개선효과

- 투자잔액은 2020년에 제조업 및 부동산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음. 순수출액은 2018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 개선효과 또한 2018년 이후 감소 추세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투자잔액	182,619	192,189	187,063	205,727	213,387
수출액	212,034	260,002	234,248	198,159	184,275
수입액	98,883	121,895	122,599	102,168	89,833
순수출	113,151	138,107	111,649	95,991	94,442
수출 유발효과	116.1	135.3	125.2	96.3	86.4
수입 유발효과	54.1	63.4	65.5	49.7	42.1
무역수지 개선효과	62.0	71.9	59.7	46.6	44.3



3.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가. 매출액

제조업은 2020년도 경영분석대상 5,556개사, 투자잔액 2,134억 달러 기준 투자잔액의 46.6%, 현지 법인 수익 61.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27.1%, 33.9%로,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61.0%를 차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장비	제조업 전체
매출액	88,578	110,492	26,340	326,305
비중	27.1	33.9	8.1	100.0

나. 수익성

전기전자와 전기장비의 영업이익 비중은 각각 44.5%, 21.4%로 전체 제조업 영업이익의 65.9%를 차지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와 전기장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전기전자의 영업이익은 제조업 현지법인 중 가장 큰 27.7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3.1%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장비의 영업이익은 13.3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5.1%를 기록

(단위: %)

구분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장비	제조업 전체
영업이익률	3.1	△0.4	5.1	1.9
당기순이익률	3.2	△1.4	3.2	0.7

요약 SUMMARY

다. 매출입

- 제조업 전반적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기전자, 의복, 기타운송장비는 한국수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수출 비중이 49.2%로 현지매출 비중(36.2%)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의 경우는 현지매출(85.1%)이 대부분을 차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매출액			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전기전자	32,058	43,591	12,929	36.2	49.2	14.6
자동차	94,055	2,974	13,464	85.1	2.7	12.2
전기장비	11,320	10,921	4,099	43.0	41.5	15.6
전체	205,929	76,495	43,880	63.1	23.4	13.4

- 제조업의 매입구조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39.0%로, 매출(23.4%)에 비해 한국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지매입 비중은 48.8%로 한국수입(39.0%) 및 제3국수입(12.1%)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매입액			비중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전기전자	22,548	38,380	9,776	31.9	54.3	13.8
자동차	53,074	29,962	4,557	60.6	34.2	5.2
전기장비	8,229	9,216	4,933	36.8	41.2	22.0
전체	122,668	97,988	30,475	48.8	39.0	12.1



라. 투자수익

- 제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은 71억 달러로, 7.1%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총 11.4억 달러의 배당금을 한국투자자 앞 지급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수익				투자잔액(B)	투자수익률 (A/B)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전기전자	2,883	896	22	3,800	23,896	15.9
자동차	△649	1,652	17	1,020	20,568	5.0
화학	422	63	9	493	9,751	5.1
전체	3,803	3,150	107	7,060	99,454	7.1

마. 수출입 유발효과

-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통해 분석된 제조업 현지법인 수출은 980억 달러, 수입은 765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21.6%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잔액 (A)	수출 (B)	수입 (C)	순수출 (D=B-C)	무역수지 개선효과 (D/A)
전기전자	23,896	38,380	43,591	△5,211	△21.8
자동차	20,568	29,962	2,974	26,988	131.2
화학	9,751	3,712	833	2,879	29.5
전체	99,454	97,988	76,495	21,492	21.6

머릿말 FOREWORD



분석 목적

※※ 본 경영분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 현지법인의 경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자료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전략 수립 및 연구 기관의 정책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보고서 구성

※※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외현지법인의 2020 회계연도 경영실태와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였음.

※※ 제2부에서는 주제별 심층 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경영 성과 및 2020 회계연도 제조업 세부 업종별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별도 분석하였음.



자료수집 대상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보험업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지점 및 지사는 제외

• 본 경영분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인 투자잔액 미화 2백만 달러 초과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8.12.24)에 따라 2019년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이 투자잔액 미화 1백만 달러 초과에서 2백만 달러 초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경영분석부터 조사 대상 현지 법인이 변동하였는 바, 2018년 이전 보고서와의 비교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수집 방법

- *** 외국환은행은 자료제출 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자 앞으로 연간 사업실적 자료를 요청
- 투자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산입력이 어려운 경우 외국환은행에 서면제출하며 외국환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보고함.



자료검증 방법

- *** 자료제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비율 분석, 투자자 앞 직접 확인 등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보완·수정하였음. 또한, 자료의 신뢰도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분석 방법

- ***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투자자가 신고한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였음.
- *** 업종별 분류는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제 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참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으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은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분류함.
- *** 지역별 분류는 <참고 2: 지역 분류표>의 지리적 대륙별 분류방식을 적용하였음.
- *** 기업규모별 분류는 투자자들이 신고한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여러 기업에 의한 공동투자는 투자금액이 가장 큰 투자자의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음.

머릿말 FOREWORD



분석 방법

- *** 일부 경영성과 분석시 단순 합계금액만을 사용할 경우 소수 대기업 현지법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바, 도수분포, 흑자·적자 현지법인 비중 등을 함께 분석하였음.
- *** 업종 및 지역별 분석은 최종투자국 및 최종투자업종을 기준으로 실시함.
- *** 자금중개 등의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를 이용한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최초 투자국 및 최초투자업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지 및 진출업종에 대한 왜곡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이에 통계정보의 정확성과 분석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3 회계연도 경영분석부터 최종투자업종, 최종투자국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2013년 이전 보고서의 업종별, 지역별 분석과의 비교 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본 경영분석에서 전년 대비시 기준은 2019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시 자료임.



분석 연혁

- *** 한국수출입은행은 1999년 7월 해외직접투자 통계 업무를 은행연합회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2000년 3월 처음으로 1998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동년 12월에는 1999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실시하였음.
- *** 한편, 1999 회계연도 경영분석 보고서부터 단행본 책자로 발간하기 시작하였음. 이후 매년 직전 회계연도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금년 보고서는 22회차임.



※ 초기에는 분석대상 현지법인 수가 300개사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20 회계연도 기준 5,556개사로 증가하여 통계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있음.(<http://keri.koreaexim.go.kr>)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및 통계법 제30조(통계 자료의제공)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가 불가하나, 본 보고서에 사용된 표에서 지면의 한계로 표기할 수 없었던 국가와 업종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함.





032	I. 2020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
070	II.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효과 분석
088	III. 기타 분석

I

2020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

1 분석범위

가. 분석대상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총 5,556개사이며, 투자잔액¹은 2,134억 달러임.

- 2020년말 기준으로 투자잔액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금융보험업 현지법인 8,697개사 중 청산·영업정지·미결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법인수 기준으로 자료수집 대상의 63.9%를 차지하며, 투자잔액 기준으로는 81.4%에 해당함.

[표 I-1] 분석대상 현지법인 범위(2020년말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전체	62,905	418,545
자료수집대상	8,697	262,070
분석대상	5,556	213,387
분석대상/자료수집대상	63.9	81.4

1 투자잔액은 투자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투자 금액이며, 한국투자자의 투자잔액만을 계상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1) 업종별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투자잔액 기준으로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이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광업이 15.7%, 도소매업이 13.1%로 그 뒤를 이었음.

[표 I-2]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분석대상			자료수집대상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제조업	3,391	99,454	46.6	4,624	120,026	45.8
광업	95	33,531	15.7	184	39,348	15.0
도소매업	586	28,048	13.1	890	36,440	13.9
부동산업	404	17,914	8.4	1,204	21,512	8.2
정보통신업	248	8,489	4.0	391	11,525	4.4
건설업	109	5,836	2.7	210	7,727	2.9
전기가스공급업	75	4,581	2.1	129	6,603	2.5
전문과학기술업	181	4,204	2.0	281	5,083	1.9
숙박음식점업	72	4,012	1.9	128	4,164	1.6
기타 ²	395	7,319	3.4	656	9,642	3.7
전체	5,556	213,387	100.0	8,697	262,070	100.0

2 기타는 운수창고업, 사업시설지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농림어업 등을 포함

(2) 지역별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지역별 잔액 비중은 아시아 43.1%, 북미 29.0%, 유럽 12.7% 순이며, 아시아와 북미 지역이 과반수가 넘는 72.1%를 차지

- ◎ 분석대상 법인 당 투자잔액은 아시아 지역이 0.3억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

[표 I-3]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³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분석대상			자료수집대상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아시아	3,664	91,971	43.1	5,605	111,774	42.7
북미	958	61,893	29.0	1,556	73,079	27.9
유럽	495	27,201	12.7	787	36,892	14.1
기타	439	32,322	15.1	749	40,325	15.4
전체	5,556	213,387	100.0	8,697	262,070	100.0

(3)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투자자 기업규모별로 분류하면 투자잔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82.3%, 중소기업이 16.3%, 기타가 1.4%를 차지

[표 I-4]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분석대상			자료수집대상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대기업	2,596	175,597	82.3	3,545	204,985	78.2
중소기업	2,643	34,726	16.3	4,192	50,089	19.1
기타	317	3,063	1.4	960	6,996	2.7
전체	5,556	213,387	100.0	8,697	262,070	100.0

3 기타는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

2 경영성과

가. 매출액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매출액은 전년(6,174억 달러) 대비 13.8% 감소한 5,321억 달러를 기록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619억 달러로 49.2%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북미 26.7%, 유럽 17.1% 순임. 또한 아시아(△15.7%), 북미(△6.2%), 유럽(△10.0%) 모두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3,263억 달러로 61.3%를, 도소매업은 1,611억 달러로 30.3%를 차지함에 따라 두 업종에서 9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음.
- 아시아 매출의 76.8%는 제조업에서, 북미 매출의 49.9%는 도소매업에서 발생하였음.

[표 I-5]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01,035	61,325	44,470	19,475	326,305
광업	4,757	1,149	663	4,987	11,555
도소매업	39,860	70,848	40,245	10,128	161,081
부동산업	333	681	228	100	1,341
정보통신업	4,577	2,009	229	132	6,946
건설업	2,235	87	1,588	755	4,665
전기가스공급업	1,388	103	2,374	311	4,175
전문과학기술업	1,993	918	652	132	3,694
숙박음식점업	338	1,087	3	53	1,482
기타	5,384	3,759	637	1,099	10,879
전체	261,898	141,964	91,088	37,172	532,123

◎ 매출액 상위 5개국은 미국(1,354억 달러, 25.4%), 중국(1,252억 달러, 23.5%), 베트남(504억 달러, 9.5%), 싱가포르(198억 달러, 3.7%), 인도네시아(168억 달러, 3.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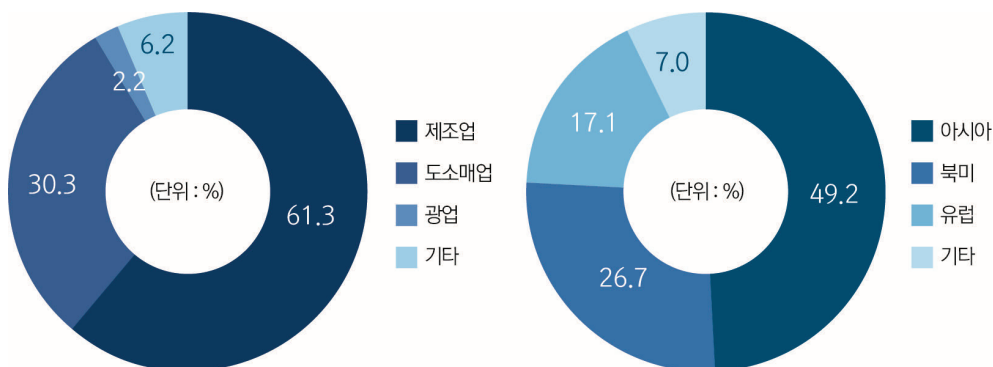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약 1.0억 달러였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8억 달러)에서, 지역별로는 유럽(1.8억 달러)에서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6]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76	191	188	103	96
광업	176	46	166	128	122
도소매업	124	510	503	225	275
부동산업	3	3	3	8	3
정보통신업	33	24	10	22	28
건설업	35	7	144	33	43
전기가스공급업	41	10	237	15	56
전문과학기술업	25	13	33	19	20
숙박음식점업	9	43	2	7	21
기타	27	54	18	12	28
전체	71	148	184	85	96

[그림 I-1]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비중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평균 매출액이 1.9억 달러로 중소기업 현지법인(0.2억 달러)의 9.7배를 기록하였으며, 그 격차는 전년(10.4배)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대기업 현지법인은 도소매업, 제조업, 광업 순으로,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기록

[표 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85	23	18	96
광업	139	4	2	122
도소매업	460	20	63	275
부동산업	7	3	1	3
정보통신업	45	12	14	28
건설업	56	7	2	43
전기가공공업	75	2	0	56
전문과학기술업	41	5	3	20
숙박음식점업	43	5	1	21
기타	52	8	3	28
전체	185	19	11	96

나. 영업이익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은 전년(176억달러) 대비 43.6% 감소한 99억 달러를 기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62억 달러) 및 도소매업(36억 달러)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시현함. 한편, 광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은 영업손실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아시아(64억 달러)에서 전체의 64.3%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21억 달러), 북미(13억 달러) 순임.

[표 I-8]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4,840	△89	1,370	99	6,219
광업	825	△109	△875	△380	△539
도소매업	106	2,228	1,061	188	3,582
부동산업	△116	105	147	45	181
정보통신업	△125	△214	△28	10	△356
건설업	139	△25	370	△18	467
전기가스공급업	423	△193	76	111	417
전문과학기술업	△12	△442	1	△21	△475
숙박음식점업	36	△86	△1	△34	△86
기타	279	143	28	80	530
전체	6,396	1,317	2,149	79	9,940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전년(3.3백만 달러)대비 45.3% 감소한
1.8백만 달러를 기록

- ◎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은 도소매업 6.1백만 달러, 전기가스공급업 5.6백만 달러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은 유럽 4.3백만 달러, 아시아 1.7백만 달러 순으로 높았음.

[표 I-9] 업종 및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831	△279	5,780	522	1,834
광업	30,571	△4,372	△218,773	△9,754	△5,678
도소매업	329	16,026	13,257	4,186	6,113
부동산업	△994	522	2,017	3,444	447
정보통신업	△910	△2,576	△1,269	1,681	△1,437
건설업	2,210	△2,092	33,663	△762	4,283
전기가스공급업	12,441	△19,307	7,599	5,293	5,561
전문과학기술업	△153	△6,060	56	△3,068	△2,625
숙박음식점업	967	△3,439	△586	△4,298	△1,191
기타	1,383	2,075	786	903	1,343
전체	1,746	1,374	4,342	179	1,789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1.9%로 전년(2.9%) 대비 1.0%p 하락하였음.

- ◎ 업종별로는, 주요 진출 업종인 제조업(1.9%)보다도 부동산업이 13.5%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음. 한편, 전문과학기술업(△12.9%)이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음.
- ◎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고,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가스 공급업(△188.1%), 전문과학기술업(△48.2%) 등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0.9%)을 기록

[표 I-10]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4	△0.1	3.1	0.5	1.9
광업	17.4	△9.5	△132.0	△7.6	△4.7
도소매업	0.3	3.1	2.6	1.9	2.2
부동산업	△35.0	15.4	64.6	44.6	13.5
정보통신업	△2.7	△10.6	△12.2	7.6	△5.1
건설업	6.2	△28.9	23.3	△2.3	10.0
전기가스공급업	30.5	△188.1	3.2	35.8	10.0
전문과학기술업	△0.6	△48.2	0.2	△16.3	△12.9
숙박음식점업	10.6	△7.9	△36.6	△64.7	△5.8
기타	5.2	3.8	4.4	7.2	4.9
전체	2.4	0.9	2.4	0.2	1.9

대기업 현지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3.7백만 달러로, 이는 중소기업 현지법인(0.1백만 달러)의 25배 수준

- 대기업 현지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광업 등의 부진으로 전년(6.5백만 달러) 대비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도 건설업, 제조업 등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평균 영업이익이 전년(0.2백만 달러)대비 감소

[표 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3,637	291	1,484	1,834
광업	△6,517	△134	1,425	△5,678
도소매업	11,106	188	△10,162	6,113
부동산업	854	507	△14	447
정보통신업	△2,139	△822	△552	△1,437
건설업	5,880	△286	△741	4,283
전기가스공급업	7,485	269	-	5,561
전문과학기술업	△2,518	△2,676	△2,862	△2,625
숙박음식점업	△2,370	△401	△23	△1,191
기타	2,461	444	251	1,343
전체	3,723	149	△376	1,789

대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로 전년 대비 1.1%p 하락했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0.8%로 전년 대비 0.1%p 하락하였음.

- 대기업 현지법인과 중소기업 현지법인 모두 부동산업(각각 11.7%, 17.6%)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음.
- 중소기업 투자자들이 대기업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업종은 부동산업 및 전기 가스공급업으로 제한적임.

[표 I-1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0	1.3	8.2	1.9
광업	△4.7	△3.1	95.0	△4.7
도소매업	2.4	0.9	△16.1	2.2
부동산업	11.7	17.6	△2.7	13.5
정보통신업	△4.8	△6.8	△3.9	△5.1
건설업	10.6	△4.4	△48.1	10.0
전기가스공급업	9.9	16.5	-	10.0
전문과학기술업	△6.1	△49.1	△105.1	△12.9
숙박음식점업	△5.6	△7.8	△3.4	△5.8
기타	4.7	5.3	9.4	4.9
전체	2.0	0.8	△3.5	1.9

다. 당기순이익

(1)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 중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현지법인은 총 2,661개사로 전체의 47.9%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70억 달러) 대비 대폭 감소한 14억 달러를 기록

[표 I-13]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단위: 개, %, 백만 달러)

구분	법인수	비중	당기순이익
흑자법인	2,661	47.9	20,091
적자법인	2,895	52.1	△18,661
전체	5,556	100.0	1,430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흑자 현지법인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도소매업, 부동산업 순임.

- 제조업은 총 3,391개사 중 50.5%에 해당하는 1,712개사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도소매업은 총 586개사 중 50.2%에 해당하는 294개사가 흑자를 기록함. 한편, 부동산업은 총 404개사 중 43.6%에 해당하는 176개사가 흑자를 기록하여 전체 평균(47.9%)에는 미달하는 수준
- 지역별로는, 모든 주요 지역에서 적자법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북미 지역은 적자법인의 비중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14] 업종 및 지역별 흑자 및 적자 현지법인 현황

(단위: 개)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제조업	1,378	1,266	142	179	110	127	82	107	1,712	1,679
광업	15	12	6	19	-	4	16	23	37	58
도소매업	154	168	65	74	48	32	27	18	294	292
부동산업	48	69	75	126	45	28	8	5	176	228
정보통신업	49	88	22	61	9	13	2	4	82	166
건설업	28	35	4	8	7	4	10	13	49	60
전기가스공급업	23	11	6	4	1	9	11	10	41	34
전문과학기술업	32	49	22	51	6	14	3	4	63	118
숙박음식점업	8	29	7	18	-	2	1	7	16	56
기타	83	119	29	40	19	17	60	28	191	204
전체	1,818	1,846	378	580	245	250	220	219	2,661	2,895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2,661개사 중 대기업 현지법인이 1,355개사로 50.9%,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1,173개사로 44.1%를 차지. 한편, 대기업 현지법인 중 52.2%, 중소기업 현지법인 중 44.4%가 흑자를 기록

[표 I-1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흑자 현지법인 현황

(단위: 개,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 비중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 비중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 비중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 비중
제조업	831	54.2	836	47.2	45	50.6	1,712	50.5
광업	32	38.6	4	40.0	1	50.0	37	38.9
도소매업	203	60.2	88	38.4	3	15.0	294	50.2
부동산업	44	44.0	85	44.5	47	41.6	176	43.6
정보통신업	48	40.0	27	25.2	7	33.3	82	33.1
건설업	35	43.2	13	52.0	1	33.3	49	45.0
전기가스공급업	32	58.2	9	45.0	-	-	41	54.7
전문과학기술업	38	49.4	22	25.0	3	18.8	63	34.8
숙박음식점업	5	16.1	7	23.3	4	36.4	16	22.2
기타	87	48.3	82	47.4	22	52.4	191	48.4
전체	1,355	52.2	1,173	44.4	133	42.0	2,661	47.9

(2) 당기순이익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70억 달러)대비 대폭 감소한 14억 달러를 시현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컸음. 반면 정보통신업 및 숙박음식점업은 전 지역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
-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제조업, 도소매업, 광업을 중심으로 40억 달러 순이익을, 유럽에서는 도소매업, 제조업 및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13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북미는 10억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표 I-16]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3,096	△467	637	△889	2,377
광업	641	△1,201	△731	△1,850	△3,141
도소매업	783	1,560	813	120	3,276
부동산업	△178	22	363	△15	192
정보통신업	△665	△340	△50	△22	△1,077
건설업	84	△11	267	△98	241
전기가스공급업	303	△86	△57	△20	140
전문과학기술업	△39	△421	49	△23	△433
숙박음식점업	△3	△143	△5	△92	△244
기타	△50	82	51	16	99
전체	3,973	△1,006	1,337	△2,874	1,430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0.3백만 달러

-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5.6백만 달러, 건설업 2.2백만 달러, 전기가스공급업 1.9백만 달러 순으로 높은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
- ◎ 지역별로는 유럽 2.7백만 달러, 아시아 1.1백만 달러 순으로 평균 당기순이익이 높았으며, 북미 지역에서는 △1.1백만 달러의 평균 당기순손실 기록

[표 I-17]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171	△1,456	2,690	△4,705	701
광업	23,755	△48,057	△182,773	△47,442	△33,067
도소매업	2,433	11,223	10,160	2,672	5,591
부동산업	△1,520	109	4,969	△1,147	475
정보통신업	△4,851	△4,097	△2,293	△3,725	△4,345
건설업	1,328	△908	24,268	△4,274	2,215
전기가공공업	8,914	△8,632	△5,676	△956	1,866
전문과학기술업	△480	△5,768	2,470	△3,224	△2,393
숙박음식점업	△90	△5,734	△2,538	△11,477	△3,383
기타	△250	1,194	1,417	179	250
전체	1,084	△1,051	2,701	△6,546	257

국가별로는 중국(17억 달러), 베트남(10억 달러), 싱가포르(8억 달러) 순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손실 규모가 큰 국가로는
마다가스카르(△23억 달러), 영국(△6억 달러) 순임.

[표 I-18]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상위 10개 국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 가	당기순이익	국 가	당기순손실
1	중국	1,709	마다가스카르	△2,317
2	베트남	1,014	영국	△625
3	싱가포르	809	미국	△551
4	인도	461	일본	△503
5	러시아	392	캐나다	△456
6	벨기에	360	오스트레일리아	△182
7	터키	291	페루	△114
8	슬로바키아	246	사우디아라비아	△109
9	폴란드	168	예멘	△87
10	인도네시아	159	홍콩	△82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0.3%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며 전년(1.1%)대비 0.8%p 하락함.

-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14.3%로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률을, 광업이 △27.2%로 가장 낮은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유럽 및 아시아가 모두 1.5%, 북미가 △0.7%를 기록함.

[표 I-19]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5	△0.8	1.4	△4.6	0.7
광업	13.5	△104.6	△110.3	△37.1	△27.2
도소매업	2.0	2.2	2.0	1.2	2.0
부동산업	△53.5	3.2	159.1	△14.9	14.3
정보통신업	△14.5	△16.9	△22.1	△16.9	△15.5
건설업	3.7	△12.5	16.8	△13.0	5.2
전기가공업	21.8	△84.1	△2.4	△6.5	3.4
전문과학기술업	△2.0	△45.9	7.6	△17.1	△11.7
숙박음식점업	△1.0	△13.2	△158.6	△172.7	△16.4
기타	△0.9	2.2	8.0	1.4	0.9
전체	1.5	△0.7	1.5	△7.7	0.3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이 0.7백만 달러의 평균 당기순이익,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0.1백만 달러의 평균 당기순손실을 시현

- 대기업 투자자들은 업종별로 도소매업(10.7백만 달러), 건설업(3.1백만 달러), 제조업(1.6백만 달러) 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높으며, 중소기업 투자자들은 전기가스공급업(4.0백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이 높음.
-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기업 현지법인이 중소기업 현지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전기가스공급업 및 부동산업에서는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더욱 높은 성과를 보임.

[표 I-2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604	△80	696	701
광업	△37,813	△572	1,422	△33,067
도소매업	10,681	△154	△14,395	5,591
부동산업	△863	1,061	667	475
정보통신업	△7,146	△1,865	△968	△4,345
건설업	3,119	△352	△811	2,215
전기가스공급업	1,080	4,025	-	1,866
전문과학기술업	△2,324	△2,263	△3,443	△2,393
숙박음식점업	△7,115	△734	△88	△3,383
기타	280	328	△198	250
전체	746	△103	△741	257

대기업 현지법인은 0.4%,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0.6%의 당기순이익률 기록

-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순이익률이 전문과학기술업, 광업, 부동산업 등에서는 전년 대비 개선됨. 전반적으로 대기업 현지법인의 순이익률이 중소기업 현지법인보다 높으나, 전기가스공급업 및 부동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높은 당기순이익률이 두드러짐.

[표 I-2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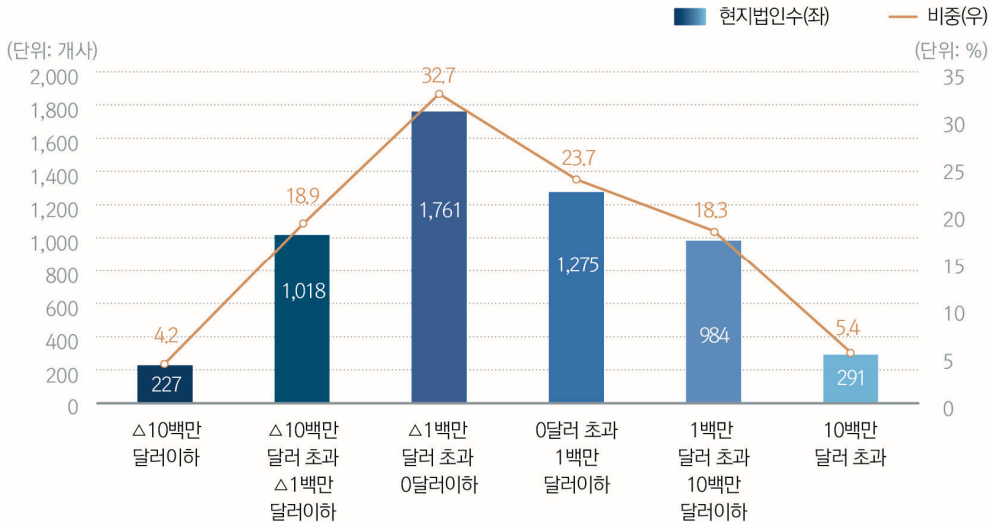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0.9	△0.3	3.8	0.7
광업	△27.3	△13.1	94.8	△27.2
도소매업	2.3	△0.8	△22.8	2.0
부동산업	△11.8	36.8	129.4	14.3
정보통신업	△16.0	△15.4	△6.9	△15.5
건설업	5.6	△5.4	△52.6	5.2
전기가스공급업	1.4	247.0	-	3.4
전문과학기술업	△5.6	△41.5	△126.5	△11.7
숙박음식점업	△16.7	△14.2	△13.1	△16.4
기타	0.5	3.9	△7.5	0.9
전체	0.4	△0.6	△6.9	0.3

(3) 당기순이익 분포 및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당기순이익 △1백만 달러 초과 0달러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1,761개사, 32.7%)하였으며, 1백만 달러 초과 1백만 달러 이하 구간에 분포한 현지법인이 3,036개사로 56.3%를 차지함.

- 1백만 달러 초과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현지법인은 1,275개사(23.7%), △1백만 달러 이하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실현한 현지법인은 1,245개사(23.1%)

[그림 I-2] 구간별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분포



영업개시 경과연도별로 살펴보면, 영업개시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흑자법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흑자를 실현한 2,661개사 중 절반 이상(54.2%)이 영업개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법인들로 파악됨.

- 영업개시 후 10년 이상 경과한 현지법인들의 경우 흑자법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현지법인들의 경우 60% 이상의 법인이 흑자 실현. 이는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구축되고 기업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뤄짐에 따라, 영업활동 개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현지법인이 전체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45.2%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름.

[표 I-22]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개, %)

구분	흑자법인		적자법인		전체법인수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1년 미만	114	32.1	241	67.9	355
1년 이상~2년 미만	110	30.1	255	69.9	365
2년 이상~3년 미만	136	37.9	223	62.1	359
3년 이상~4년 미만	119	37.4	199	62.6	318
4년 이상~5년 미만	141	44.6	175	55.4	316
5년 이상~6년 미만	136	44.7	168	55.3	304
6년 이상~7년 미만	127	41.2	181	58.8	308
7년 이상~8년 미만	127	48.7	134	51.3	261
8년 이상~9년 미만	117	48.8	123	51.3	240
9년 이상~10년 미만	92	41.8	128	58.2	220
10년이상~20년 미만	1,053	55.2	853	44.8	1,906
20년이상~30년 미만	296	66.1	152	33.9	448
30년 이상	93	59.6	63	40.4	156
전 체	2,661	47.9	2,895	52.1	5,556

3 매출입 현황⁴

가. 매출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현지매출 비중이 6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수출 비중은 16.9%, 제3국수출 비중은 14.2%를 기록

- 현지매출은 관계회사보다는 기타 현지 판매처에 집중된 반면, 한국 수출은 모기업 등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음. 또한 전체 매출액 중 관계회사 앞 매출 비중은 28.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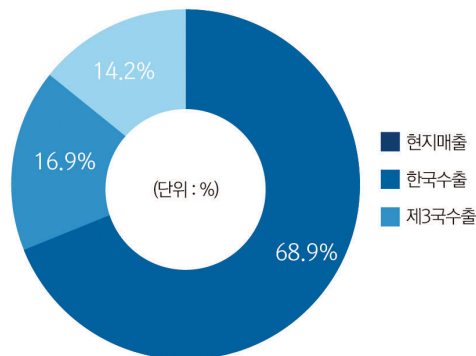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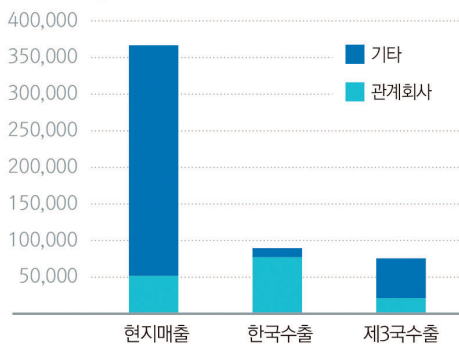
[표 I-23] 현지법인 매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출액	52,198	314,447	77,693	12,140	21,719	53,925
비중	9.8	59.1	14.6	2.3	4.1	10.1

[그림 I-3] 매출현황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4 매출입현황은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하여 업종 특성상 현지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과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높았음.

- 제조업의 경우, 생산기지 확보 목적의 법인 설립이 많아 상대적으로 한국수출 비중(23.4%)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회사 앞 매출 비중(38.3%) 역시 전체 평균(28.5%)보다 높았음.
- 도소매업의 경우, 현지시장 진출 및 인근지역 판로 개척 목적의 법인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수출 비중이 5.8%로 매우 낮았으며, 관계회사 앞 매출 비중 역시 8.6%로 전체 평균(28.5%)을 크게 밑도는 수준

[표 I-24] 주요 업종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조업	38,339	167,590	69,935	6,560	16,821	27,059
광업	5,551	3,750	1,126	41	298	789
도소매업	5,506	121,237	4,450	4,851	3,874	21,164
전체	52,198	314,447	77,693	12,140	21,719	53,925

[표 I-25] 주요 업종별 매출 비중

(단위: %)

구분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제조업	63.1	23.4	13.4
광업	80.5	10.1	9.4
도소매업	78.7	5.8	15.5
전체	68.9	16.9	14.2

지역별로는, 현지매출 비중은 북미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수출 비중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게 나타남.

- 아시아의 경우, 중국·베트남 등 제조업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매출규모가 커, 현지매출 비중(58.6%)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수출 비중(30.7%)은 전체 평균(16.9%)을 크게 상회함.
- 북미 지역에서는 현지매출 비중(84.7%)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미국 등 대규모 내수시장에 진출한 도소매업 현지법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
- 유럽에서는 한국수출 대비 현지매출(72.2%) 및 제3국수출(23.2%)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 내 다수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현지판매법인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됨.

[표 I-26]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아시아	27,597	125,859	69,610	10,736	7,248	20,848
북미	3,095	117,130	2,455	1,055	1,268	16,962
유럽	16,995	48,740	4,123	79	9,677	11,473
기타	4,512	22,718	1,505	270	3,526	4,642
전체	52,198	314,447	77,693	12,140	21,719	53,925

[표 I-27] 지역별 매출 비중

(단위: %)

구분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아시아	58.6	30.7	10.7
북미	84.7	2.5	12.8
유럽	72.2	4.6	23.2
기타	73.3	4.8	22.0
전체	68.9	16.9	14.2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현지매출 비중은 대기업 현지법인과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각각 68.9%와 67.4%로 유사, 한국수출 비중은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23.0%로 대기업 현지법인의 16.3% 대비 높게 나타남.

- 한편, 현지 관계회사 앞 매출 비중은 대기업이 10.3%, 중소기업이 5.0%로, 상대적으로 현지에 다수의 관계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표 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기업	49,258	280,935	68,020	10,236	20,950	49,810
중소기업	2,500	30,850	9,527	1,881	726	4,030
기타	440	2,663	147	23	43	85
전체	52,198	314,447	77,693	12,140	21,719	53,925

[표 I-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비중

(단위: %)

구분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대기업	68.9	16.3	14.8
중소기업	67.4	23.0	9.6
기타	91.3	5.0	3.8
전체	68.9	16.9	14.2

나. 매입 현황⁵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입 구조는 현지매입 41.6%, 한국수입 44.5%, 제3국 수입 13.9%의 비중으로, 현지매입과 한국수입 비중은 비교적 유사함.

- ◎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59.1%로 높았으며, 특히 한국 관계회사로부터 수입 비중이 40.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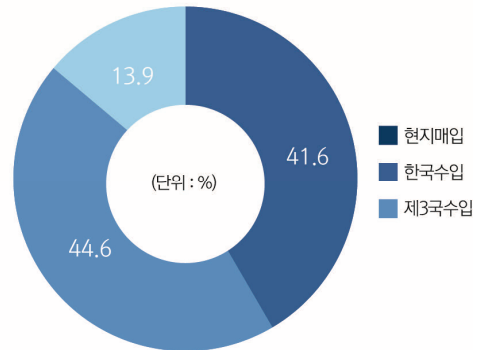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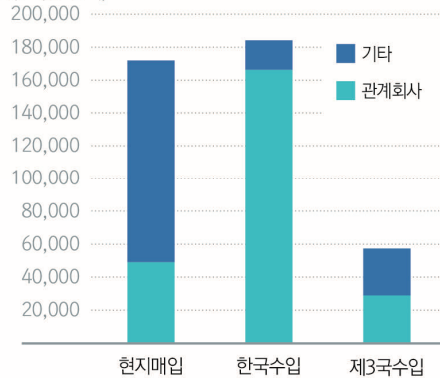
[표 I-30] 현지법인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입액	49,132	122,793	166,362	17,913	28,956	28,440
비중	11.9	29.7	40.2	4.3	7.0	6.9

[그림 I-4] 현지법인 매입현황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5 당해연도 매출원가가 아닌 당기매입액임.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광업에서는 현지매입 비중이,
도소매업에서는 한국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광업은 업종의 특성상 현지매입 비중이 91.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로 현지매입 비중(48.8%)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수입 비중(39.0%)도 상당 비중을 차지함.
-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 모기업 제품의 현지시장 판매를 위한 법인 설립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한국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58.5%로 높게 나타남.

[표 I-31] 주요 업종별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조업	31,095	91,572	82,863	15,125	10,360	20,115
광업	2,159	2,217	320	41	14	50
도소매업	14,925	17,382	80,655	1,868	17,184	5,961
전체	49,132	122,793	166,362	17,913	28,956	28,440

[표 I-32] 주요 업종별 매입 비중

(단위: %)

구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제조업	48.8	39.0	12.1
광업	91.1	7.5	1.3
도소매업	23.4	59.8	16.8
전체	41.6	44.6	13.9

지역별로는 아시아는 현지매입 비중이, 북미는 한국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우 비교적 균등한 매입 구조를 보임.

[표 I-33] 지역별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아시아	22,398	77,507	56,469	15,105	4,481	20,571
북미	11,857	19,312	76,380	778	3,593	1,656
유럽	12,032	15,831	22,744	1,452	18,499	5,655
기타	2,845	10,144	10,769	578	2,382	558
전체	49,132	122,793	166,362	17,913	28,956	28,440

[표 I-34] 지역별 매입 비중

(단위: %)

구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아시아	50.8	36.4	12.7
북미	27.4	67.9	4.6
유럽	36.6	31.7	31.7
기타	47.6	41.6	10.8
전체	41.6	44.6	13.9

투자자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현지법인은 한국수입 비중 및 현지매입 비중이 비교적 균등했지만,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현지매입 비중(57.5%)이 한국수입 비중(30.8%) 대비 높았음.

- 한편, 대기업의 경우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61.8%인 반면,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 비중은 31.5%로 상당한 격차를 보임.

[표 I-35]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기업	47,581	103,191	157,432	16,144	28,485	24,735
중소기업	1,492	18,146	8,783	1,729	470	3,512
기타	59	1,455	148	40	0	193
전체	49,132	122,793	166,362	17,913	28,956	28,440

[표 I-36]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비중

(단위: %)

구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대기업	39.9	46.0	14.1
중소기업	57.5	30.8	11.7
기타	79.9	9.9	10.2
전체	41.6	44.6	13.9

4 재무 현황

가. 부채비율⁶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은 141.7%로 전년(144.3%)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주요 투자업종인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부채비율은 전체 평균 수준이나, 건설업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은 업종 최고인 684.1%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961.5%) 대비 낮아진 수준임. 한편, 정보통신업은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73.9%의 부채비율을 기록
- 지역별로는, 아시아 소재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은 113.0%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였으나, 북미 현지법인(171.5%)의 경우 전체 평균(141.7%)보다 높은 수준. 특히, 북미 제조업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은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152.3%) 및 북미 평균 부채비율(171.5%) 대비 높은 340.0%를 기록

[표 I-37] 업종 및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11.1	340.0	133.8	376.2	152.3
광업	66.9	128.0	718.6	135.2	117.7
도소매업	123.2	122.8	166.6	234.7	132.9
부동산업	83.5	78.1	192.8	144.3	105.5
정보통신업	142.2	21.4	61.9	자본잠식	73.9
건설업	284.5	111.0	253.7	자본잠식	684.1
전기가스공급업	149.4	185.4	351.8	155.3	174.1
전문과학기술업	69.3	78.7	29.9	124.0	52.5
숙박음식점업	78.5	119.2	71.2	179.9	109.7
기타	148.6	95.0	105.2	518.3	152.3
전체	113.0	171.5	151.5	252.4	141.7

6 부채총액/자기자본

대기업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은 145.9%,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128.5%로 전체 평균(141.7%)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 대기업 현지법인은 건설업(833.4%)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비교적 고른 수준이나,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상대적으로 업종 간 편차가 큰 편임.

[표 I-3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57.2	134.9	47.1	152.3
광업	122.2	자본잠식	-	117.7
도소매업	132.9	353.6	32.8	132.9
부동산업	96.5	118.2	110.6	105.5
정보통신업	80.2	46.3	139.6	73.9
건설업	833.4	99.8	875.8	684.1
전기가스공급업	173.3	186.8	-	174.1
전문과학기술업	60.2	37.4	76.8	52.5
숙박음식점업	106.9	129.5	82.7	109.7
기타	133.1	177.5	953.9	152.3
총합계	145.9	128.5	55.6	141.7

나. 차입금⁷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차입금 규모는 1,572억 달러로,
전년(1,645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함.

- ◎ 업종별 차입금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 1,017억 달러, 광업 127억 달러, 부동산업 118억 달러 순으로 크게 나타남.
- ◎ 지역별 차입금 규모를 살펴보면 아시아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634억 달러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며, 유럽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북미는 전년 수준을 유지

[표 I-39]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44,860	39,046	8,841	8,948	101,696
광업	1,936	1,571	514	8,724	12,745
도소매업	4,028	1,522	812	596	6,957
부동산업	2,586	3,837	4,789	609	11,822
정보통신업	2,066	252	142	57	2,516
건설업	1,532	163	3,324	1,746	6,766
전기가스공급업	3,314	306	857	2,689	7,166
전문과학기술업	234	216	430	13	894
숙박음식점업	142	1,300	214	106	1,762
기타	2,678	666	215	1,345	4,904
전체	63,376	48,880	20,138	24,833	157,228

7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장기차입금의 합계

현지법인당 평균 차입금 규모는 대기업이 53.2백만 달러로 중소기업 현지법인(6.7백만 달러)의 8.0배 수준으로 자금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는 전년(8.7배) 대비 다소 완화됨.

- 대기업의 경우 광업(153백만 달러) 및 전기가스공급업(118백만 달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가스공급업(33백만 달러) 및 부동산업(25백만 달러)에서 평균 차입금 규모가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차입금 총계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제조업이 평균 차입금 규모는 30백만 달러로 전체 평균 수준이며, 광업 및 전기가스공급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본 투입규모가 상당하여 평균 차입금 규모 역시 높은 수준임.

[표 I-4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차입금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60,242	5,129	3,681	29,990
광업	153,085	3,855	-	134,153
도소매업	18,390	3,020	3,399	11,872
부동산업	65,577	24,687	4,858	29,262
정보통신업	19,264	1,912	7	10,147
건설업	80,519	8,307	11,969	62,070
전기가스공급업	118,471	32,521	-	95,551
전문과학기술업	7,984	2,754	2,285	4,937
숙박음식점업	46,606	9,187	3,810	24,476
기타	16,092	8,905	11,125	12,416
전체	53,181	6,676	4,815	28,299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차입금의존도⁸는 25.3%로 전년(27.1%) 대비 소폭 하락함.

- ◎ 업종별로는 건설업(55.2%), 부동산업(41.3%), 전기가스공급업(39.2%) 순으로 차입금의존도가 높았으며, 동 업종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 지역별로는 북미 현지법인의 차입금의존도가 28.8%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 현지법인은 20.7%로 낮은 차입금의존도를 보임. 유럽 부동산업 현지법인의 경우, 주요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8.2%를 기록함.

[표 I-41]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0.8	48.9	23.7	38.8	28.6
광업	16.7	18.6	23.8	41.4	29.5
도소매업	9.9	2.9	3.9	12.0	5.9
부동산업	34.9	33.0	58.2	43.5	41.3
정보통신업	22.9	3.9	14.4	19.4	15.0
건설업	36.3	36.2	51.6	152.7	55.2
전기가스공급업	46.1	21.7	29.3	39.7	39.2
전문과학기술업	11.3	10.0	12.9	7.3	11.5
숙박음식점업	20.9	42.2	39.6	25.1	37.3
기타	34.6	16.4	20.2	51.3	31.7
전체	20.7	28.8	24.0	40.1	25.3

8 총차입금/총자산

- ◎ 중소기업 현지법인과 대기업 현지법인의 차입금의존도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소기업 광업 현지 법인은 가장 높은 수준인 78.8%를 기록

[표 I-4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9.8	21.9	8.1	28.6
광업	29.9	78.8	0.0	29.5
도소매업	5.5	20.2	3.0	5.9
부동산업	41.9	40.0	45.3	41.3
정보통신업	16.9	7.1	0.1	15.0
건설업	56.6	32.6	38.6	55.2
전기가스공급업	37.9	58.7	-	39.2
전문과학기술업	12.0	9.9	22.0	11.5
숙박음식점업	37.4	36.3	41.5	37.3
기타	27.4	36.1	73.9	31.7
전체	25.4	25.6	16.1	25.3

다. 이자보상배율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차입금은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커, 이자보상배율은 전년(2.5배)보다 감소한 1.8배를 기록함.

-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7.6배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도 2.4배로 평균(1.8배)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반면, 광업, 정보통신업 등은 영업적자를 기록함.
- ◎ 유럽 지역은 영업실적 부진 및 차입금 증가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전년(4.4배) 대비 악화된 3.0배를 기록함.

[표 I-43] 업종 및 지역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배)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3.0	영업적자	9.2	0.2	2.4
광업	6.3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도소매업	1.1	7.3	22.5	8.1	7.6
부동산업	영업적자	0.6	0.8	0.5	0.4
정보통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0.4	영업적자
건설업	6.3	영업적자	2.0	영업적자	1.6
전기가스공급업	2.4	영업적자	1.0	0.8	1.0
전문과학기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0.1	영업적자	영업적자
숙박음식점업	5.6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기타	2.0	7.2	1.9	1.6	2.4
전체	2.8	1.2	3.0	0.1	1.8

- ◎ 대기업 현지법인의 이자보상배율은 2.1배로 전년(2.8배) 대비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전년(0.7배)과 큰 변동없는 0.6배를 기록함.

[표 I-44]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배)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5	1.5	11.3	2.4
광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	영업적자
도소매업	8.6	1.3	영업적자	7.6
부동산업	0.3	0.7	영업적자	0.4
정보통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건설업	1.7	영업적자	-	1.6
전기가스공급업	1.0	0.3	-	1.0
전문과학기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숙박음식점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기타	2.5	1.8	1.6	2.4
전체	2.1	0.6	영업적자	1.8

라. 유동비율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유동비율은 142.6%로 전년(135.8%) 대비 상승

- ◎ 전문과학기술업(220.9%), 전기가스공급업(148.1%), 제조업(1451.7%) 순으로 유동비율이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110.1%) 및 부동산업(105.0%)은 유동비율이 평균을 하회하여 유동성 개선 필요
- ◎ 지역별로는, 북미 소재 현지법인의 유동비율이 170.7%로 유동성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유럽(144.9%)는 전체 평균(142.6%)과 유사한 수준
-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 유동비율이 145.1%로 중소기업 현지법인(117.9%) 보다 양호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45] 업종 및 지역별 유동비율 현황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26.2	220.4	147.7	99.2	145.7
광업	212.1	57.3	269.3	140.6	137.0
도소매업	162.7	121.3	144.2	108.3	139.1
부동산업	106.6	127.2	140.9	20.9	105.0
정보통신업	117.9	249.3	179.6	191.8	144.3
건설업	151.8	161.2	86.9	64.1	115.1
전기가스공급업	179.0	222.9	111.8	176.9	148.1
전문과학기술업	186.1	229.9	269.5	140.3	220.9
숙박음식점업	171.7	156.6	9.0	64.7	110.1
기타	102.5	219.3	156.1	97.0	126.2
전체	133.8	170.7	144.9	104.0	142.6

[표 I-46]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유동비율 현황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51.3	108.7	185.6	145.7
광업	137.5	48.6	846.2	137.0
도소매업	139.2	101.8	331.0	139.1
부동산업	96.1	133.4	86.9	105.0
정보통신업	131.4	212.1	188.9	144.3
건설업	113.6	216.3	34.2	115.1
전기가스공급업	148.6	137.2	-	148.1
전문과학기술업	154.6	453.2	278.8	220.9
숙박음식점업	102.7	161.5	108.9	110.1
기타	130.2	113.1	113.5	126.2
전체	145.1	117.9	190.6	142.6

마. 금융비용부담률⁹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금융비용부담률은 1.0%로, 전년(1.1%) 대비 소폭 개선됨.

- ◎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6.6%), 전기가스공급업(10.2%), 광업(6.6%)에서 전체 평균(1.0%) 대비 매우 높은 금융비용부담률을 기록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북미 및 유럽 모두 전체 평균(1.0%)과 유사한 수준이며, 유럽 지역은 상대적으로 업종 간 편차가 큰 편임.
-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 금융비용부담률(1.0%)이 중소기업 현지법인(1.3%)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I-47] 업종 및 지역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0.8	0.5	0.3	2.5	0.8
광업	2.7	14.2	6.5	8.6	6.6
도소매업	0.2	0.4	0.1	0.2	0.3
부동산업	15.7	26.3	77.6	82.3	36.6
정보통신업	0.5	0.9	4.9	19.0	1.1
건설업	1.0	6.0	11.5	10.5	6.2
전기가스공급업	12.7	26.8	3.4	46.4	10.2
전문과학기술업	0.4	1.2	1.7	1.6	0.9
숙박음식점업	1.9	4.9	105.4	17.4	4.9
기타	2.6	0.5	2.4	4.6	2.1
전체	0.9	0.8	0.8	3.6	1.0

9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매출액

[표 I-4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0.8	0.9	0.7	0.8
광업	6.6	1.9	-	6.6
도소매업	0.3	0.7	0.2	0.3
부동산업	36.3	27.0	130.8	36.6
정보통신업	1.2	0.9	0.7	1.1
건설업	6.3	2.8	0.0	6.2
전기가스공급업	9.9	57.1	-	10.2
전문과학기술업	0.6	2.0	4.8	0.9
숙박음식점업	4.6	7.5	4.1	4.9
기타	1.9	3.0	6.1	2.1
전체	1.0	1.3	3.0	1.0

II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효과 분석

1 투자수익

가. 투자수익률

분석대상 현지법인이 한국투자자에게 지급한 투자자순이익¹⁰, 로열티, 대부이자를 합산한 투자수익은 80억 달러이며, 이를 투자잔액으로 나눈 투자수익률은 3.7%로 전년(5.6%) 대비 1.9%p 감소함.

- 투자자순이익 42억 달러, 로열티 33억 달러, 대부이자 4억 달러로, 전년(각각 70억 달러, 39억 달러, 6억 달러)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투자자순이익이 큰 폭(△39.8%)으로 감소

[표 II-1] 현지법인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수익				투자잔액(B)	투자수익률 (A/B)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금액	4,225	3,345	416	7,987	213,387	3.7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수익률이 7.1%로 전년(9.0%)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평균(3.7%) 대비 높은 수준임. 도소매업은 13.0%로 전년(12.74%) 대비 소폭 상승 및 타업종 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함.

- 부(-)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은 광업(△7.8%), 정보통신업(△6.0%) 등으로, 특히 정보통신업은 전년 0.4%에서 부(-)의 투자수익률로 전환

¹⁰ 투자자순이익 = 당기순이익 × 한국투자자 지분율

지역별로는 유럽, 아시아, 북미 순으로, 각각 7.3%, 7.1%, 0.7%의 투자수익률을 실현

- 아시아 지역은 전년(7.0%)과 유사한 수준이나, 북미와 유럽은 전년(각각 2.5%, 11.3%) 대비 하락하여 수익성 저하
- 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소매업(17.6%) 및 전기가스공급업(11.4%)의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도소매업(29.7%) 및 건설업(20.6%)이 높게 나타남.

[표 II-2] 업종 및 지역별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8.3	1.9	13.3	△1.3	7.1
광업	7.2	△12.0	△19.2	△4.9	△7.8
도소매업	17.6	9.2	29.7	7.3	13.0
부동산업	△2.6	0.7	9.5	△0.4	2.0
정보통신업	△11.9	△3.1	△3.2	△18.4	△6.0
건설업	7.3	△1.6	20.6	△3.3	3.7
전기가스공급업	11.4	0.3	△3.7	7.3	4.4
전문과학기술업	△1.6	△7.3	△0.1	△6.4	△2.8
숙박음식점업	△1.4	△4.9	△1.2	△30.9	△5.5
기타	△6.0	2.8	13.0	1.4	△0.6
전체	7.1	0.7	7.3	△3.0	3.7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률이 4.2%로 전년(6.2%) 대비 2.0%p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률도 전년 대비 0.3%p 감소한 1.7%를 기록

- 대기업 제조업 현지법인 투자수익률은 전년(10.0%) 대비 소폭 하락한 8.4%를 기록하였으며, 중소기업 제조업 현지법인 투자수익률은 전년(3.5%) 대비 절반 수준인 1.7%를 기록

[표 II-3]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8.4	1.7	5.1	7.1
광업	△7.9	△4.2	0.5	△7.8
도소매업	13.8	2.0	△14.4	13.0
부동산업	△0.4	4.1	10.2	2.0
정보통신업	△8.1	△0.9	△4.8	△6.0
건설업	4.2	△2.0	△11.7	3.7
전기가스공급업	3.0	15.5	-	4.4
전문과학기술업	1.0	△11.8	△20.9	△2.8
숙박음식점업	△5.6	△5.3	△0.8	△5.5
기타	△2.6	2.6	△0.7	△0.6
전체	4.2	1.7	2.2	3.7

나. 투자자순이익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투자자순이익은 전년(70억 달러) 대비 하락한 42억 달러를 기록

- 건설업 현지법인은 전년 △6억 달러에서 개선된 2억 달러를 실현하였고, 전기가스공급업 및 부동산업 현지법인도 전년 대비 증가함. 그 외의 업종은 투자자순이익 규모가 감소함.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7.5% 증가, 유럽 지역은 46.7% 감소하였으며, 북미 지역은 투자자순손실(△8백만 달러)로 전환

[표 II-4] 업종 및 지역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3,608	△84	610	△331	3,803
광업	191	△1,247	△731	△948	△2,734
도소매업	1,005	1,649	856	81	3,592
부동산업	△139	41	362	△15	249
정보통신업	△374	△175	△48	△20	△616
건설업	101	△11	215	△92	212
전기가스공급업	194	△4	△56	42	176
전문과학기술업	△18	△87	△4	△14	△122
숙박음식점업	△11	△140	△5	△73	△229
기타	△207	49	57	△4	△105
전체	4,350	△8	1,256	△1,373	4,225

- ◎ 투자자 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투자자순이익이 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68억 달러) 대비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전년(1억 달러)에서 증가한 2억 달러를 시현

[표 II-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3,753	24	26	3,803
광업	△2,732	△5	3	△2,734
도소매업	3,599	18	△26	3,592
부동산업	△77	242	85	249
정보통신업	△529	△81	△7	△616
건설업	224	△9	△2	212
전기가스공급업	97	79	-	176
전문과학기술업	27	△126	△23	△122
숙박음식점업	△202	△26	△1	△229
기타	△137	45	△13	△105
전체	4,022	161	42	4,225

다.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에 대한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은 33억 달러로
전년(39억 달러) 대비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로열티 지급액이 32억 달러로 총지급액의 94.2%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정보통신업의 지급액(1억 달러)이 3.2%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아시아 현지법인이 전체 현지법인의 62.0%에 해당하는 21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유럽 지역이 6억 달러를 지급함. 모든 지역에서 제조업 현지법인의 로열티 지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6] 업종 및 지역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965	350	616	219	3,150
광업	-	-	-	13	13
도소매업	26	6	11	2	45
부동산업	1	-	-	-	1
정보통신업	68	34	3	1	106
건설업	4	0	0	-	4
전기가스공급업	-	-	-	-	-
전문과학기술업	1	2	-	-	3
숙박음식점업	2	0	0	1	4
기타	6	6	2	6	19
전체	2,073	398	632	242	3,345

-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로열티 지급액이 30억 달러로 전체 지급액의 90.7%를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912	237	1	3,150
광업	13	-	-	13
도소매업	37	8	-	45
부동산업	1	-	-	1
정보통신업	51	55	-	106
건설업	3	1	-	4
전기가스공급업	-	-	-	-
전문과학기술업	2	0	-	3
숙박음식점업	4	-	0	4
기타	11	7	1	19
전체	3,035	309	2	3,345

라. 대부이자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에 대한 대부이자 총 지급액은 4.2억 달러로
전년(5.5억 달러)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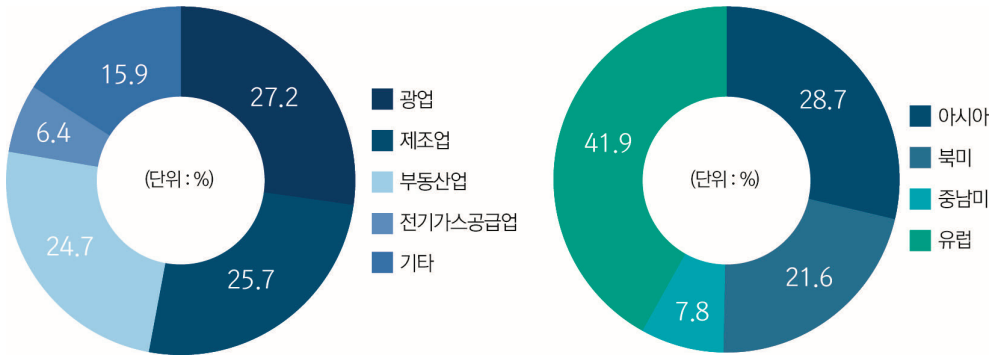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광업(1.1억 달러)이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제조업과 부동산업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음.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이 1.2억 달러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0.9억 달러의 이자를 지급함.

[표 II-8]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87	6	4	11	107
광업	0	2	-	111	113
도소매업	7	0	0	2	11
부동산업	2	8	82	12	103
정보통신업	1	2	1	-	4
건설업	0	1	-	0	2
전기가스공급업	5	6	2	14	27
전문과학기술업	0	1	1	-	2
숙박음식점업	1	1	-	3	5
기타	15	6	1	21	43
전체	120	32	90	174	416

[그림 II-1]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비중 현황



-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대부이자 지급액이 2.6억 달러로 전체의 62.7%를 차지하였고,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1.3억 달러를 지급함.

[표 II-9]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대부이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56	51	0	107
광업	113	0	-	113
도소매업	5	5	0	11
부동산업	39	51	13	103
정보통신업	1	3	-	4
건설업	1	0	-	2
전기가스공급업	27	-	-	27
전문과학기술업	1	1	0	2
숙박음식점업	3	2	-	5
기타	16	18	9	43
전체	261	133	22	416

2 배당금

분석대상 현지법인이 한국투자자 앞 지급한 배당금은 23억 달러로
전년(41억 달러)대비 감소함.

- ◎ 업종별로는 제조업(11억 달러), 부동산업(6억 달러), 광업(2억 달러) 순으로 많은 배당금을 지급함.
- ◎ 지역별로는 아시아 현지법인이 전체의 56.1%에 해당하는 13억 달러를 지급하였고, 북미 및 유럽은 각각 5억 달러 및 3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함.

[표 II-10] 업종 및 지역별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934	19	80	110	1,142
광업	10	89	-	60	160
도소매업	79	5	16	10	111
부동산업	24	370	177	17	588
정보통신업	13	-	1	-	14
건설업	17	-	-	-	17
전기가스공급업	102	-	-	11	113
전문과학기술업	40	-	-	1	41
숙박음식점업	8	-	-	-	8
기타	51	20	11	-	83
전체	1,278	503	286	210	2,277

-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배당금 지급액이 17억 달러로 전체 지급액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 9억 달러를 차지함.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5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함.

[표 I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901	236	5	1,142
광업	115	-	45	160
도소매업	103	4	3	111
부동산업	313	274	1	588
정보통신업	14	-	-	14
건설업	17	-	-	17
전문과학기술업	113	-	-	113
전기가스공급업	41	0	-	41
운수창고업	2	6	-	8
기타	79	3	1	83
전체	1,699	523	55	2,277

- ◎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2,661개의 현지법인 중 한국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현지법인은 11.7%인 312개사였음. 흑자시현 현지법인이 지급한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총액은 19억 달러로 84.8%의 비중임.

[표 II-12]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현지법인수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전체	5,556	2,277
배당 실시 흑자법인	312	1,932

3 수출입 효과

가. 순수출¹¹

한국기업의 대 현지법인 수출액은 1,843억 달러, 수입액은 898억 달러로
순수출액은 944억 달러를 시현

- 수출 규모가 전년(1,982억 달러) 대비 139억 달러 감소하고 수입 규모는 전년(1,022억 달러) 대비 124억 달러 감소했으며, 순수출 규모는 전년(960억 달러) 대비 16억 달러 감소하였음.

[표 II-13]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한국 → 현지법인)	수입액(현지법인 → 한국)	순수출액(수출 - 수입)
관계회사	166,362	77,693	88,669
기타	17,913	12,140	5,773
전체	184,275	89,833	94,442

업종별 순수출액은 국내기업의 판매법인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이 732억 달러로 전체 순수출액의 77.5%를 차지하였음. 반면, 광업은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크게 나타남.

[표 II-14] 주요 업종별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순수출액
제조업	97,988	76,495	21,492
광업	361	1,167	△806
도소매업	82,523	9,300	73,223
전체	184,275	89,833	94,442

11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 및 매입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현지법인과 모기업 또는 기타 한국 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순수출 규모를 계산하였음. 수출은 현지법인 매입현황 중 '한국수입' 항목을, 수입은 현지법인 매출현황 중 '한국수출' 항목을 이용하였음.

[표 II-15] 주요 업종별 순수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순수출액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조업	82,863	15,125	69,935	6,560	12,927	8,565
광업	320	41	1,126	41	△806	-
도소매업	80,655	1,868	4,450	4,851	76,206	△2,983
전체	166,362	17,913	77,693	12,140	88,669	5,773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가 736억 달러, 유럽이 2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요 선진국 앞 순수출 규모가 전체 순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16] 지역별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순수출액
아시아	71,574	80,346	△8,772
북미	77,158	3,510	73,649
유럽	24,196	4,202	19,994
기타	11,347	1,775	9,572
전체	184,275	89,833	94,442

- 한편, 아시아의 경우,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며 순수출액은 △8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한국 관계회사 수입액이 수출액을 131억 달러 초과함.

[표 II-17] 지역별 순수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순수출액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아시아	56,469	15,105	69,610	10,736	△13,141	4,369
북미	76,380	778	2,455	1,055	73,925	△276
유럽	22,744	1,452	4,123	79	18,621	1,373
기타	10,769	578	1,505	270	9,264	308
전체	166,362	17,913	77,693	12,140	88,669	5,773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736억 달러의 순수출액을 기록,
중소기업 순수출이 부(-)인 점을 고려시, 전체 순수출액을 상회함.

[표 II-18]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순수출액
대기업	173,576	78,256	95,320
중소기업	10,512	11,408	△896
기타	187	169	18
전체	184,275	89,833	94,442

[표 II-19]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순수출액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기업	157,432	16,144	68,020	10,236	89,412	5,908
중소기업	8,783	1,729	9,527	1,881	△744	△152
기타	148	40	147	23	1	17
전체	166,362	17,913	77,693	12,140	88,669	5,773

나. 수출입 유발효과¹²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수출 유발효과는 86.4%, 수입 유발효과는 42.1%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전년(46.6%)대비 2.3%p 감소한 44.3% 기록

[표 II-20] 현지법인 수출입 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D-E)
	금액(B)	수출 유발효과(D=B/A)	금액(C)	수입 유발효과(E=C/A)	
213,387	184,275	86.4	89,833	42.1	44.3

- ⊙ 도소매업의 수출 유발효과는 294.2%로 전체 평균 수출 유발효과(86.4%)를 크게 상회하며 높은 무역수지 개선효과(261.1%)를 보임. 제조업의 경우, 수출 유발효과는 98.5%로 전체 평균(86.4%)을 소폭 상회하고, 수입 유발효과도 76.9%로 전체 평균(42.1%)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21] 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잔액(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D-E)
		금액(B)	수출 유발효과(D=B/A)	금액(C)	수입 유발효과(E=C/A)	
제조업	99,454	97,988	98.5	76,495	76.9	21.6
광업	33,531	361	1.1	1,167	3.5	△2.4
도소매업	28,048	82,523	294.2	9,300	33.2	261.1
전체	213,387	184,275	86.4	89,833	42.1	44.3

12 수출입 유발효과는 분석대상 현지법인과 한국 기업간의 수출 및 수입 금액을 한국인 투자자의 투자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수출 유발효과와 수입 유발효과간 차이로 계산함.

지역별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북미가 119.0%로 높고, 아시아가 △9.5%로 낮음.

- 북미의 경우, 수출 유발효과가 124.7%로 높은 수준이나, 수입 유발효과는 5.7%에 불과해 높은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보임. 반면, 아시아의 경우, 수출 유발효과, 수입 유발효과가 각각 77.8%, 87.4%로 수입 유발효과가 더 높아 부(-)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보임.

[표 II-22] 지역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잔액(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 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 유발효과 (E=C/A)	
아시아	91,971	71,574	77.8	80,346	87.4	△9.5
북미	61,893	77,158	124.7	3,510	5.7	119.0
유럽	27,201	24,196	89.0	4,202	15.4	73.5
기타	32,322	11,347	35.1	1,775	5.5	29.6
전체	213,387	184,275	86.4	89,833	42.1	44.3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각각 54.3%, △2.6%로, 투자자 기업규모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효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 II-23] 투자자 기업규모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잔액(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 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 유발효과 (E=C/A)	
대기업	175,597	173,576	98.8	78,256	44.6	54.3
중소기업	34,726	10,512	30.3	11,408	32.9	△2.6
기타	3,063	187	6.1	169	5.5	0.6
전체	213,387	184,275	86.4	89,833	42.1	44.3

4 고용효과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전체 고용인은 총 2.0백만명이며, 이 중 한국인은 4만명으로 전체 고용인 중 1.9%를 차지함.

- 직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가 전체의 83.0%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현지인 생산직 근로자가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함. 한편, 임원의 경우 한국인 비중이 53.6%로, 다른 직종에 비해 한국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4] 직종별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생산직	1,623,632	7,360	1,616,272	0.5
영업직	97,851	7,503	90,348	7.7
관리직	223,944	17,377	206,567	7.8
임원	10,160	5,447	4,713	53.6
전체	1,955,587	37,687	1,917,900	1.9

업종별로는 제조업 현지법인이 전체 고용인의 89.3%인 1.7백만명을 고용하였으며 현지 시장에서의 저임 노동력 활용 유인이 높은 제조업 현지법인의 특성상 한국인 비중은 1.0%로 낮았음.

- 한국인 비중은 정보통신업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업(16.9%) 및 도소매업(8.1%) 또한 한국인 고용 비중이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업종 특성상 고급기술인력 및 관리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I-25] 업종별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제조업	1,736,288	17,311	1,718,977	1.0
광업	11,954	216	11,738	1.8
도소매업	75,702	6,136	69,566	8.1
부동산업	2,787	471	2,316	16.9
정보통신업	17,194	3,589	13,605	20.9
건설업	35,219	512	34,707	1.5
전기가스공급업	1,829	134	1,695	7.3
전문과학기술업	9,208	568	8,640	6.2
숙박음식점업	7,135	216	6,919	3.0
기타	46,198	1,174	45,024	2.5
전체	1,943,514	30,327	1,913,187	1.6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4.9%인 1.7백만명이며, 아시아 고용인원 중 현지인 근로자의 비중이 98.6%에 달함.

- 한편, 한국인 비중의 경우 북미가 10.4%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대기업 판매법인이 다수인 북미의 경우, 영업지원, 마케팅 등 관리업무를 위한 한국인 관리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I-26] 지역별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아시아	1,660,842	23,038	1,637,804	1.4
북미	73,287	7,623	65,664	10.4
유럽	94,329	2,208	92,121	2.3
기타	127,129	4,818	122,311	3.8
전체	1,955,587	37,687	1,917,900	1.9

[표 II-27] 지역 및 직종별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한국인				현지인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아시아	5,914	2,318	10,973	3,833	1,406,050	70,927	158,430	2,397
북미	769	2,200	3,828	826	40,070	8,032	16,473	1,089
유럽	273	301	1,301	333	66,674	6,014	18,431	1,002
기타	404	2,684	1,275	455	103,478	5,375	13,233	225
전체	7,360	7,503	17,377	5,447	1,616,272	90,348	206,567	4,713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은 한국인 고용인 비중이 2.3%인 반면,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1.4%로 상대적으로 현지채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기보다는 현지에서 단순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인 근로자 중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89.5%로, 대기업의 현지인 근로자 중 생산직 근로자 비중 81.0%보다 높은 수준임.

[표 I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대기업	1,129,392	25,986	1,103,406	2.3
중소기업	805,212	11,054	794,158	1.4
기타	20,983	647	20,336	3.1
전체	1,955,587	37,687	1,917,900	1.9

[표 II-29] 투자자 기업규모 및 직종별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한국인				현지인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대기업	4,904	6,387	12,112	2,583	893,393	68,827	138,327	2,859
중소기업	2,379	983	5,019	2,673	710,987	20,274	61,210	1,687
기타	77	133	246	191	11,892	1,247	7,030	167
전체	7,360	7,503	17,377	5,447	1,616,272	90,348	206,567	4,713
전체	7,360	7,503	17,377	5,447	1,616,272	90,348	206,567	4,713

Ⅲ 기타 분석

1 설문사항

가. 개요

제Ⅲ 장에서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2020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5,556개사의 설문 결과를 분석함.

- 모든 지역에서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가 가장 많은 비중(61.0%)을 차지하는 바, 제조업의 설문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Ⅲ-1] 업종 및 지역별 분석대상 현지법인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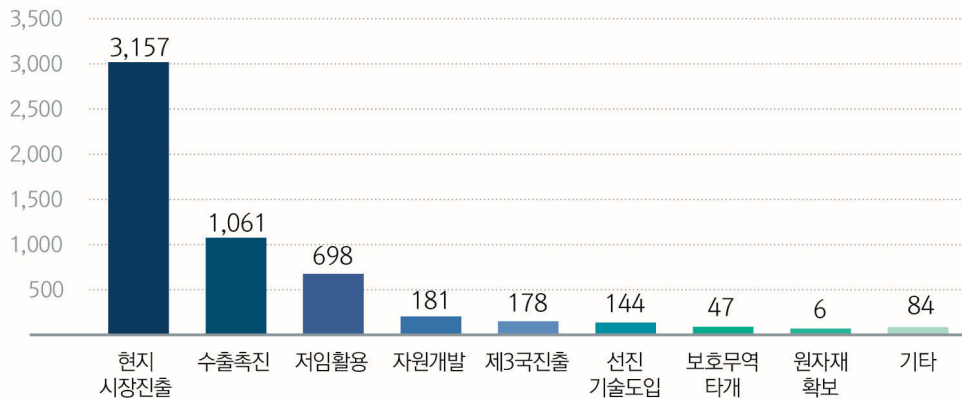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644	321	237	189	3,391
광업	27	25	4	39	95
도소매업	322	139	80	45	586
부동산업	117	201	73	13	404
정보통신업	137	83	22	6	248
건설업	63	12	11	23	109
전기가스공급업	34	10	10	21	75
전문과학기술업	81	73	20	7	181
숙박음식점업	37	25	2	8	72
기타	202	69	36	88	395
전체	3,664	958	495	439	5,556

나. 투자목적별 현황

2020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목적을 조사한 결과 응답수 기준 현지시장진출이 3,157개사(56.8%), 수출촉진이 1,061개사(19.1%), 저임활용이 698개사(12.6%) 순으로 높았음.

[그림 Ⅲ-1] 투자목적별 현황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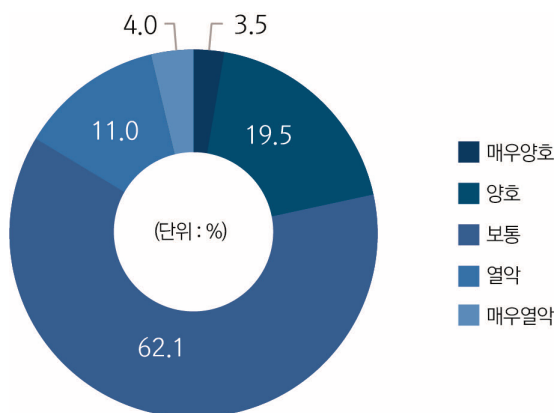


다. 영업환경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영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 비중이 62.1%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92.5%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투자자들은 현지법인의 영업환경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공급업 현지법인의 경우 32.0%의 응답자가 영업환경을 긍정적(양호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률이 22.9%로 상대적으로 영업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한 비중이 높음.

[그림 Ⅲ-2] 현지법인 경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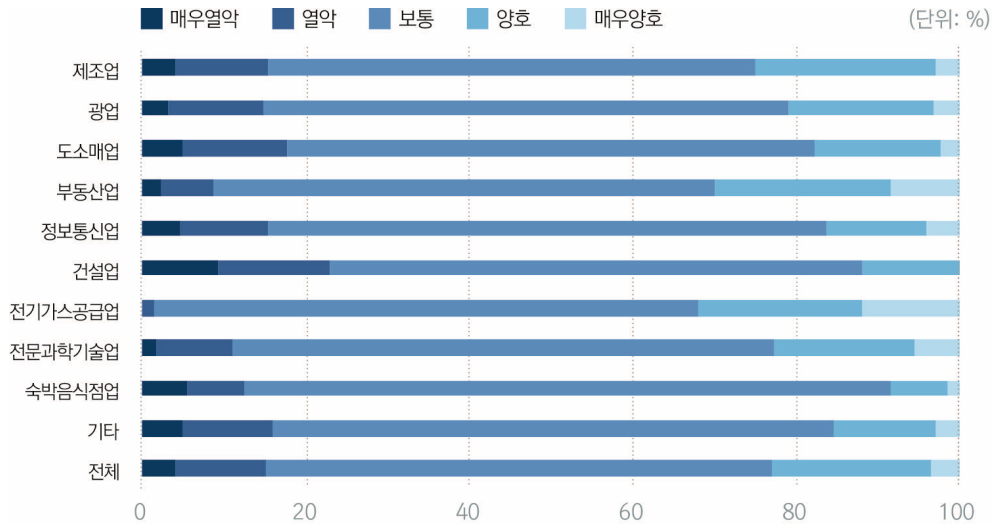


[표 Ⅲ-2] 업종별 경쟁관계

(단위: %, 개)

구분	매우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양호	응답자수
제조업	3.9	11.5	59.6	22.0	2.9	3,391
광업	3.2	11.6	64.2	17.9	3.2	95
도소매업	4.9	12.6	64.7	15.4	2.4	586
부동산업	2.2	6.4	61.4	21.5	8.4	404
정보통신업	4.4	10.9	68.5	12.1	4.0	248
건설업	9.2	13.8	65.1	11.9	0.0	109
전기가스공급업	0.0	1.3	66.7	20.0	12.0	75
전문과학기술업	1.7	9.4	66.3	17.1	5.5	181
숙박음식점업	5.6	6.9	79.2	6.9	1.4	72
기타	4.8	11.1	68.6	12.7	2.8	395
전체	4.0	11.0	62.1	19.5	3.5	5,556

[그림 III-3] 업종별 경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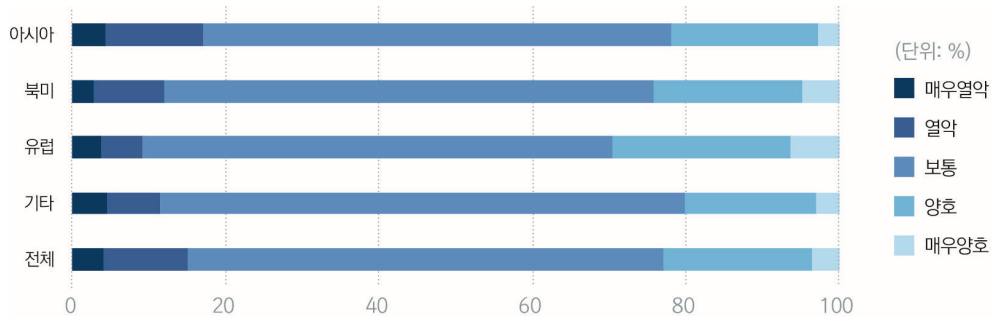
- 지역별 영업환경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중은 유럽이 90.9%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는 83.0%로 평균(85.0%) 수준을 하회

[표 III-3] 지역별 경쟁관계

(단위: %, 개)

구분	매우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양호	응답자수
아시아	4.3	12.7	61.0	19.2	2.8	3,664
북미	2.8	9.1	63.8	19.6	4.7	958
유럽	3.6	5.5	61.2	23.4	6.3	495
기타	4.6	6.8	68.6	17.1	3.0	439
전체	4.0	11.0	62.1	19.5	3.5	5,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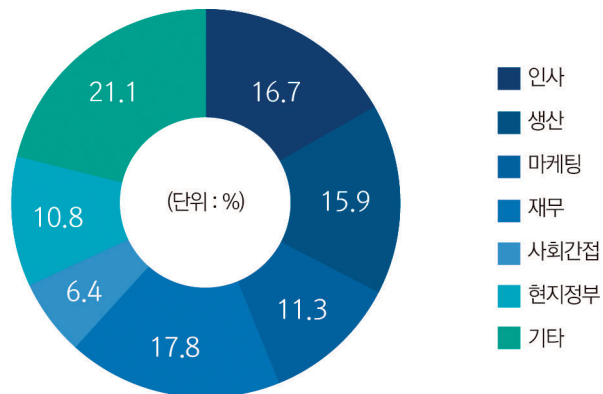
[그림 Ⅲ-4] 지역별 경쟁관계



라. 운영상 애로사항¹³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운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 허용)은 재무(17.8%), 인사(16.7%), 생산(15.9%)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5]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13 운영상 애로사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수가 분석대상(5,556개사)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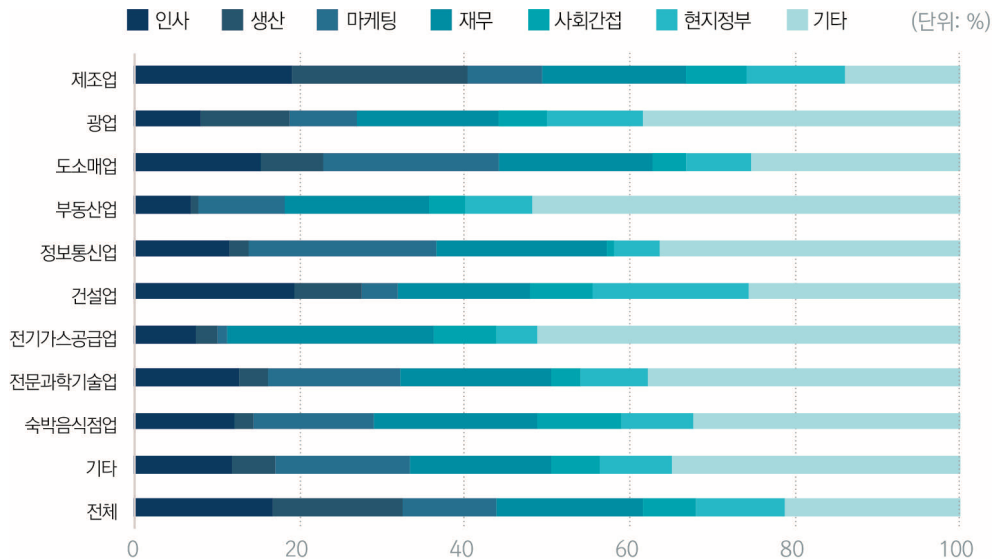
- ◎ 제조업의 경우, 생산 관련 애로사항 비중(21.4%)이 가장 높았으며, 광업, 전기가스공급업, 전문 과학기술업,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재무 관련 애로사항 비중이 가장 높음.

[표 III-4]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개)

구분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사회간접	현지정부	기타	응답수
제조업	19.0	21.4	8.9	17.6	7.2	11.9	13.9	5,468
광업	8.2	10.7	8.2	17.2	5.7	11.5	38.5	122
도소매업	15.5	7.4	21.4	18.6	4.0	7.7	25.4	795
부동산업	6.8	0.9	10.5	17.5	4.4	8.1	51.8	456
정보통신업	11.4	2.4	22.9	20.5	1.0	5.4	36.4	297
건설업	19.4	8.0	4.6	16.0	7.4	18.9	25.7	175
전기가스공급업	7.5	2.5	1.3	25.0	7.5	5.0	51.3	80
전문과학기술업	12.8	3.5	15.9	18.5	3.5	7.9	37.9	227
숙박음식점업	12.2	2.2	14.4	20.0	10.0	8.9	32.2	90
기타	11.8	5.2	16.6	17.0	6.0	8.7	34.9	519
전체	16.7	15.9	11.3	17.8	6.4	10.8	21.1	8,229

[그림 III-6]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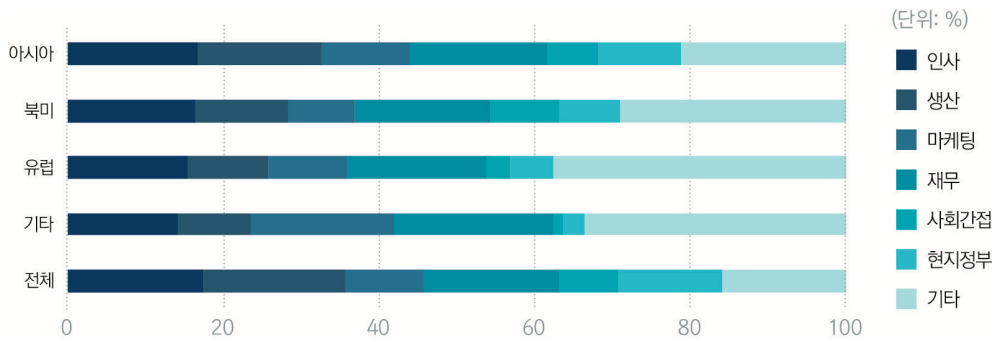
- ◎ 전 지역에서 재무와 관련된 애로사항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에도 아시아는 생산 관련 애로사항 비중이, 북미는 마케팅 관련 애로사항 비중이 높았음.

[표 III-5]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개)

구분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사회간접	현지정부	기타	응답수
아시아	17.4	18.3	10.1	17.3	7.5	13.3	16.0	5,815
북미	14.2	9.2	18.5	20.5	1.3	2.7	33.6	1,204
유럽	15.4	10.5	10.0	18.0	2.9	5.7	37.5	611
기타	16.5	11.7	8.7	17.4	9.0	7.7	29.0	599
전체	16.7	15.9	11.3	17.8	6.4	10.8	21.1	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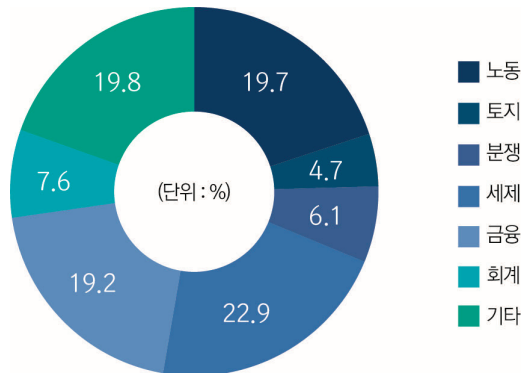
[그림 III-7]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마.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¹⁴

분석대상 현지법인이 소재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 노동, 금융 순이며, 상위 3개 부분은 모두 20% 내외 수준임.

[그림 Ⅲ-8]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 제조업은 노동 및 세제 관련 개선 요구가 높았으며,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업, 숙박음식점업은 세제 관련 개선 요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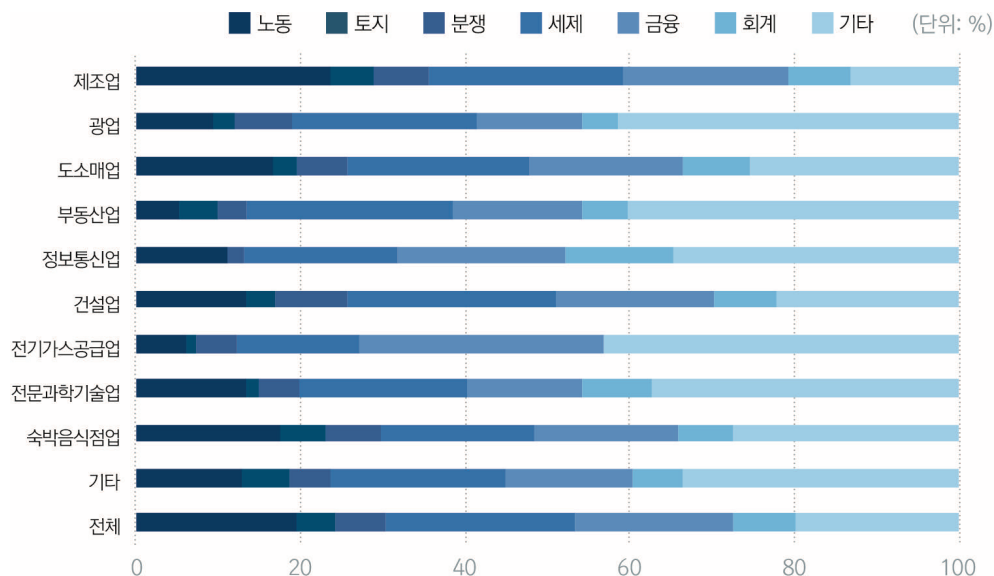
[표 Ⅲ-6]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단위: %, 개)

구분	노동	토지	분쟁	세제	금융	회계	기타	응답수
제조업	23.5	5.4	6.6	23.5	20.1	7.7	13.1	5,115
광업	9.5	2.6	6.9	22.4	12.9	4.3	41.4	116
도소매업	16.7	2.9	6.1	22.0	18.8	7.9	25.6	755
부동산업	5.4	4.5	3.7	24.9	15.7	5.6	40.2	465
정보통신업	11.1	0.0	2.1	18.5	20.6	12.9	34.8	287
건설업	13.5	3.5	8.8	25.1	19.3	7.6	22.2	171
전기가공업	6.2	1.2	4.9	14.8	29.6	0.0	43.2	81
전문과학기술업	13.5	1.4	5.0	20.3	14.0	8.6	37.4	222
숙박음식점업	17.6	5.5	6.6	18.7	17.6	6.6	27.5	91
기타	12.9	5.8	4.8	21.2	15.5	6.3	33.5	496
전체	19.7	4.7	6.1	22.9	19.2	7.6	19.8	7,799

14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수가 분석대상(5,556개사)보다 많음.

[그림 III-9]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자국 법규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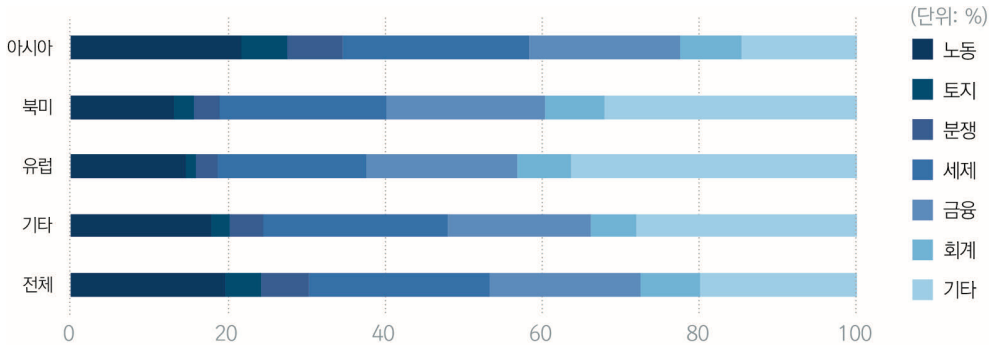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아시아는 세제 및 노동 관련 개선 요구가 높았으며, 북미 및 유럽은 세제 및 금융 관련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표 III-7]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자국 법규나 제도

(단위: %, 개)

구분	노동	토지	분쟁	세제	금융	회계	기타	응답수
아시아	21.8	5.8	7.2	23.7	19.2	7.9	14.6	5,468
북미	13.2	2.4	3.5	21.0	20.2	7.6	32.1	1,136
유럽	14.6	1.5	2.6	19.0	19.0	7.0	36.3	604
기타	17.9	2.2	4.4	23.5	18.1	5.8	28.1	591
전체	19.7	4.7	6.1	22.9	19.2	7.6	19.8	7,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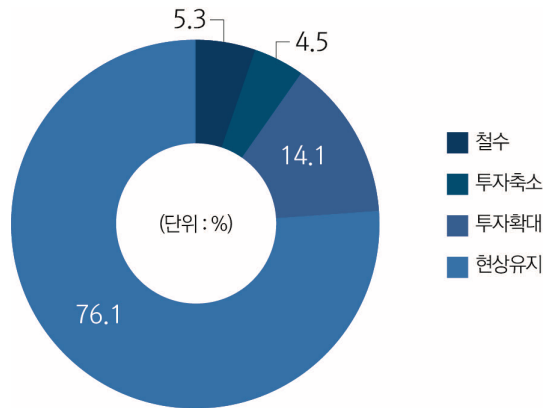
[그림 III-10]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바. 향후 투자 계획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76.1%가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현상유지'라고 답했으며, '투자확대'라고 대답한 비율은 14.1%로 '투자축소' 비율인 4.5%보다 3배 이상 많음.

[그림 III-11] 현지법인 향후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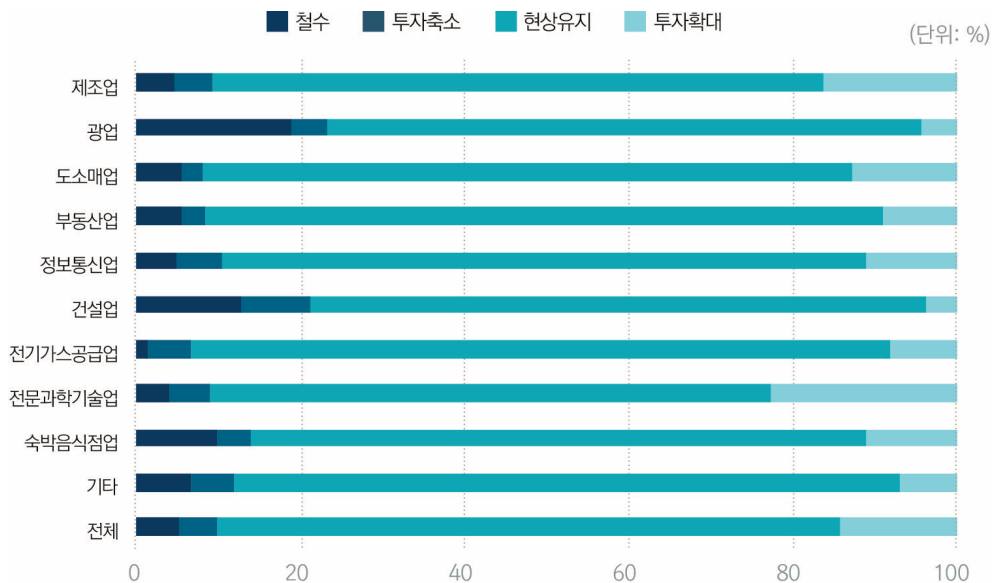
- 업종별로 '현상유지 또는 투자확대'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전기가스공급업(93.3%), 도소매업(91.8%), 부동산업(91.6%) 순이었으며, '투자축소 또는 철수'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광업(23.1%), 건설업(21.1%), 숙박음식점업(13.9%) 순으로 나타남.

[표 III-8]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단위: %, 개)

구분	철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응답수
제조업	4.6	4.6	74.4	16.4	3,391
광업	18.9	4.2	72.6	4.2	95
도소매업	5.5	2.7	79.2	12.6	586
부동산업	5.4	3.0	82.7	8.9	404
정보통신업	4.8	5.6	78.6	10.9	248
건설업	12.8	8.3	75.2	3.7	109
전기가스공급업	1.3	5.3	85.3	8.0	75
전문과학기술업	3.9	5.0	68.5	22.7	181
숙박음식점업	9.7	4.2	75.0	11.1	72
기타	6.6	5.3	81.0	7.1	395
전체	5.3	4.5	76.1	14.1	5,556

[그림 III-12]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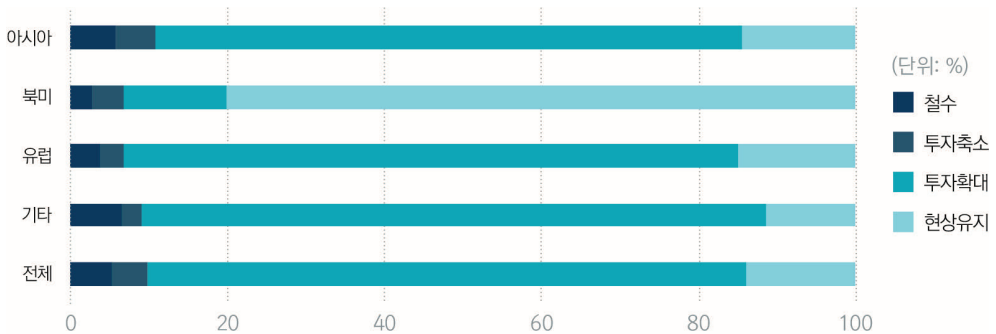
- ◎ 지역별로는 '현상유지 또는 투자확대'로 응답한 비중은 북미(93.2%), 유럽(92.1%), 아시아(89.1%), 순으로 높았으며, '철수 또는 투자축소' 응답 비중은 아시아(10.9%), 유럽(7.9%), 북미(6.8%) 순으로 높았음.

[표 III-9] 지역별 투자 계획

(단위: %, 개)

구분	철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응답수
아시아	5.6	5.2	74.5	14.6	3,664
북미	3.7	3.1	78.3	14.9	958
유럽	5.1	2.8	80.8	11.3	495
기타	6.4	2.7	79.5	11.4	439
전체	5.3	4.5	76.1	14.1	5,556

[그림 III-13] 지역별 향후 투자 계획







102	IV. 5년 시계열 현지법인 경영분석
138	V.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170	VI. 시사점

IV

5년 시계열 현지법인 경영분석



1

분석목적

제 IV 장에서는 최근 5년간 수집된 현지법인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전체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현지법인들의 경영실적과 매출입구조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변화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분석범위

분석대상기업은 2016 회계연도부터 2020 회계연도까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선정¹⁵

- 지난 5년간 연속하여 제출된 보고서 기준이 아니라 각 연도마다 제출된 보고서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6년 4,787개사, 2017년 4,983개사, 2018년 5,072개사, 2019년 5,391개사, 2020년 5,556개사의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하였음.
- 2019년부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이 투자잔액 1백만 달러 초과에서 2백만 달러 초과로 상향됨에 따라 2013년부터의 과거 자료 또한 동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대상의 법인수와 투자잔액이 변경되었음.

15 각 연도별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므로, 연도별 분석대상 기업수도 상이함.

연도별 분석대상 법인수 및 분석대상법인 투자잔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IV-1] 분석대상 법인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종별	4,787	4,983	5,072	5,391	5,556
제조업	2,833	3,015	2,931	3,334	3,391
광업	165	147	125	105	95
도소매업	586	556	576	599	586
부동산업	219	259	473	353	404
정보통신업	175	207	203	234	248
건설업	123	113	122	116	109
전기가스공급업	72	86	52	68	75
전문과학기술업	116	128	136	151	181
숙박음식점업	85	80	72	71	72
기타	413	392	382	360	395
지역별	4,787	4,983	5,072	5,391	5,556
아시아	3,190	3,333	3,312	3,637	3,664
북미	696	745	858	846	958
유럽	403	439	440	491	495
기타	498	466	462	417	439
투자자규모별	4,787	4,983	5,072	5,391	5,556
대기업	2,590	2,631	2,506	2,725	2,596
중소기업	1,878	2,033	2,139	2,374	2,643
기타	319	319	427	292	317

[표 IV-2] 분석대상 법인 투자잔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종별	182,619	192,189	187,063	205,727	213,387
제조업	76,101	78,254	76,704	96,429	99,454
광업	39,759	37,413	30,228	36,060	33,531
도소매업	28,611	34,361	30,771	29,791	28,048
부동산업	10,779	11,679	12,015	13,493	17,914
정보통신업	3,385	6,069	5,874	6,689	8,489
건설업	5,386	5,307	6,477	6,615	5,836
전기가스공급업	4,469	4,839	2,926	3,599	4,581
전문과학기술업	2,703	4,290	13,178	4,132	4,204
숙박음식점업	2,653	2,753	1,965	2,441	4,012
기타	8,773	7,223	6,925	6,478	7,319
지역별	182,619	192,189	187,063	205,727	213,387
아시아	77,684	78,663	73,596	89,080	91,971
북미	47,124	51,623	59,179	54,073	61,893
유럽	24,518	28,919	26,301	27,243	27,201
기타	33,292	32,983	27,987	35,331	32,322
투자자규모별	182,619	192,189	187,063	205,727	213,387
대기업	158,604	166,194	151,944	175,314	175,597
중소기업	18,218	20,499	30,252	26,511	34,726
기타	5,796	5,495	4,867	3,902	3,063

3 최근 5년간 경영분석

가. 경영성과

(1) 매출액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96백만 달러를 시현하였으며, 2018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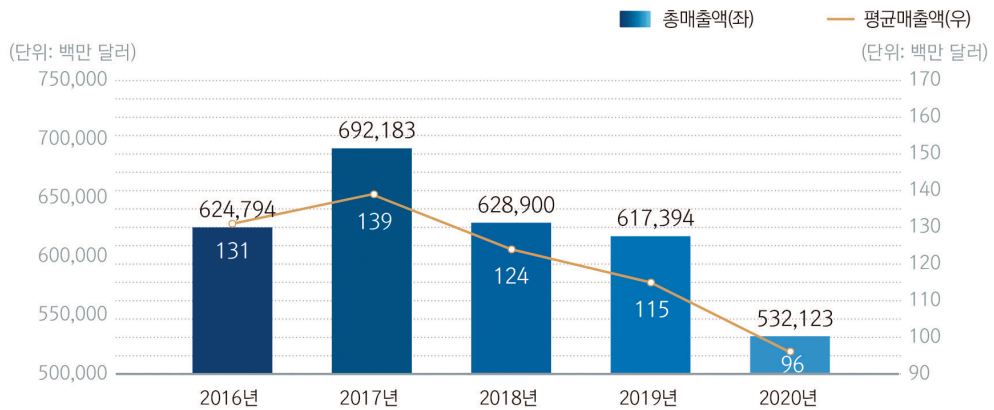
-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액 감소세는 2020년에 더욱 심화됨.

[표 IV-3]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624,794	692,183	628,900	617,394	532,123
평균	131	139	124	115	96
표준편차	863	909	833	759	700
최대값	29,764	29,507	28,286	29,032	29,859

[그림 IV-1] 매출액 추이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분석결과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합한 매출 비중은 90~9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제조업 비중이 소폭 상승한 반면, 광업 및 도소매업 매출 비중은 하락함.

- ◎ 제조업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매출 비중은 2016년 51.8%에서 2020년 61.3%로 상승하였음.
- ◎ 2016년 대비 2020년 전체 매출액은 14.8% 감소하였는데,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0.8%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37.6% 감소하였음.

[표 IV-4] 업종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323,734	355,047	330,419	368,379	326,305
광업	10,019	14,744	17,918	19,772	11,555
도소매업	258,048	282,538	240,637	193,066	161,081
부동산업	1,083	1,886	1,296	1,400	1,341
정보통신업	4,985	7,302	8,439	7,495	6,946
건설업	4,953	3,275	4,358	5,640	4,665
전기가공공급업	1,565	9,370	1,993	4,343	4,175
전문과학기술업	2,789	3,252	3,474	4,097	3,694
숙박음식점업	1,208	1,327	1,227	1,955	1,482
기타	16,409	13,443	19,141	11,247	10,879
전체	624,794	692,183	628,900	617,394	532,123

[표 IV-5]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3.5	9.7	△6.9	11.5	△11.4
광업	△24.9	47.2	21.5	10.3	△41.6
도소매업	△3.8	9.5	△14.8	△19.8	△16.6
부동산업	2.0	74.1	△31.3	8.0	△4.2
정보통신업	6.1	46.5	15.6	△11.2	△7.3
건설업	△27.0	△33.9	33.0	29.4	△17.3
전기가스공급업	△69.6	498.6	△78.7	117.9	△3.9
전문과학기술업	△6.9	16.6	6.8	17.9	△9.8
숙박음식점업	20.5	9.9	△7.5	59.3	△71.2
기타	△17.2	△18.1	42.4	△41.2	35.1
전체	△5.1	10.8	△9.1	△1.8	△13.8

지역별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매출 비중이 50%를 전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매출 비중은 2018년 18.3%에서 2019년 24.5%, 2020년 26.7%로 2년 연속 상승함.

- ◎ 2020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매출 비중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매출 비중 하락으로 아시아 매출 비중은 49.2%로 전년(50.3%)대비 하락함.

2020년 지역별 매출은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투자 지역에서 모두 감소하였음.

[표 IV-6] 지역별 매출액 추이¹⁶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시아	335,389	374,652	350,753	310,679	261,898
북미	146,984	150,666	115,139	151,390	141,964
유럽	98,230	112,482	107,808	101,201	91,088
기타	44,192	54,383	55,201	54,124	37,172
전체	624,794	692,183	628,900	617,394	532,123

[표 IV-7] 지역별 매출 증감률 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시아	△5.8	11.7	△6.4	△11.4	△15.7
북미	△3.3	2.5	△23.6	31.5	△6.2
유럽	△5.8	14.5	△4.2	△6.1	△10.0
기타	△4.5	23.1	1.5	△2.0	△31.3
전체	△5.1	10.8	△9.1	△1.8	△13.8

16 기타 지역은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2.7%), 광업(△35.1%), 도소매업(△14.6%) 등 대부분의 업종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전체 현지법인의 평균 매출액 또한 감소세가 지속됨.

- ◎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2017년에는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2018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광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평균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하락세로 전환하였음.
- ◎ 한편, 도소매업의 평균 매출액 규모(2.8억 달러)가 가장 컸으며, 광업(1.2억 달러)과 제조업(1.0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음.

[표 IV-8] 업종별 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114	118	113	110	96
광업	61	100	143	188	122
도소매업	440	508	418	322	275
부동산업	5	7	3	4	3
정보통신업	28	35	42	32	28
건설업	40	29	36	49	43
전기가스공급업	22	109	38	64	56
전문과학기술업	24	25	26	27	20
숙박음식점업	14	17	17	28	21
기타	40	34	50	31	28
전체	131	139	124	115	96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북미 및 유럽의 2020년 평균 매출액이 아시아 대비 각각 2.1배 및 2.6배 수준을 보였음.

- 한편, 중국(△12.0%), 베트남(△7.9%), 싱가포르(△40.2%), 인도네시아(△19.1%), 인도(△2.4%) 등 주요국가 평균 매출액 감소의 영향으로 아시아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16.5%)하였음.

[표 IV-9] 지역별 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시아	105	112	106	85	71
북미	211	202	134	179	148
유럽	244	256	245	206	184
기타	89	117	119	130	85
전체	131	139	124	115	9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11.1%)하였으며,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도 감소(△5.0%)하였음. 특히 대기업은 2017년 평균 매출액이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2018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추세가 이어짐.

- 대기업은 주로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영향으로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은 주로 제조업, 전기가스공급업, 숙박음식점업 영향으로 평균 매출액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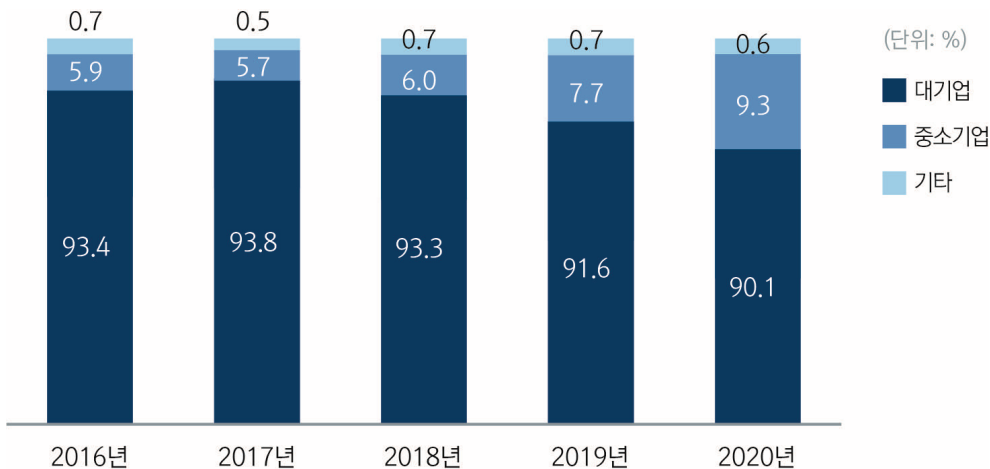
[표 IV-1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기업	225	247	234	208	185
중소기업	20	19	18	20	19
기타	13	10	10	14	11
전체	131	139	124	115	96

- 2020년 대기업의 매출 비중은 2020년 90.1%로 전년(91.6%)대비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매출 비중은 9.3%로 전년(7.7%) 대비 증가하였음.

[그림 IV-2]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비중 추이



(2) 영업이익

평균 영업이익은 2020년 매출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5.5% 감소한 1.8백만 달러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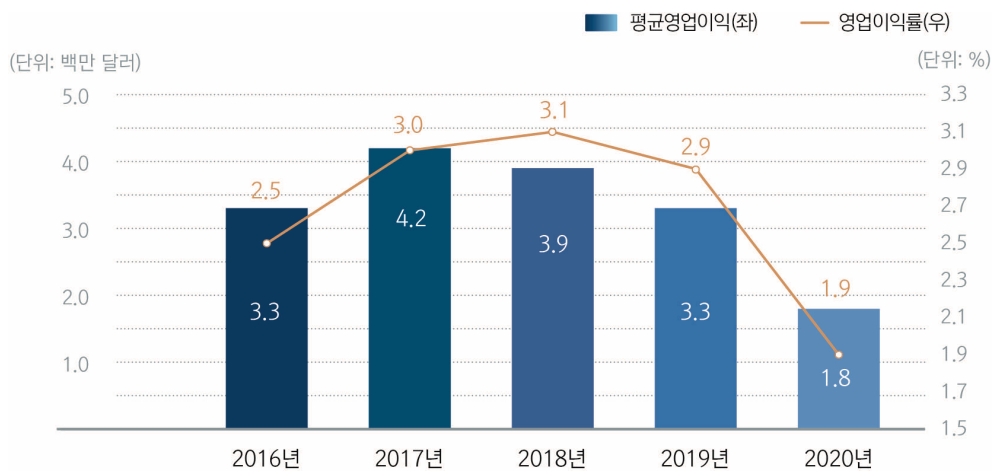
- 평균 영업이익은 2017년 4.2백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0년에는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1.8백만 달러로 감소함.
- 영업이익률은 2019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20년 1.9%를 기록함.
- 한편, 기업간 영업이익 표준편차가 2016년 39백만 달러에서 2020년 51백만 달러로 확대되며 기업간 실적차이가 점차 심화되었음.

[표 IV-11]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15,605	21,082	19,569	17,620	9,940
평균	3.3	4.2	3.9	3.3	1.8
영업이익률	2.5	3.0	3.1	2.9	1.9
표준 편차	39	47	40	50	51
최소값	△524	△627	△269	△698	△2,114
최대값	1,464	1,439	1,007	2,225	1,958

[그림 IV-3]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의 감소세 지속, 광업 영업손실 전환 등에 따라 도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체 현지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감소함.

- ◎ 제조업은 2018년부터 감소 추세를 시현하였으며 2020년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1.8백만 달러를 기록함.
- ◎ 한편, 광업은 호주, 브라질 등에서의 영업실적 호조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영업손실로 전환함.

[표 IV-12]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4,530	4,598	3,827	2,508	1,834
광업	△1,648	24,080	38,776	48,950	△5,678
도소매업	3,515	1,857	4,543	5,814	6,113
부동산업	1,538	1,909	533	1,031	447
정보통신업	△940	△109	△2,155	14	△1,437
건설업	△844	1,151	4,120	△898	4,283
전기가스공급업	4,902	18,204	6,498	8,833	5,561
전문과학기술업	△934	△1,429	△2,619	△3,883	△2,625
숙박음식점업	349	△221	△280	24	△1,191
기타	1,555	1,734	1,599	1,001	1,343
전체	3,260	4,231	3,858	3,268	1,789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주요 업종인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이후 3~4%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 2.3%, 2020년 1.9%로 감소하였고 광업은 2017년 흑자전환 이후 3년 연속 영업이익을 실현했으나 2020년 적자전환함.

- ◎ 주요 업종 중 부동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3.5%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10.0%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됨.

[표 IV-13]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4.0	3.9	3.4	2.3	1.9
광업	△2.7	24.0	27.1	26.0	△4.7
도소매업	0.8	0.4	1.1	1.8	2.2
부동산업	31.1	26.2	19.4	26.0	13.5
정보통신업	△3.3	△0.3	△5.2	0.0	△5.1
건설업	△2.1	4.0	11.5	△1.8	10.0
전기가스공급업	22.5	16.7	17.0	13.8	10.0
전문과학기술업	△3.9	△5.6	△10.3	△14.3	△12.9
숙박음식점업	2.5	△1.3	△1.6	△0.1	△5.8
기타	3.9	5.1	3.2	3.2	4.9
전체	2.5	3.0	3.1	2.9	1.9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평균 영업이익은 유럽, 아시아, 북미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평균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함.

- 아시아의 평균 영업이익은 건설업, 전기가스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주요 업종에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Delta 17.5\%$)하였으며 유럽은 주로 제조업, 광업 실적악화로 평균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Delta 33.1\%$)함. 반면 북미는 도소매업 실적 개선으로 평균 영업이익이 증가(9.4%)함.
- 지역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아시아는 2018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미는 2019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한편, 유럽은 2018년, 2019년 3%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2.4%로 하락하였음.

[표 IV-14]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영업 이익	아시아	3,951	4,228	3,343	2,116	1,746
	북미	1,502	524	2,021	1,256	1,374
	유럽	6,022	7,483	7,281	6,487	4,342
	기타	$\Delta 943$	7,113	7,706	13,610	179
	전체	3,260	4,231	3,858	3,268	1,789
영업 이익률	아시아	3.8	3.8	3.2	2.5	2.4
	북미	0.7	0.3	1.5	0.7	0.9
	유럽	2.5	2.9	3.0	3.1	2.4
	기타	$\Delta 1.1$	6.1	6.4	10.5	0.2
	전체	2.5	3.0	3.1	2.9	1.9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019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음.

-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차이는 2020년 1.2%p로 전년(2.2%p) 대비 축소됨.
- ◎ 2020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0.8%) 관련 전기가스공급업(16.5%), 부동산업(17.6%), 제조업(1.3%) 등에서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전문과학기술업(△49.1%), 숙박음식점업(△7.8%), 정보통신업(△6.8%) 등의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함.

[표 IV-15]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영업 이익	대기업	5,636	7,718	7,646	6,491	3,723
	중소기업	392	357	65	189	149
	기타	849	160	631	△1,766	△376
	전체	3,260	4,231	3,858	3,268	1,789
영업 이익률	대기업	2.5	3.1	3.3	3.1	2.0
	중소기업	2.0	1.8	0.4	0.9	0.8
	기타	6.6	1.5	6.4	△12.3	△3.5
	전체	2.5	3.0	3.1	2.9	1.9

(3) 당기순이익

2020년 중 광업의 대규모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라 평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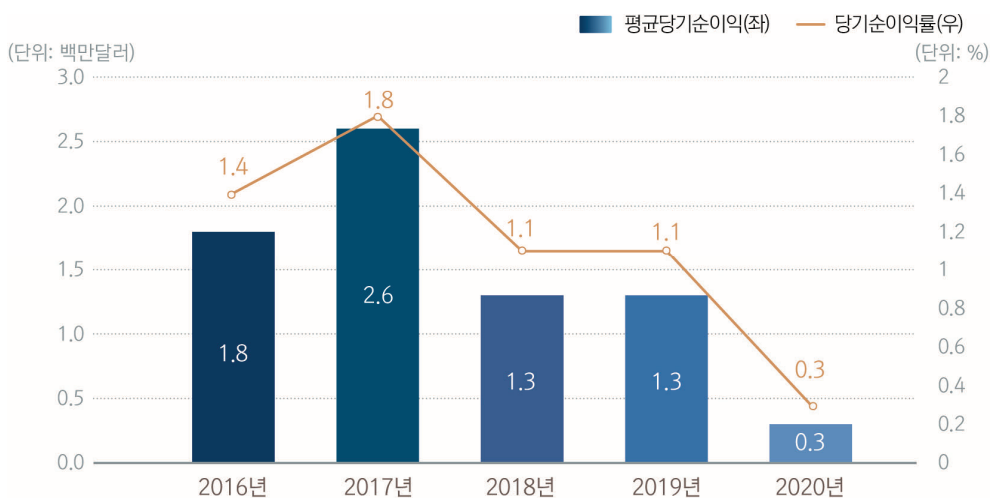
- ◎ 2020년 당기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1.0%p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음.

[표 IV-16]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8,555	12,774	6,763	6,952	1,430
평균	1.8	2.6	1.3	1.3	0.3
당기순이익률	1.4	1.8	1.1	1.1	0.3
표준편차	43	51	47	45	51
최소값	△544	△1,234	△1,382	△943	△2,314
최대값	1,187	1,296	1,355	1,479	1,432

[그림 IV-4]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0년 제조업은 자동차 부문의 평균 당기순이익 감소(△3.3백만 달러) 등의 영향으로 전년(1.2백만 달러) 대비 감소(△41.7%)한 0.7백만 달러를 시현하였고, 특히 광업의 대규모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라 전체 평균 당기순이익(0.3백만 달러)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도소매업은 2020년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의 호조로 전년 대비 감소폭이 타 업종에 비해 제한적이었음. 건설업은 흑자로 전환하여 2.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기가스공급업은 전년 대비 흑자폭이 확대되어 1.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IV-17] 업종별 평균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3,561	3,628	1,904	1,202	701
광업	△19,792	△4,725	631	7,590	△33,067
도소매업	3,146	2,936	4,386	6,110	5,591
부동산업	599	822	△948	659	475
정보통신업	△1,263	△1,441	△3,110	△1,340	△4,345
건설업	△4,174	△936	2,733	△5,005	2,215
전기가스공급업	3,751	12,567	△3,522	662	1,866
전문과학기술업	1,356	△1,388	△3,318	△4,257	△2,393
숙박음식점업	△60	△985	△1,628	△2,574	△3,383
기타	171	679	195	△197	250
전체	1,787	2,564	1,333	1,290	257

업종별 당기순이익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광업, 정보통신업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가스공급업은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상승함.

[표 IV-18] 업종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3.1	3.1	1.7	1.1	0.7
광업	△32.6	△4.7	0.4	4.0	△27.2
도소매업	0.7	0.6	1.0	1.9	2.0
부동산업	12.1	11.3	△34.6	16.6	14.3
정보통신업	△4.4	△4.1	△7.5	△4.2	△15.5
건설업	△10.4	△3.2	7.7	△10.3	5.2
전기가스공급업	17.3	11.5	△9.2	1.0	3.4
전문과학기술업	5.6	△5.5	△13.0	△15.7	△11.7
숙박음식점업	△0.4	△5.9	△9.6	△9.3	△16.4
기타	0.4	2.0	0.4	△0.6	0.9
전체	1.4	1.8	1.1	1.1	0.3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북미는 전년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유럽은 흑자 폭이 감소했음.
 기타지역은 중동을 제외한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년(3.3백만 달러) 대비 9.9백만 달러 감소, 적자전환하였음.

- 한편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아시아(1.5%)는 전년 대비 상승(0.1%p)하였으나 그 외 주요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하였음.
- 기타지역의 경우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지역의 당기순이익률이 하락,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당기 순이익률($\Delta 106.4\%$)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 2.5%에서 $\Delta 7.7\%$ 로 크게 하락하였음.

[표 IV-19]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당기 순이익	아시아	3,002	3,294	2,065	1,168	1,084
	북미	$\Delta 289$	$\Delta 432$	$\Delta 1,953$	$\Delta 666$	$\Delta 1,051$
	유럽	4,724	6,011	3,475	3,847	2,701
	기타	$\Delta 5,469$	$\Delta 1,117$	154	3,309	$\Delta 6,546$
	전체	1,787	2,564	1,333	1,290	257
당기 순이익률	아시아	2.9	2.9	1.9	1.4	1.5
	북미	$\Delta 0.1$	$\Delta 0.2$	$\Delta 1.5$	$\Delta 0.4$	$\Delta 0.7$
	유럽	1.9	2.3	1.4	1.9	1.5
	기타	$\Delta 6.2$	$\Delta 1.0$	0.1	2.5	$\Delta 7.7$
	전체	1.4	1.8	1.1	1.1	0.3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2.2백만 달러)한 0.7백만 달러를 시현함. 중소기업은 2016년부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적자전환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 대부분의 분석기간 중 대기업의 당기순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나, 2016년에는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률(3.2%)이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대기업(1.3%)보다 높았음.

[표 IV-2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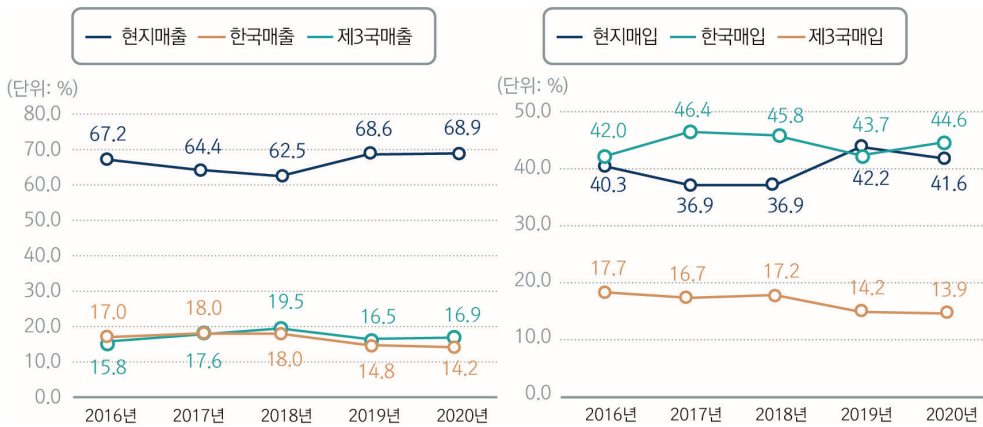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당기 순이익	대기업	2,930	4,824	3,058	2,943	746
	중소기업	628	106	△481	△230	△103
	기타	△665	△411	303	△1,792	△741
	전체	1,787	2,564	1,333	1,290	257
당기 순이익률	대기업	1.3	2.0	1.3	1.4	0.4
	중소기업	3.2	0.5	△2.7	△1.1	△0.6
	기타	△5.2	△4.0	3.1	△12.4	△6.9
	전체	1.4	1.8	1.1	1.1	0.3

나. 매출입

(1) 매출입 비중

2020년 현지매출 비중이 68.9%를 차지하여 한국수출 16.9%, 제3국수출 14.2% 대비 진출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중심의 영업방식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매입의 경우에는 현지매입(41.6%)과 한국수입(44.6%)이 비교적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IV-5] 매출입 비중 추이



(2) 업종별 매출입

제조업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중국 자동차업의 현지매출 감소와 전자제품의 한국수출 증가 등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50%대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에는 60%대를 회복하였으며 2020년에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의 현지매출에 힘입어 현지매출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음.

- 매출액 규모가 큰 도소매업 또한 매출액 비중이 높은 독일, 홍콩 등의 현지매출 비중이 상승하면서 도소매업 전체 현지매출 비중이 상승했으며, 전체 업종 현지매출 비중은 전년 68.6%에서 0.3%p 상승한 68.9%를 시현함.

[표 IV-21] 주요 업종별 매출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현지매출	60.9	56.7	56.3	62.6	63.1
	한국수출	23.9	26.5	26.4	22.6	23.4
	제3국수출	15.2	16.8	17.3	14.7	13.4
광업	현지매출	70.5	74.3	76.4	82.3	80.5
	한국수출	17.9	13.0	13.3	11.4	10.1
	제3국수출	11.6	12.7	10.3	6.3	9.4
도소매업	현지매출	73.5	70.8	67.4	77.2	78.7
	한국수출	6.8	8.2	12.3	7.1	5.8
	제3국수출	19.7	21.1	20.3	15.7	15.5

제조업과 광업은 상대적으로 현지매입 비중이 높으며 도소매업은 한국수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한편, 자동차(60.6%), 화학(59.3%), 전기장비(36.8%) 부문 현지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제조업 현지매입 비중은 전년 대비 2.3%p 하락하였음.

[표 IV-22] 주요 업종별 매입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현지매입	51.1	46.6	45.2	51.1	48.8
	한국수입	33.5	38.5	40.4	36.3	39.0
	제3국수입	15.4	14.9	14.4	12.6	12.1
광업	현지매입	91.1	90.1	88.1	96.6	91.1
	한국수입	8.7	9.5	11.6	0.6	7.5
	제3국수입	0.2	0.4	0.3	2.8	1.3
도소매업	현지매입	25.0	21.7	23.5	27.4	23.4
	한국수입	53.6	58.1	54.3	55.9	59.8
	제3국수입	21.4	20.2	22.2	16.8	16.8

(3) 지역별 매출입

아시아는 현지매출 비중이 타 지역 대비 낮고 한국수출 비중이 높음. 특히 아시아 제조업 중 전자부품과 신발 부문의 한국수출 비중은 각각 62.8%, 68.9%에 달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이 한국 모기업의 생산 및 임가공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북미의 현지매출 비중이 타 지역 대비 높고, 한국수출 비중이 낮은 것은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표 IV-23] 지역별 매출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시아	현지매출	58.5	55.1	52.2	57.3	58.6
	한국수출	27.4	30.2	32.2	29.2	30.7
	제3국수출	14.0	14.7	15.5	13.5	10.7
북미	현지매출	88.5	85.0	81.4	86.8	84.7
	한국수출	1.5	1.7	2.9	3.0	2.5
	제3국수출	10.0	13.3	15.7	10.2	12.8
유럽	현지매출	59.1	61.3	76.3	71.4	72.2
	한국수출	2.5	2.9	3.1	3.9	4.6
	제3국수출	38.4	35.8	28.2	24.7	23.2
기타	현지매출	79.6	77.9	76.3	77.4	73.3
	한국수출	5.0	5.4	5.2	5.8	4.8
	제3국수출	15.4	16.7	18.5	16.8	22.0

북미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아 전통적으로 한국수입 비중이 현지매입 비중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북미의 한국수입 비중은 2018년, 2019년 2년 연속 하락했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8%p 상승함.

- 아시아 지역은 2018년 한국수입 비중이 42.6%로 현지매입 비중을 상회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 및 제3국수입 비중에 비해 현지매입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 중국의 경우 2020년 현지매입 비중이 62.2%로 현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으나,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한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아 현지에서의 공급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 IV-24] 지역별 매입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시아	현지매입	48.4	44.1	41.5	50.7	50.8
	한국수입	36.3	41.1	42.6	36.2	36.4
	제3국수입	15.3	14.8	15.9	13.1	12.7
북미	현지매입	31.3	26.8	27.8	32.0	27.4
	한국수입	60.8	68.0	67.1	64.1	67.9
	제3국수입	7.9	5.2	5.1	3.9	4.6
유럽	현지매입	29.2	30.6	34.1	41.2	36.6
	한국수입	32.1	33.6	34.1	27.1	31.7
	제3국수입	38.7	35.8	31.9	31.7	31.7
기타	현지매입	35.6	28.9	32.1	42.1	47.6
	한국수입	44.0	49.5	45.9	42.6	41.6
	제3국수입	20.4	21.6	22.0	15.3	10.8

(4) 수출입 유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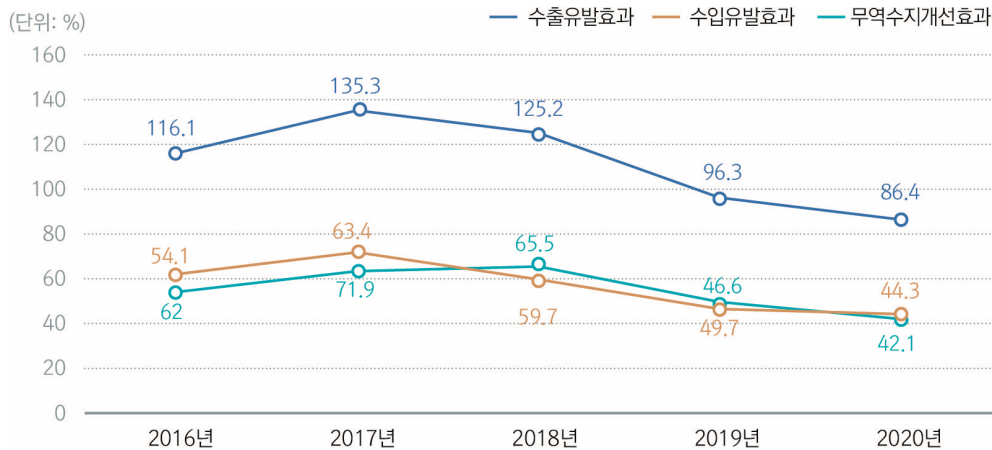
2020년 투자잔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광업 및 도소매업에서 투자잔액이 각각 25.3억 달러, 17.4억 달러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순수출액은 2018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2018년 이후 감소 추세임.

[표 IV-25] 수출입 유발효과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투자잔액	182,619	192,189	187,063	205,727	213,387
수출액	212,034	260,002	234,248	198,159	184,275
수입액	98,883	121,895	122,599	102,168	89,833
순수출	113,151	138,107	111,649	95,991	94,442
수출 유발효과	116.1	135.3	125.2	96.3	86.4
수입 유발효과	54.1	63.4	65.5	49.7	42.1
무역수지 개선효과	62.0	71.9	59.7	46.6	44.3

[그림 IV-6] 수출입 유발효과 추이



다. 재무현황

(1)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2020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저조한 수익성 등으로 이자보상배율 지표는 악화되었음.

[표 IV-26]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 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채비율	현지법인	166.3	152.0	128.0	144.3	141.7
	국내기업	121.2	114.1	111.1	115.7	118.3
차입금 의존도	현지법인	30.4	27.0	22.8	27.1	25.3
	국내기업	29.8	28.8	28.8	29.5	30.4
유동비율	현지법인	134.9	133.8	130.5	135.8	142.6
	국내기업	131.6	134.0	138.5	140.4	141.1
이자보상 배율	현지법인	2.8	4.1	3.8	2.5	1.8
	국내기업	4.4	5.4	4.7	3.3	3.3

한편 2020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에서는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은 국내기업이 현지법인 대비 양호했으나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은 현지법인이 국내기업 대비 양호했음.

[그림 IV-7]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2) 부채비율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한 주요업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음. 특히 건설업은 2017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18년 이후 부채비율이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IV-27] 업종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134.4	122.7	113.3	142.5	152.3
광업	123.2	122.9	127.1	149.8	117.7
도소매업	252.2	222.5	158.8	132.5	132.9
부동산업	109.9	124.9	113.3	126.1	105.5
정보통신업	79.3	84.6	105.7	125.4	73.9
건설업	자본잠식	자본잠식	1,465.6	961.5	684.1
전기가스공급업	99.9	143.6	111.0	205.2	174.1
전문과학기술업	228.3	162.2	52.5	69.3	52.5
숙박음식점업	110.7	127.6	148.1	140.8	109.7
기타	294.0	298.4	177.7	145.9	152.3
전체	166.3	152.0	128.0	144.3	141.7

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부채비율이 하락, 아시아 지역은 주요 지역중 가장 낮은 수준(113.0%)을 기록함. 아시아를 비롯하여 북미, 유럽 등 주요 지역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표 IV-28] 지역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시아	131.6	124.7	114.8	116.6	113.0
북미	196.2	176.3	122.8	189.0	171.5
유럽	199.4	177.2	142.4	155.0	151.5
기타	261.9	226.8	197.1	186.3	252.4
전체	166.3	152.0	128.0	144.3	141.7

기업규모별로는 부채비율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함.

[표 IV-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기업	167.6	154.8	128.1	146.5	145.9
중소기업	142.5	118.6	137.2	143.9	128.5
기타	203.7	178.8	95.2	66.4	55.6
전체	166.3	152.0	128.0	144.3	141.7

(3) 차입금의존도

주요 업종 중 도소매업(5.9%)의 차입금의존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건설업(55.2%)의 경우 2018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으나 5년 연속으로 주요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였음.

- 한편, 모든 주요 업종에서 차입금의존도가 감소하면서 전체 차입금의존도는 전년 대비 1.8%p 감소하였음.

[표 IV-30] 업종별 차입금의존도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23.7	22.5	22.9	28.8	28.6
광업	39.6	39.3	38.9	36.7	29.5
도소매업	32.4	23.4	5.9	6.4	5.9
부동산업	41.0	41.6	41.7	46.3	41.3
정보통신업	13.6	17.7	23.3	22.0	15.0
건설업	68.1	72.9	58.8	56.0	55.2
전기가스공급업	42.5	44.2	45.3	49.6	39.2
전문과학기술업	4.1	4.4	12.1	15.9	11.5
숙박음식점업	39.2	43.9	44.8	43.8	37.3
기타	52.6	50.2	35.5	32.1	31.7
전체	30.4	27.0	22.8	27.1	25.3

지역별로는,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차입금의존도가 감소하였음.

[표 IV-31]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시아	25.0	22.0	21.0	22.1	20.7
북미	36.4	34.8	21.4	32.1	28.8
유럽	21.6	16.8	17.8	23.1	24.0
기타	47.3	44.3	39.0	40.2	40.1
전체	30.4	27.0	22.8	27.1	25.3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차입금의존도는 모두 감소하였음.

[표 IV-32]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기업	30.3	27.0	22.4	27.1	25.4
중소기업	26.5	22.8	25.2	27.8	25.6
기타	48.6	49.3	32.5	20.5	16.1
전체	30.4	27.0	22.8	27.1	25.3

(4)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2020년 유동비율은 142.6%를 기록하며 안정성 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음.
부동산업 외 모든 주요 업종에서 유동비율은 상승하였음.

[표 IV-33] 업종별 유동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122.9	129.1	136.3	142.8	145.7
광업	99.8	106.6	127.1	95.3	137.0
도소매업	162.0	149.8	124.0	133.3	139.1
부동산업	157.0	158.3	108.8	130.8	105.0
정보통신업	174.0	149.8	184.9	141.1	144.3
건설업	75.9	78.7	104.4	94.2	115.1
전기가스공급업	108.1	101.8	91.0	112.6	148.1
전문과학기술업	118.5	116.0	157.2	157.9	220.9
숙박음식점업	119.4	88.1	151.8	63.5	110.1
기타	113.1	111.8	106.5	122.2	126.2
전체	134.9	133.8	130.5	135.8	142.6

2020년 이자보상배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1.8배를 기록함. 도소매업, 건설업을 제외한 주요 업종에서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했으며 광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숙박음식점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4]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추이

(단위: 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5.3	6.6	4.6	2.7	2.4
광업	영업적자	3.3	4.8	3.2	영업적자
도소매업	4.5	2.5	5.5	6.3	7.6
부동산업	1.0	1.4	0.6	1.0	0.4
정보통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0.0	영업적자
건설업	영업적자	0.6	2.4	영업적자	1.6
전기가스공급업	1.7	5.2	1.9	1.4	1.0
전문과학기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숙박음식점업	2.4	영업적자	영업적자	0.0	영업적자
기타	1.2	1.5	2.0	1.4	2.4
전체	2.8	4.1	3.8	2.5	1.8

라. 투자수익

(1) 투자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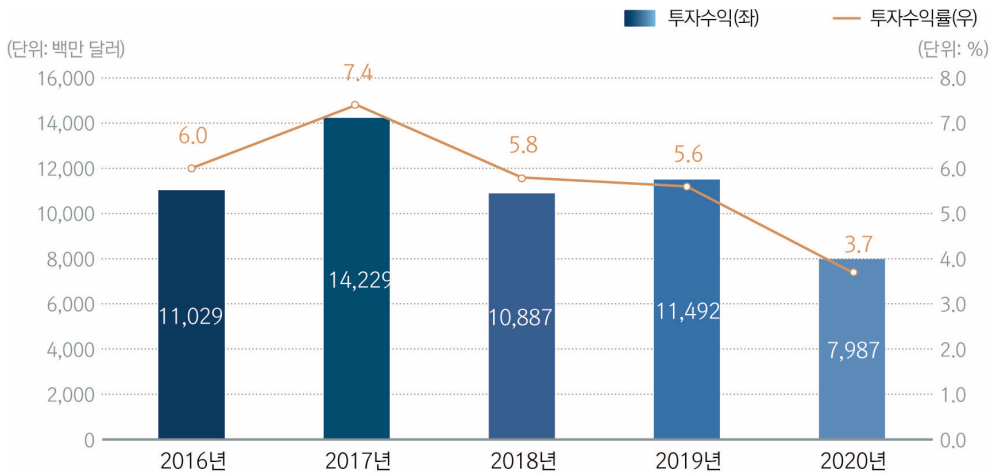
투자잔액 비중이 높은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등의 투자수익이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9%p 감소한 3.7%의 투자수익률을 시현함.

[표 IV-35]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투자수익률(A/B)	6.0	7.4	5.8	5.6	3.7
투자수익(A)	11,029	14,229	10,887	11,492	7,987
투자자순이익	7,512	10,111	6,892	7,021	4,225
대부이자	442	388	519	553	416
로열티	3,075	3,730	3,476	3,918	3,345
투자잔액(B)	182,619	192,189	187,063	205,727	213,387

[그림 IV-8] 투자수익률 추이



(2) 투자자순이익

제조업의 투자자순이익은 2018년 하락세로 전환 이후 2020년에도 전년 대비 22.1% 감소하였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투자자순이익 합계는 74억 달러로 전체 투자자순이익 42억 달러의 175%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대부분의 투자자 순이익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기인함.

- ◎ 2020년 부동산업, 건설업 및 전기가스공급업의 투자자순이익은 개선되었으나, 그 외 업종의 투자자순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표 IV-36] 업종별 투자자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8,284	9,905	5,094	4,882	3,803
광업	△2,392	△1,638	△212	△872	△2,734
도소매업	1,700	1,588	2,524	3,711	3,592
부동산업	136	162	△414	218	249
정보통신업	9	△49	△314	△83	△616
건설업	△543	△108	190	△613	212
전기가스공급업	116	251	183	70	176
전문과학기술업	294	△14	△118	△13	△122
숙박음식점업	△26	△93	△129	△194	△229
기타	△65	107	88	△84	△105
전체	7,512	10,111	6,892	7,021	4,225

(3) 로열티

2016년 이후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장비 등 제조업 부문의 견조한 로열티 수입으로 약 30억 달러대에서 증감을 시현하는 가운데 2020년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6% 감소하였음.

- 제조업 부문의 로열티 비중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자동차와 전기 전자 제조업 부문 로열티 수입이 각각 16.5억 달러, 9.0억 달러로 전체 로열티의 76.2%를 차지하였음.

[표 IV-37] 업종별 로열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2,866	3,483	3,190	3,662	3,150
광업	9	42	-	-	13
도소매업	104	108	67	74	45
부동산업	1	3	1	2	1
정보통신업	27	57	66	104	106
건설업	3	3	105	4	4
전기가스공급업	21	3	3	29	-
전문과학기술업	3	1	2	1	3
숙박음식점업	4	6	5	8	4
기타	37	24	37	34	19
전체	3,075	3,730	3,476	3,918	3,345

(4) 배당금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은 2016년 이후 약 40억 달러 규모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기가스공급업, 전문과학기술업,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한 주요 업종에서의 배당금 감소로 23억 달러를 시현함.

- ◎ 특히, 제조업 및 광업은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각각 △55.6%, △72.3%)하였음.

[표 IV-38] 업종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2,842	2,811	2,610	2,573	1,142
광업	182	311	260	578	160
도소매업	373	324	300	117	111
부동산업	221	246	471	630	588
정보통신업	8	10	12	18	14
건설업	61	46	55	29	17
전기가스공급업	31	157	94	93	113
전문과학기술업	16	22	24	13	41
숙박음식점업	11	14	8	5	8
기타	179	113	80	84	83
전체	3,924	4,053	3,916	4,143	2,277

V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1 분석 목적

제조업은 2020년도 경영분석대상 5,556개사, 투자잔액 2,134억 달러 기준 투자잔액의 46.6%, 현지법인 수의 61.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도소매업의 경우 국내 모기업의 수출입 대행, 광업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성격이 강하여 투자 동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이 제조업과는 다르며, 투자수익 및 수출입 유발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

2 분석범위

이하에서는 제1부의 분석 대상인 202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대상 5,556개사 중 제조업 현지법인 3,391개사를 대상으로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 세부 업종의 경우에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상품 분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전기전자 산업에 속해있는 현지법인이 전자부품이 아닌 다른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모두 전자부품으로 집계됨.
- 또한, 현지법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최종 완성품이 속한 산업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전기장비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의 경우 전자부품으로 분류됨.
- 또한, 분석 대상이 투자잔액 2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복 등 투자 규모가 작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경우 1차 금속, 자동차 등 설비 산업에 비해 대표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과 비교 분석

- 현지법인은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계회사이므로 내부 거래, 이전 가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매출, 이익 등 현지법인 경영성과 지표는 일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분석대상 제조업 현지법인의 현황 및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전기전자 제조업이 투자잔액 기준 2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은 20.7%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지역별로는 주요 제조업종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현지법인수와 투자잔액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V-1] 제조업 세부업종별 현지법인 현황¹⁷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평균 투자잔액
	분석대상	비중	분석대상	비중	
전기전자	524	15.5	23,896	24.0	46
자동차	666	19.6	20,568	20.7	31
화학	293	8.6	9,751	9.8	33
1차금속	173	5.1	9,523	9.6	55
전기장비	195	5.8	7,538	7.6	39
기타기계	224	6.6	4,340	4.4	19
식료품	101	3.0	4,243	4.3	42
고무/플라스틱	178	5.2	2,874	2.9	16
의복	232	6.8	2,639	2.7	11
기타운송장비	29	0.9	2,308	2.3	80
기타	776	22.9	11,772	11.9	15
전체	3,391	100.0	99,454	100.0	29

17 기타에는 섬유, 금속제품, 기타제품, 신발, 기타 제조업 등이 포함됨.

[표 V-2]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현지법인수 현황

(단위: 개)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444	45	26	9
자동차	446	58	92	70
화학	239	30	18	6
1차금속	134	12	13	14
전기장비	160	17	12	6
기타기계	175	24	13	12
식료품	70	16	9	6
고무/플라스틱	141	10	15	12
의복	207	6	4	15
기타운송장비	20	2	1	6
기타	608	101	34	33
전체	2,644	321	237	189

[표 V-3]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투자잔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20,895	1,884	809	309
자동차	10,412	3,376	3,811	2,969
화학	6,579	2,461	575	137
1차금속	5,810	1,247	187	2,279
전기장비	4,991	1,042	1,447	59
기타기계	2,419	794	512	616
식료품	2,621	1,310	114	198
고무/플라스틱	2,026	99	650	101
의복	1,996	79	300	264
기타운송장비	1,705	323	14	266
기타	8,397	1,895	795	685
전체	67,850	14,509	9,213	7,881

3 2020년 경영성과

가. 매출액

전기전자와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27.1%, 33.9%로,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61.0%를 차지

- 두 업종의 법인수 비중(35.1%)에 비하여 투자잔액 비중(44.7%)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 제조업종대비 해외 생산 및 판매가 활발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중후장대형 제조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식료품, 의복 등 시장진입장벽 혹은 기술차별화 정도의 차이가 낮은 업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매출액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식료품과 의복의 경우 투자잔액 2백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 조사 대상에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표 V-4]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매출액	비 중
전기전자	88,578	27.1
자동차	110,492	33.9
화학	21,162	6.5
1차금속	22,273	6.8
전기장비	26,340	8.1
기타기계	9,914	3.0
식료품	5,570	1.7
고무/플라스틱	5,003	1.5
의복	5,053	1.5
기타운송장비	1,446	0.4
기타	30,473	9.3
전체	326,305	100.0

전기전자는 아시아 매출 비중이 각각 7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아시아, 북미, 유럽 매출 비중이 각각 35.6%, 33.3%, 22.1%로 나타남.

-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의 해외동반 진출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음.
- 그 외에도 화학, 1차금속, 전기장비, 기타기계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아시아의 매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V-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64,145	12,600	9,300	2,534
자동차	39,295	36,806	24,407	9,984
화학	17,812	2,027	922	401
1차금속	16,272	2,132	775	3,095
전기장비	21,418	554	3,875	494
기타기계	7,124	1,629	589	571
식료품	3,531	1,223	196	620
고무/플라스틱	3,736	453	634	180
의복	3,652	156	898	348
기타운송장비	963	171	5	307
기타	23,086	3,574	2,870	941
전체	201,035	61,325	44,470	19,475

나. 수익성

전기전자와 전기장비가 2020년 제조업 현지법인 영업이익의 65.9%를 차지함.

- 전기전자의 영업이익은 제조업 현지법인 중 가장 많은 수준인 27.7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3.1%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장비의 영업이익은 13.3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5.1%를 기록함.
- 한편, 제조업 전체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1.9%를 기록하며, 국내 제조업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4.6%)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
- 제조업 현지법인들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여 생산효율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장비,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국내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V-6]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		국내기업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전기전자	2,766	3.1	8.4
자동차	△454	△0.4	1.8
화학	877	4.1	6.4
1차금속	240	1.1	3.1
전기장비	1,333	5.1	3.2
기타기계	464	4.7	5.3
식료품	479	8.6	4.0
고무/플라스틱	174	3.5	4.8
의복	△20	△0.4	2.8
기타운송장비	△239	△16.5	△0.9
기타	600	2.0	4.3
전체	6,219	1.9	4.6

영업이익 규모는 아시아가 가장 컸으며, 이어 유럽, 기타지역 순으로 나타남.

- 아시아에서는 전기전자(23.0억 달러), 전기장비(12.1억 달러)의 영업이익 규모가 타 업종 대비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유럽은 자동차(7.0억 달러), 전기전자(3.0억 달러)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북미는 식료품 업종의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컸으며, 자동차, 화학, 전기장비, 의복은 영업손실을 시현함.

[표 V-7]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2,298	0	301	167
자동차	△1,057	△112	699	15
화학	787	△2	28	63
1차금속	119	36	12	72
전기장비	1,214	△82	193	9
기타기계	387	44	1	32
식료품	311	117	6	45
고무/플라스틱	187	16	△26	△3
의복	△76	△5	62	△2
기타운송장비	△38	6	△3	△204
기타	707	△107	96	△95
전체	4,840	△89	1,370	99

제조업의 지역별 영업이익률은 유럽 3.1%, 아시아 2.4%, 북미 △0.1%을 기록

- ◎ 전기전자는 아시아 3.6%, 유럽 3.2%, 북미 0.0% 순이며, 자동차는 유럽 2.9%, 북미 △0.3%, 아시아 △2.7% 순으로 나타남.
- ◎ 유럽 지역은 전기장비, 식료품, 전기전자 영업이익률이 각각 5.0%, 3.3%, 3.2%를 시현하면서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표 V-8]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3.6	0.0	3.2	6.6
자동차	△2.7	△0.3	2.9	0.2
화학	4.4	△0.1	3.1	15.8
1차금속	0.7	1.7	1.6	2.3
전기장비	5.7	△14.9	5.0	1.7
기타기계	5.4	2.7	0.2	5.7
식료품	8.8	9.6	3.3	7.2
고무/플라스틱	5.0	3.5	△4.1	△1.9
의복	△2.1	△3.1	6.9	△0.5
기타운송장비	△3.9	3.6	△74.7	△66.5
기타	3.1	△3.0	3.3	△10.1
전체	2.4	△0.1	3.1	0.5

당기순이익은 전기전자와 전기장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전기전자의 당기순이익은 제조업 현지법인 중 가장 많은 수준인 28.2억 달러, 당기순이익률은 3.2%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장비는 당기순이익 8.5억 달러, 당기순이익률 3.2%를 시현함.
-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0.7%)이 국내기업의 제조업 평균 당기순이익률(3.5%)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2020년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업종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국내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전기장비, 식료품의 경우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모두 현지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전기전자의 경우, 국내기업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현지법인 이익률과의 격차는 5.3%p, 3.6%p로 확대되었음.
- 기타 세부 업종별, 지역별 특성은 손익 구조상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1차금속의 경우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시현했음.

[표 V-9]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		국내기업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전기전자	2,824	3.2	6.8
자동차	△1,496	△1.4	0.9
화학	392	1.9	5.7
1차금속	△619	△2.8	1.3
전기장비	847	3.2	2.9
기타기계	134	1.4	3.9
식료품	308	5.5	3.0
고무/플라스틱	68	1.4	3.2
의복	△72	△1.4	1.1
기타운송장비	△196	△3.5	0.6
기타	187	0.6	3.7
전체	2,377	0.7	3.5

[표 V-10]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2,393	△41	254	217
자동차	△1,501	△56	343	△282
화학	483	△157	18	48
1차금속	△118	19	△1	△519
전기장비	862	△146	127	4
기타기계	237	20	△126	3
식료품	210	73	△3	27
고무/플라스틱	123	13	△59	△9
의복	△116	△4	50	△2
기타운송장비	76	4	△14	△262
기타	445	△193	49	△114
전체	3,096	△467	637	△889

[표 V-11]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3.7	△0.3	2.7	8.6
자동차	△3.8	△0.2	1.4	△2.8
화학	2.7	△7.7	1.9	12.0
1차금속	△0.7	0.9	△0.1	△16.8
전기장비	4.0	△26.4	3.3	0.8
기타기계	3.3	1.3	△21.3	0.5
식료품	6.0	6.0	△1.4	4.3
고무/플라스틱	3.3	2.8	△9.2	△5.0
의복	△3.2	△2.7	5.5	△0.5
기타운송장비	7.9	2.4	△310.1	△85.2
기타	1.9	△5.4	1.7	△12.2
전체	1.5	△0.8	1.4	△4.6

다. 매출입

제조업 전반적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기전자, 의복, 기타운송장비는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수출 비중이 49.2%로 현지매출 비중(36.2%)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의 경우는 현지매출(85.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화학, 1차금속, 전기장비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현지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의복, 기타 운송장비는 한국수출 비중이 각각 46.1%, 52.1%로 현지매출 비중(각각 37.0%, 40.1%)보다 높았음.

[표 V-12]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금액			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전기전자	32,058	43,591	12,929	36.2	49.2	14.6
자동차	94,055	2,974	13,464	85.1	2.7	12.2
화학	17,268	833	3,061	81.6	3.9	14.5
1차금속	18,655	1,060	2,559	83.8	4.8	11.5
전기장비	11,320	10,921	4,099	43.0	41.5	15.6
기타기계	7,295	1,935	684	73.6	19.5	6.9
식료품	3,788	834	948	68.0	15.0	17.0
고무/플라스틱	3,507	506	990	70.1	10.1	19.8
의복	1,872	2,328	853	37.0	46.1	16.9
기타운송장비	580	753	113	40.1	52.1	7.8
기타	15,530	10,761	4,182	51.0	35.3	13.7
전체	205,929	76,495	43,880	63.1	23.4	13.4

제조업의 매입구조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39.0%로, 매출(23.4%)에 비해 한국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지매입 비중은 48.8%로 한국수입(39.0%) 및 제3국수입(12.1%)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수입 비중이 54.3%로 타 업종 대비 가장 높았으며, 매출입 모두에서 한국과의 거래가 매우 활발한 업종임을 알 수 있음.
- 자동차의 경우 현지매입 비중이 60.6%로 높지만 현지매출 비중 85.1%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한국수입 비중은 34.2%로 매출에서의 한국 거래 비중(2.7%)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수출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 식료품의 경우 매출(68.0%)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입도 현지 거래 비중이 68.2%로 높게 나타나 생산과 판매의 현지화가 가장 활발한 업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의복의 경우 한국수입 비중이 7.2%로 한국수출 비중(46.1%)보다 크게 낮아 수입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표 V-13]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 비중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금액			비중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전기전자	22,548	38,380	9,776	31.9	54.3	13.8
자동차	53,074	29,962	4,557	60.6	34.2	5.2
화학	9,411	3,712	2,747	59.3	23.4	17.3
1차금속	7,437	5,625	1,732	50.3	38.0	11.7
전기장비	8,229	9,216	4,933	36.8	41.2	22.0
기타기계	4,473	3,055	325	57.0	38.9	4.1
식료품	2,437	337	800	68.2	9.4	22.4
고무/플라스틱	1,595	1,159	214	53.7	39.1	7.2
의복	1,740	233	1,274	53.6	7.2	39.2
기타운송장비	563	364	77	56.0	36.3	7.7
기타	11,160	5,946	4,039	52.8	28.1	19.1
전체	122,668	97,988	30,475	48.8	39.0	12.1

라. 투자수익 및 배당금

제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은 71억 달러로, 7.1%의 투자수익률 기록

- 당기순이익 양상과 마찬가지로, 한국측 지분율을 반영한 투자자순이익 또한 전기전자(29억 달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로열티 수입은 자동차가 전기전자보다 높았으며, 투자수익률은 전기전자가 15.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기장비 14.6%, 식료품 6.5% 순
- 투자자순이익 및 로열티의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이자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음.

[표 V-14]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수익				투자잔액 (B)	투자 수익률 (A/B)
	투자자 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전기전자	2,883	896	22	3,800	23,896	15.9
자동차	△649	1,652	17	1,020	20,568	5.0
화학	422	63	9	493	9,751	5.1
1차금속	△336	31	11	△294	9,523	△3.1
전기장비	851	241	6	1,097	7,538	14.6
기타기계	157	38	4	199	4,340	4.6
식료품	204	70	3	276	4,243	6.5
고무/플라스틱	75	39	5	120	2,874	4.2
의복	△105	1	5	△99	2,639	△3.8
기타운송장비	28	29	2	59	2,308	2.6
기타	275	90	23	388	11,772	3.3
전체	3,803	3,150	107	7,060	99,454	7.1

한편, 제조업 현지법인은 총 11.4억 달러의 배당금을 한국투자자 앞 지급하였으며,
이 중 아시아의 비중이 81.7%를 차지

- ◎ 이는 제조업 현지법인 당기순이익(23.8억 달러)의 48.1% 및 투자자순이익(38.0억 달러)의 30.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제조업이 제조업 전체의 21.4%에 해당하는 2.5억 달러, 화학이 16.5%에 해당하는 1.9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표 V-1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218	2	-	25
자동차	153	2	13	17
화학	181	-	2	6
1차금속	3	8	-	34
전기장비	47	-	60	-
기타기계	68	-	-	14
식료품	17	-	-	-
고무/플라스틱	97	1	3	-
의복	-	-	-	-
기타운송장비	-	-	-	-
기타	149	6	3	13
전체	934	19	80	110

마. 수출입 유발효과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통해 분석된 제조업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액은 980억 달러, 수입은 765억 달러를 기록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의 경우 현지법인 앞 수출액이 384억 달러,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36억 달러로 순수입액이 52억 달러로 나타나, 순수출액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21.8%를 기록함.
- 반면 자동차의 경우 수출액 300억 달러, 수입액 30억 달러로 270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전기전자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화학, 1차금속, 기타기계,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현지법인 앞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컸음.
- 의복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을 통한 수입액이 현지법인 앞 수출액을 21억 달러 초과하여,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타 업종 대비 가장 낮은 수준(△79.4%)을 보임.

[표 V-16]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잔액	수출	수입	순수출	무역수지 개선효과
전기전자	23,896	38,380	43,591	△5,211	△21.8
자동차	20,568	29,962	2,974	26,988	131.2
화학	9,751	3,712	833	2,879	29.5
1차금속	9,523	5,625	1,060	4,565	47.9
전기장비	7,538	9,216	10,921	△1,705	△22.6
기타기계	4,340	3,055	1,935	1,120	25.8
식료품	4,243	337	834	△497	△11.7
고무/플라스틱	2,874	1,159	506	653	22.7
의복	2,639	233	2,328	△2,096	△79.4
기타운송장비	2,308	364	753	△389	△16.8
기타	11,772	5,946	10,761	△4,815	△40.9
전체	99,454	97,988	76,495	21,492	21.6

4 최근 3년 경영성과

가. 매출액 및 매출입구조

최근 3년간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분석결과 2018년에는 전기전자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 2020년에는 자동차 제조업의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기전자는 전년 대비 11.2% 감소한 88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는 전년 대비 12.5% 감소한 1,105억 달러를 기록함.
- 2020년에는 화학, 기타기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매출액이 감소하였음.

[표 V-17]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122,951	99,768	88,578
자동차	81,946	126,321	110,492
화학	19,629	20,499	21,162
1차금속	27,250	26,210	22,273
전기장비	22,529	28,429	26,340
기타기계	7,760	9,907	9,914
식료품	3,893	7,063	5,570
고무/플라스틱	4,318	6,696	5,003
의복	3,919	5,175	5,053
기타운송장비	2,090	1,597	1,446
기타	34,133	36,712	30,473
전체	330,419	368,379	326,305

[표 V-18]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전기전자	△6.0	△18.9	△11.2	△12.0
자동차	△19.5	54.2	△12.5	7.4
화학	9.3	4.4	3.2	5.6
1차금속	15.9	△3.8	△15.0	△1.0
전기장비	△7.4	26.2	△7.3	3.8
기타기계	3.6	27.7	0.1	10.5
식료품	△28.0	81.4	△21.1	10.8
고무/플라스틱	△21.4	55.1	△25.3	2.8
의복	△15.5	32.1	△2.4	4.7
기타운송장비	△39.9	△23.6	△9.5	△24.3
기타	13.4	7.6	△17.0	1.3
전체	△6.9	11.5	△11.4	△2.3

제조업 현지법인의 현지매출 비중(63.1%) 및 한국수출 비중(23.4%)은 전년 대비 상승(각각 0.5%p, 0.8%p)하였으나, 제3국수출(13.4%) 비중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 현지매출 비중이 2018년 56.3%에서 2020년 63.1%로 상승한 반면 한국수출 비중은 26.4%에서 23.4%로 하락함.
- 현지매출 비중의 경우 자동차 부문의 현지매출 비중이 상승(2018년 78.0% → 2020년 85.1%)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자동차의 경우 최근 3년간 현지매출 비중이 78~85%를 보이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대부분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송비, 관세 및 국내 공장의 높은 가동률 등으로 인해 자동차업종의 한국 앞 수출비중은 2% 대로 미미한 수준임.
- 한편, 전기전자, 의복 및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40~50% 대로 다른 업종에 비해 한국수출 비중이 높으며, 현지매출 비중 또한 40~50%대로 판매경로가 한국과 현지시장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임.

매입 구조에서도 제조업 전반적으로 현지에서의 조달 비중이 한국 및 제3국을 통한 조달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 2020년에는 자동차, 화학 등에서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 비중이 확대된 결과 현지매입 비중이 감소하고 한국수입 비중은 증가하였음.
- ◎ 전기전자의 경우 제조업 평균(39.0%)에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나 2020년(54.3%)은 2018년(58.8%) 대비 4.5%p 하락함.
- ◎ 자동차의 경우 2020년 현지매입 비중이 60.6%인데 반해, 한국수입 비중은 34.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소싱의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자동차 산업 관련 한국부품 업체들의 활발한 해외동반진출로 현지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 식료품의 경우 현지매입 비중이 60~8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식료품이 여타 업종 대비 현지화의 정도가 높음을 시사함.

[표 V-19]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현지매출	35.2	6.3	36.2
	한국수출	50.2	51.3	49.2
	제3국수출	14.6	12.4	14.6
자동차	현지매출	78.0	83.1	85.1
	한국수출	2.4	2.1	2.7
	제3국수출	19.6	14.8	12.2
화학	현지매출	75.3	72.8	81.6
	한국수출	3.9	10.0	3.9
	제3국수출	20.8	17.2	14.5
1차금속	현지매출	81.3	82.5	83.8
	한국수출	5.4	6.5	4.8
	제3국수출	13.3	11.0	11.5
전기장비	현지매출	47.8	49.8	43.0
	한국수출	26.6	26.4	41.5
	제3국수출	25.6	23.7	15.6
기타기계	현지매출	66.8	74.0	73.6
	한국수출	26.2	19.5	19.5
	제3국수출	7.1	6.5	6.9
식료품	현지매출	82.8	75.8	68.0
	한국수출	2.8	10.2	15.0
	제3국수출	14.4	13.9	17.0
고무/플라스틱	현지매출	68.4	69.2	70.1
	한국수출	9.6	7.6	10.1
	제3국수출	22.0	23.1	19.8
의복	현지매출	15.4	25.4	37.0
	한국수출	69.3	55.2	46.1
	제3국수출	15.2	19.4	16.9
기타운송장비	현지매출	15.9	42.1	40.1
	한국수출	35.8	54.1	52.1
	제3국수출	48.4	3.8	7.8
기타	현지매출	55.2	53.4	51.0
	한국수출	27.1	31.1	35.3
	제3국수출	17.7	15.6	13.7
전체	현지매출	56.3	62.6	63.1
	한국수출	26.4	22.6	23.4
	제3국수출	17.3	14.7	13.4

[표 V-20]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현지매입	24.4	31.7	31.9
	한국수입	58.8	52.7	54.3
	제3국수입	16.8	15.6	13.8
자동차	현지매입	66.2	62.9	60.6
	한국수입	26.2	30.3	34.2
	제3국수입	7.5	6.8	5.2
화학	현지매입	55.6	64.5	59.3
	한국수입	22.6	18.1	23.4
	제3국수입	21.8	17.5	17.3
1차금속	현지매입	50.3	47.9	50.3
	한국수입	38.0	40.0	38.0
	제3국수입	11.7	12.1	11.7
전기장비	현지매입	31.1	41.6	36.8
	한국수입	45.9	38.3	41.2
	제3국수입	23.0	20.1	22.0
기타기계	현지매입	60.4	55.4	57.0
	한국수입	34.1	39.7	38.9
	제3국수입	5.5	4.9	4.1
식료품	현지매입	76.0	82.4	68.2
	한국수입	8.4	5.9	9.4
	제3국수입	15.6	11.7	22.4
고무/플라스틱	현지매입	50.1	50.8	53.7
	한국수입	36.8	35.0	39.1
	제3국수입	13.1	14.1	7.2
의복	현지매입	76.4	51.2	53.6
	한국수입	7.9	11.4	7.2
	제3국수입	15.7	37.4	39.2
기타운송장비	현지매입	38.5	62.6	56.0
	한국수입	45.2	35.7	36.3
	제3국수입	16.3	1.7	7.7
기타	현지매입	60.1	59.1	52.8
	한국수입	22.6	24.2	28.1
	제3국수입	17.3	16.6	19.1
전체	현지매입	45.2	51.1	48.8
	한국수입	40.4	36.3	39.0
	제3국수입	14.4	12.6	12.1

제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2부
주제별 심층 분석

제3부
부록

제4부
참고자료

나. 수익성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영업이익을 실현

- 전기전자의 경우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가장 큰 제조업종으로 제조업 전체 영업이익의 40~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와 함께 영업이익 비중이 높았던 자동차는 2020년에는 영업 적자를 실현하였음.
- 이외 화학, 1차금속,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식료품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기타운송장비는 최근 3개년 모두 적자를 기록함.

[표 V-21]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5,452	3,590	2,766
자동차	1,436	1,406	△454
화학	1,042	825	877
1차금속	960	136	240
전기장비	613	1,030	1,333
기타기계	268	383	464
식료품	157	253	479
고무/플라스틱	132	302	174
의복	16	90	△20
기타운송장비	△180	△88	△239
기타	1,319	435	600
전체	11,216	8,362	6,219

영업이익률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한 1.9% 기록

◎ 전기전자 부문은 2018년 4.4%에서 2020년 3.1%로 하락하였으며 자동차 부문 또한 2018년 1.8%에서 2020년 △0.4%로 적자전환하였음.

◎ 화학, 1차금속,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식료품은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음.

[표 V-22]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4.4	3.6	3.1
자동차	1.8	1.1	△0.4
화학	5.3	4.0	4.1
1차금속	3.5	0.5	1.1
전기장비	2.7	3.6	5.1
기타기계	3.5	3.9	4.7
식료품	4.0	3.6	8.6
고무/플라스틱	3.0	4.5	3.5
의복	0.4	1.7	△0.4
기타운송장비	△8.6	△5.5	△16.5
기타	3.9	1.2	2.0
전체	3.4	2.3	1.9

당기순이익을 추이는 영업이익을 추이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전기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은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한 3.2%를 시현

- ◎ 자동차의 경우는 2020년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전환하였음.
- ◎ 1차금속의 당기순이익률은 2020년 △2.8%로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표 V-23]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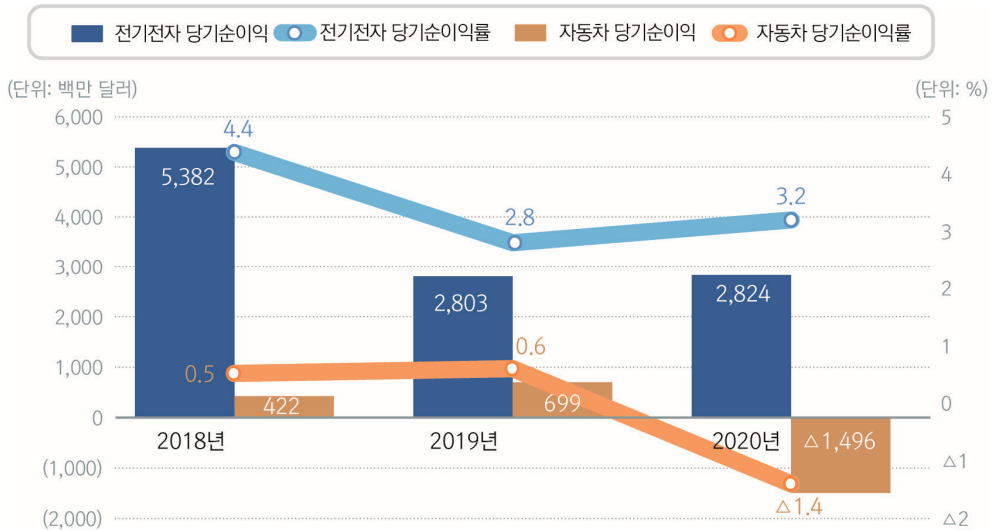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5,382	2,803	2,824
자동차	422	699	△1,496
화학	793	586	392
1차금속	△243	△901	△619
전기장비	313	616	847
기타기계	119	153	134
식료품	△54	7	308
고무/플라스틱	34	159	68
의복	△49	10	△72
기타운송장비	△1,468	202	△196
기타	331	△325	187
전체	5,581	4,008	2,377

[표 V-24]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4.4	2.8	3.2
자동차	0.5	0.6	△1.4
화학	4.0	2.9	1.9
1차금속	△0.9	△3.4	△2.8
전기장비	1.4	2.2	3.2
기타기계	1.5	1.5	1.4
식료품	△1.4	0.1	5.5
고무/플라스틱	0.8	2.4	1.4
의복	△1.3	0.2	△1.4
기타운송장비	△70.2	12.6	△13.5
기타	1.0	△0.9	0.6
전체	1.7	1.1	0.7

[그림 V-1]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익성 추이 비교



다. 투자수익

투자자순이익은 2018년 50.9억 달러에서 2020년 38.0억 달러로 감소

- 투자자순이익은 당기순이익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투자자순이익이 각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한국투자자 지분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

[표 V-25]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자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5,023	2,668	2,883
자동차	503	1,009	△649
화학	507	418	422
1차금속	△106	△673	△336
전기장비	368	628	851
기타기계	114	234	157
식료품	△16	△58	204
고무/플라스틱	33	154	75
의복	△47	6	△105
기타운송장비	△1,406	371	28
기타	122	127	275
전체	5,094	4,882	3,803

로열티 지급액은 2018년 31.9억 달러에서 2019년 36.6억 달러로 증가,
2020년 31.5억 달러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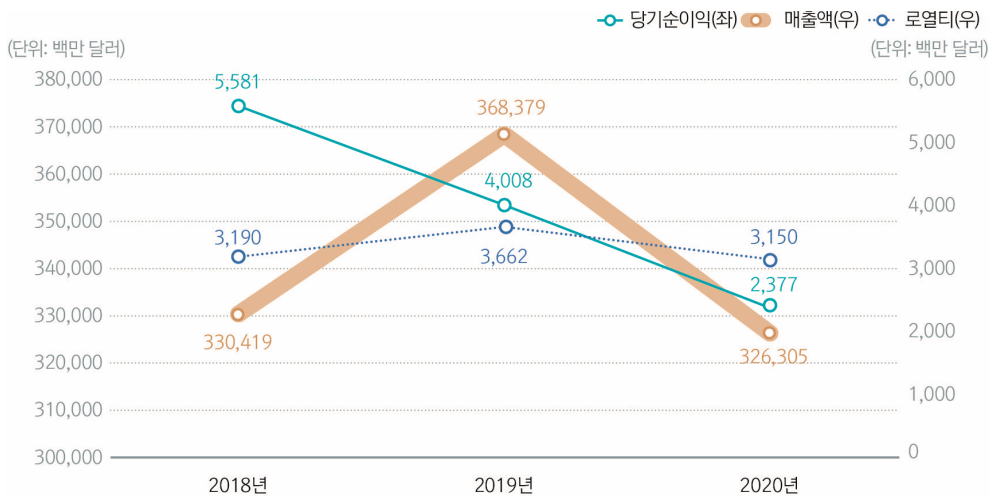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자동차(52.4%)와 전기전자(28.4%)의 로열티 금액이 전체 로열티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자동차 제조업은 영업적자 기록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액의 감소폭은 크지 않아 로열티 수익은 현지법인의 개별 수익성과 연관성이 낮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 V-26] 제조업 세부업종별 로열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1,216	1,119	896
자동차	1,443	1,938	1,652
화학	53	64	63
1차금속	8	8	31
전기장비	252	280	241
기타기계	44	40	38
식료품	16	36	70
고무/플라스틱	56	63	39
의복	1	1	1
기타운송장비	22	14	29
기타	79	100	90
전체	3,190	3,662	3,150

[그림 V-2] 제조업 로열티 지급액 추이



한국투자자 앞 대부이자 지급액은 2018년 48백만 달러에서 2019년 113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107백만 달러로 소폭 감소

-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투자잔액 규모 대비 대부이자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적음.

[표 V-27] 제조업 세부업종별 대부이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16	50	22
자동차	5	14	17
화학	2	5	9
1차금속	3	6	11
전기장비	1	3	6
기타기계	2	3	4
식료품	1	1	3
고무/플라스틱	2	3	5
의복	5	5	5
기타운송장비	1	3	2
기타	11	20	23
전체	48	113	107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를 합한 투자수익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투자수익률은 2018년 10.9%에서 2020년 7.1%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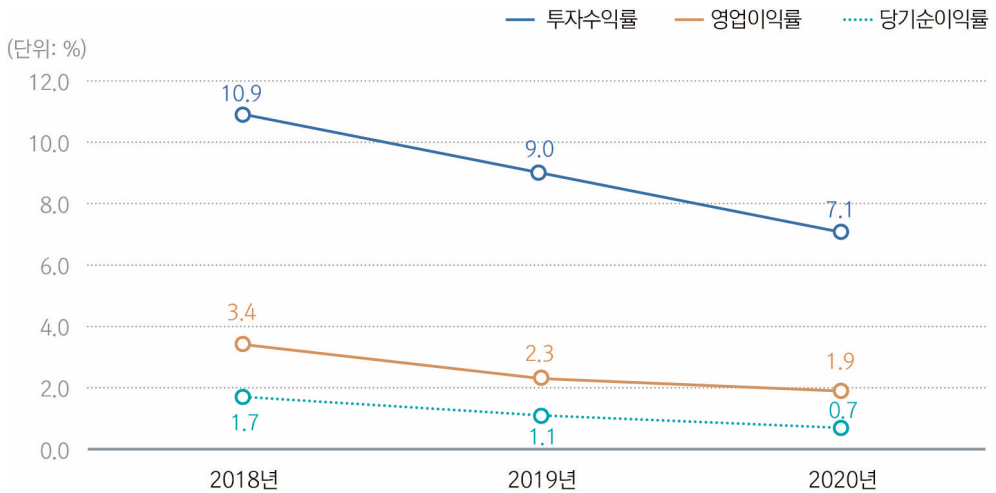
- 2020년 제조업 투자수익률의 경우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투자자순이익률 감소에 따라 2019년(9.0%) 대비 1.9%p 감소한 7.1%를 기록함.

[표 V-28]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32.5	16.4	15.9
자동차	12.4	14.2	5.0
화학	7.6	5.8	5.1
1차금속	△1.1	△6.8	△3.1
전기장비	16.5	14.1	14.6
기타기계	3.8	6.1	4.6
식료품	0.1	△0.6	6.5
고무/플라스틱	5.3	6.6	4.2
의복	△2.3	0.5	△3.8
기타운송장비	△59.9	14.9	2.6
기타	2.1	2.2	3.3
전체	10.9	9.0	7.1

[그림 V-3] 제조업 투자수익률 추이



현지법인의 한국 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액은 2018년 26.1억 달러에서
2020년 11.4억 달러로 감소

- 2020년 전기전자는 전년 대비 50.9% 감소한 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비중은 전년 19.4%에서 21.5%로 상승하였고 자동차의 경우 전년 대비 85.8% 감소한 1.9억 달러를 기록, 비중은 50.5%에서 16.2%로 크게 하락함.
- 한편, 화학의 경우 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7.5%에서 16.5%로 크게 상승함.

[표 V-29] 제조업 세부업종별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970	499	245
자동차	702	1,300	185
화학	315	192	189
1차금속	72	98	46
전기장비	86	73	107
기타기계	45	76	82
식료품	8	9	17
고무/플라스틱	198	112	101
의복	1	2	-
기타운송장비	1	0	-
기타	210	212	171
전체	2,610	2,573	1,142

라. 수출입 유발효과

현지법인 앞 수출액은 2018년 1,054억 달러에서 2020년 980억 달러로 감소

- 2020년 전기전자 현지법인 앞 수출액은 384억 달러로 2018년 586억 달러 대비 34.5% 감소하였으며, 전체 제조업 현지법인 앞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5.6%에서 2020년 39.2%로 하락함.
- 자동차의 경우 2020년 3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의 185억 달러 대비 62.2%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2018년 17.5%에서 2020년 30.6%로 상승하였음. 현지에서의 매출입 비중이 높은 이유로 인해 자동차 업종 현지법인의 수출비중은 매출액 규모·비중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기타기계의 경우 2018년 18억 달러에서 2020년 31억 달러로 최근 3년간 현지법인 앞 수출액 규모가 69.5% 확대됨.

[표 V-30]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58,602	41,316	38,380
자동차	18,474	29,779	29,962
화학	3,544	2,927	3,712
1차금속	7,072	7,236	5,625
전기장비	8,478	8,344	9,216
기타기계	1,802	2,977	3,055
식료품	206	257	337
고무/플라스틱	1,070	1,160	1,159
의복	194	373	233
기타운송장비	705	419	364
기타	5,247	6,486	5,946
전체	105,395	101,274	97,988

[표 V-31]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61,694	51,196	43,591
자동차	1,959	2,606	2,974
화학	764	2,046	833
1차금속	1,478	1,695	1,060
전기장비	5,994	7,518	10,921
기타기계	2,031	1,933	1,935
식료품	111	723	834
고무/플라스틱	413	511	506
의복	2,716	2,857	2,328
기타운송장비	747	864	753
기타	9,249	11,401	10,761
전체	87,158	83,350	76,495

[표 V-32] 제조업 세부업종별 순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3,092	△9,880	△5,211
자동차	16,515	27,172	26,988
화학	2,780	881	2,879
1차금속	5,594	5,541	4,565
전기장비	2,484	827	△1,705
기타기계	△229	1,044	1,120
식료품	95	△466	△497
고무/플라스틱	657	649	653
의복	△2,522	△2,483	△2,096
기타운송장비	△42	△445	△389
기타	△4,003	△4,915	△4,815
전체	18,237	17,925	21,492

제조업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액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2018년 23.8%에서 2019년에는 18.6%로 하락했으나 2020년에는 21.6%로 상승하였음.

- 전기전자의 경우 2020년 $\Delta 21.8\%$ 를 기록하며 최근 3년간 모두 부(-)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자동차의 경우 131.2%를 시현하며 제조업 세부 업종 중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화학, 1차금속,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3년 모두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정(+)의 수치를 기록한 반면 의복,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3년 모두 부(-)의 수치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의복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제조업 세부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Delta 79.4\%$)을 기록함.

[표 V-33] 제조업 세부업종별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전자	$\Delta 16.1$	$\Delta 42.2$	$\Delta 21.8$
자동차	104.8	130.3	131.2
화학	37.8	10.5	29.5
1차금속	66.7	57.6	47.9
전기장비	66.2	12.8	$\Delta 22.6$
기타기계	$\Delta 5.5$	23.1	25.8
식료품	4.7	$\Delta 14.2$	$\Delta 11.7$
고무/플라스틱	38.2	19.4	22.7
의복	$\Delta 139.1$	$\Delta 101.4$	$\Delta 79.4$
기타운송장비	$\Delta 1.8$	$\Delta 17.1$	$\Delta 16.8$
기타	$\Delta 39.2$	$\Delta 42.8$	$\Delta 40.9$
전체	23.8	18.6	21.6

VI 시사점



1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경영실적 전반적 악화

2020년 분석대상 5,556개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총 5,32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1.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16.5% 감소

- ◎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각각 61.3% 및 30.3%로 전체 매출액의 91.6%를 차지하였으며, 매출액 상위 2개 국가는 미국(1,354억 달러, 25.4%)과 중국(1,252억 달러, 23.5%)으로 두 국가의 매출액이 49.0%를 차지함.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1.9%, 0.3%로 2019년 대비 모두 하락하면서 매출액 감소와 함께 불황형 흑자 시현

- ◎ 제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수익성 하락, 광업 부문의 대규모 손실 발생 등에 따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익성은 하락
- ◎ 광업은 2018년 흑자전환 이후 2019년에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나 2020년 중에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

현지법인의 성장성은 2020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16.5%를 시현, 2019년(△7.3%)에 이어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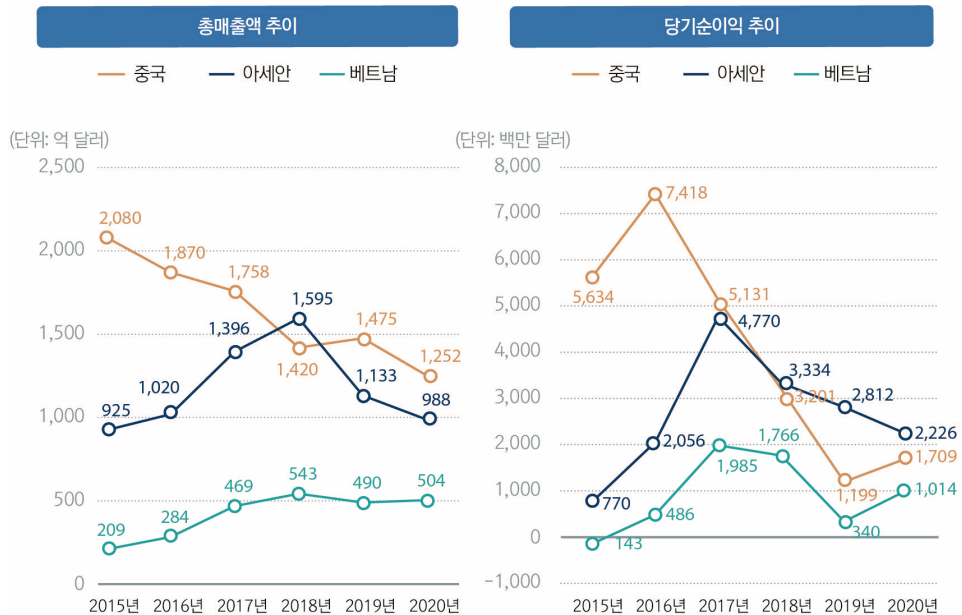
- ◎ 투자잔액 대비 총매출액은 2018년 3.4배, 2019년 3.0배, 2020년 2.5배로 하락하는 추세임.
- ◎ 최대투자국인 미국의 투자잔액 대비 총매출액은 2016년 3.5배에서 2018년 2.1배로 하락하다 2019년 3.1배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2.5배로 다시 하락하였으며 중국은 2016년 4.7배에서 2018년 3.7배, 2019년 3.3배, 2020년 2.6배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베트남은 2018년 5.3배, 2019년 3.6배, 2020년 3.0배로 성장세가 둔화됨.

2 베트남 중심의 對 ASEAN 투자 확대 지속

임금상승 등에 따라 중국 앞 투자는 정체된 반면 베트남 등 ASEAN 지역 투자 비중 상승

- 중국 투자 비중은 201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5년 22.7%에서 2018년 20.3%로 감소한 뒤 2019년 21.9%, 2020년에는 22.1%로 소폭 상승한 반면 베트남 투자 비중은 2015년 4.0%에서 2018년 5.5%, 2019년 6.6%, 2020년 7.8%로 매년 상승세 지속
- 또한, 중국 투자잔액은 2016년 395억 달러에서 2020년 472억 달러로 19.4% 증가한 것에 비해 베트남 투자잔액은 2016년 91억 달러에서 2020년 165억 달러로 82.1% 증가하여 투자 중심 지역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양상임.
- 중국 현지법인 총매출액은 2015년 2,080억 달러에서 2018년 1,42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475억 달러로 소폭 증가한 후 2020년 1,2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1% 급감한 반면, 베트남 총매출액은 2015년 209억 달러에서 2018년 543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다 2019년 49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5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음. 다만 ASEAN 총매출액은 2014년 1,081억 달러에서 2018년 1,595억 달러로 증가하다 2019년 1,133억 달러, 2020년 988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그림 VI-1] 중국, 베트남, 아세안 현지법인의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https://www.koreaexim.go.kr> | 171

3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전략 수립 필요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1. 해외생산거점 및 판매망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2. 현지법인에 대한 중간재 수출로 상품수지 공헌,
3. 현지법인 수익재투자로 해외자산 확보,
4. 대부이자, 로열티 등의 국내 송금,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원소득 확보 등임.

- ◎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고 있어 향후 현지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및 판매전략이 요구되며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 비중의 확대가 필요
- ◎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 생산 또는 지역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등 위험 분산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전략 수립이 중요
- ◎ 금번 조사에서 2020년 한국 모기업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1,843억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202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5,125억달러의 36.0%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상품수지에 공헌하고 있음.
- ◎ 또한, 본건 해외현지법인 5,556개사는 2020년 본원수지 공헌액 총 120.3억 달러(투자자순이익 42.3억 달러, 배당금 22.8억 달러, 로열티 33.5억 달러, 대부이자 4.2억 달러, 한국인근로자 임금 18.2억 달러)를 시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향후 선진국 경제구조로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정체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경상수지에의 공헌이 필요



178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말 기준)
188	II. 2020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206	III.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230	IV. 2020 회계연도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경영분석

부록목차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말 기준)	178
1. 연도별	178
2. 업종별	179
3. 지역별	182
4. 국가별	184
5. 투자자 기업규모별	186
6. 투자목적별	187
 II. 2020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88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188
가. 지역별	188
나. 업종별	19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0
2. 주요 경영성과 비율	191
가. 지역별	191
나. 업종별	193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3
3. 매출 및 매입 비중 현황	194
가. 지역별	194
나. 업종별	196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6
4. 주요 재무비율	197
가. 지역별	197
나. 업종별	199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9



5.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200
가. 지역별	200
나. 업종별	202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02
6. 수출입 효과	203
가. 지역별	203
나. 업종별	205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05

Ⅲ.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206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206
가. 지역별	206
나. 업종별	20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08
2. 주요경영성과	210
가. 매출액	210
(1) 지역별	210
(2) 업종별	211
(3) 투자자 기업규모별	211
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212
(1) 지역별	212
(2) 업종별	213
(3) 투자자 기업규모별	213
다.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214
(1) 지역별	214
(2) 업종별	215
(3) 투자자 기업규모별	215

부록목차

3. 매출현황	216
가. 지역별	216
나. 주요 업종별	217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7
4. 매입현황	218
가. 지역별	218
나. 주요 업종별	219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9
5. 수출입 효과	220
가. 수출액 및 수입액	220
(1) 지역별	220
(2) 주요 업종별	221
(3) 투자자 기업규모별	221
나. 수출입 유발효과	222
(1) 지역별	222
(2) 주요 업종별	223
(3) 투자자 기업규모별	223
6. 주요 재무비율	224
가.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224
(1) 지역별	224
(2) 업종별	225
(3) 투자자 기업규모별	225
나. 이자보상배율 및 유동비율	226
(1) 지역별	226
(2) 업종별	227
(3) 투자자 기업규모별	227



7.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228
가. 지역별	228
나. 업종별	229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29

IV. 2020 회계연도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경영분석 230

1. 개요	230
가. 분석 배경	230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230
2. 경영성과	232
가. 재무현황	232
(1) 업종별 현황	232
(2) 지역별 현황	232
나. 손익현황	233
(1) 업종별 현황	233
(2) 지역별 현황	234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 (2020년말 기준)¹

1 연도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연도	신규법인수	신규법인수증감률	투자액	투자액증감률
1968~1980	352	-	145	-
1981	49	-	64	-
1982	50	2.04	112	75.06
1983	57	14.00	168	49.63
1984	45	-21.05	50	-70.42
1985	39	-13.33	112	126.09
1986	51	30.77	316	181.79
1987	92	80.39	410	29.66
1988	172	86.96	231	-43.52
1989	271	57.56	571	146.92
1990	345	27.31	1,074	87.95
1991	449	30.14	1,318	22.78
1992	503	12.03	1,356	2.83
1993	694	37.97	1,450	6.92
1994	1,491	114.84	2,354	62.37
1995	1,349	-9.52	3,240	37.67
1996	1,484	10.01	4,568	40.98
1997	1,366	-7.95	3,922	-14.14
1998	616	-54.90	4,820	22.92
1999	1,107	79.71	3,407	-29.33
2000	2,123	91.78	5,367	57.54
2001	2,190	3.16	6,070	13.10
2002	2,531	15.57	4,077	-32.84
2003	2,826	11.66	4,836	18.61
2004	3,792	34.18	6,733	39.23
2005	4,449	17.33	7,328	8.84
2006	5,207	17.04	11,937	62.90
2007	5,691	9.30	22,728	90.40
2008	4,036	-29.08	24,161	6.30
2009	2,471	-38.78	20,904	-13.48
2010	2,896	17.20	25,510	22.03
2011	2,756	-4.83	29,466	15.51
2012	2,552	-7.40	29,461	-0.02
2013	2,834	11.05	31,074	5.47
2014	2,813	-0.74	28,425	-8.52
2015	2,998	6.58	29,883	5.13
2016	3,115	3.90	40,146	34.34
2017	3,242	4.08	44,764	11.50
2018	3,370	3.95	51,230	14.44
2019	3,856	14.42	64,254	25.42
2020	2,310	-40.09	56,855	-11.52
합 계	78,640	-	574,894	-

1 전체 현지법인 기준(지점, 지사 제외)

2 업종별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제조업		금융보험업		광업		도소매업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1968~1980	35	32	-	-	4	3	209	32
1981	7	5	1	29	-	7	25	8
1982	5	6	1	15	4	62	21	13
1983	16	27	2	60	1	43	16	13
1984	10	13	1	0	1	14	15	10
1985	12	27	1	0	2	70	16	6
1986	20	77	2	134	-	83	21	12
1987	30	156	-	-	4	219	38	19
1988	71	81	1	1	2	65	64	54
1989	147	278	-	0	1	76	78	59
1990	200	568	4	104	6	152	75	139
1991	280	650	7	211	3	123	88	172
1992	346	672	6	111	7	150	82	308
1993	519	557	6	187	8	146	94	443
1994	1,093	1,489	4	51	17	115	165	546
1995	954	2,060	6	83	5	77	162	331
1996	1,030	2,935	5	42	17	253	171	587
1997	896	1,982	7	43	14	235	161	549
1998	370	2,306	3	22	7	132	111	1,839
1999	690	1,685	2	28	10	225	109	1,056
2000	1,078	1,640	16	1,457	12	137	274	882
2001	1,274	4,347	10	62	7	82	307	1,160
2002	1,607	1,902	15	212	10	213	331	1,160
2003	1,771	2,659	8	487	17	340	372	694
2004	2,194	3,992	20	361	28	328	487	852
2005	2,122	4,213	23	345	23	402	837	771
2006	2,263	5,788	31	744	67	1,286	944	1,233
2007	2,244	8,316	86	3,396	70	1,877	1,021	3,775
2008	1,419	6,960	93	3,521	110	4,108	784	4,284
2009	840	5,207	51	2,368	74	5,561	532	2,629
2010	1,120	7,652	77	3,359	53	7,565	679	1,526
2011	1,040	10,181	74	4,323	53	8,548	607	1,910
2012	900	8,956	73	5,237	44	7,970	604	1,957
2013	1,077	9,643	80	3,647	27	7,512	617	2,193
2014	1,085	7,588	83	4,566	21	5,777	592	1,613
2015	1,094	7,831	103	6,696	21	3,521	680	2,317
2016	1,082	8,595	155	9,350	16	2,974	745	5,852
2017	1,037	8,747	177	13,271	15	1,532	741	9,480
2018	1,083	16,163	248	17,730	7	1,743	710	2,465
2019	1,176	18,473	363	25,646	10	2,624	788	2,114
2020	620	12,960	217	18,468	12	1,954	451	2,929
합계	34,857	177,418	2,062	126,366	810	68,302	14,824	57,992

제 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

제 3부
부록

제 4부
참고자료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전기·가스·공급업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1968~1980	2	11	-	-	35	26	-	-
1981	-	-	-	-	6	4	-	-
1982	-	-	-	-	6	6	-	-
1983	-	-	1	0	9	3	-	-
1984	-	-	-	-	7	4	-	-
1985	-	-	-	-	2	2	-	-
1986	-	-	-	1	1	2	-	-
1987	1	-	1	0	4	3	-	-
1988	1	1	1	5	8	5	-	-
1989	6	9	1	3	3	13	-	-
1990	5	7	-	18	7	5	-	-
1991	5	16	3	4	4	13	-	-
1992	-	4	3	10	4	1	-	-
1993	1	2	1	2	16	19	-	-
1994	9	12	9	12	31	31	-	-
1995	17	94	26	299	42	87	-	-
1996	11	50	23	202	33	92	1	1
1997	15	206	38	427	29	84	2	12
1998	6	125	17	146	14	103	-	16
1999	4	50	21	45	22	63	-	1
2000	6	130	45	165	26	121	3	92
2001	10	38	28	75	17	43	-	2
2002	18	84	31	106	22	64	1	11
2003	29	91	40	115	34	53	-	0
2004	28	184	36	146	48	83	-	1
2005	65	147	102	201	144	205	6	150
2006	139	575	200	394	255	486	5	264
2007	326	1,568	212	539	268	836	22	633
2008	267	1,651	174	741	199	889	11	172
2009	71	2,352	127	197	158	451	26	539
2010	67	2,126	120	468	156	350	23	820
2011	46	839	143	475	161	417	21	617
2012	43	1,212	145	611	140	559	37	948
2013	77	4,250	141	461	142	649	18	631
2014	108	3,529	193	909	123	1,160	20	877
2015	86	4,302	225	653	152	1,756	27	687
2016	110	6,064	216	1,296	140	1,799	31	936
2017	154	3,783	299	2,427	143	858	34	1,188
2018	205	5,293	278	1,645	141	1,649	37	1,039
2019	250	7,800	297	925	130	844	47	1,783
2020	187	7,714	234	4,045	97	1,641	34	3,484
합 계	2,375	54,317	3,431	17,766	2,979	15,477	406	14,904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운수창고업		기타		전체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1968~1980	12	2	55	40	352	145
1981	2	0	8	11	49	64
1982	2	0	11	10	50	112
1983	3	0	9	23	57	168
1984	2	0	9	8	45	50
1985	-	-	6	8	39	112
1986	1	0	6	8	51	316
1987	4	1	10	11	92	410
1988	6	1	18	19	172	231
1989	5	2	30	132	271	571
1990	6	1	42	80	345	1,074
1991	6	9	53	121	449	1,318
1992	3	10	52	90	503	1,356
1993	6	5	43	89	694	1,450
1994	26	13	137	85	1,491	2,354
1995	16	38	121	169	1,349	3,240
1996	22	27	171	380	1,484	4,568
1997	26	32	178	352	1,366	3,922
1998	16	9	72	124	616	4,820
1999	68	50	181	203	1,107	3,407
2000	20	40	643	703	2,123	5,367
2001	14	6	523	255	2,190	6,070
2002	20	10	476	316	2,531	4,077
2003	12	11	543	385	2,826	4,836
2004	22	14	929	772	3,792	6,733
2005	53	111	1,074	780	4,449	7,328
2006	84	288	1,219	879	5,207	11,937
2007	114	503	1,328	1,286	5,691	22,728
2008	100	545	879	1,291	4,036	24,161
2009	68	603	524	998	2,471	20,904
2010	77	507	524	1,137	2,896	25,510
2011	66	766	545	1,392	2,756	29,466
2012	79	604	487	1,406	2,552	29,461
2013	74	500	581	1,587	2,834	31,074
2014	85	618	503	1,789	2,813	28,425
2015	78	282	532	1,838	2,998	29,883
2016	95	1,167	525	2,113	3,115	40,146
2017	96	1,387	546	2,091	3,242	44,764
2018	81	861	580	2,643	3,370	51,230
2019	87	950	708	3,095	3,856	64,254
2020	66	421	392	3,237	2,310	56,855
합 계	1,623	10,396	15,273	31,955	78,640	574,894

제 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제 3부
부록제 4부
참고자료

3 지역별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1968~1980	87	48	118	33	51	5	20	5
1981	17	5	14	33	1	2	3	1
1982	12	22	16	42	5	2	5	1
1983	18	28	24	109	2	13	5	0
1984	7	10	24	19	1	1	3	1
1985	15	18	12	27	3	39	3	3
1986	13	94	26	81	3	6	3	3
1987	18	132	41	189	11	7	14	4
1988	66	60	57	96	16	15	15	14
1989	126	128	73	283	16	19	29	56
1990	188	371	87	455	22	82	26	67
1991	270	550	82	455	40	172	36	42
1992	363	565	61	411	36	215	28	37
1993	556	663	61	416	32	175	29	44
1994	1,217	1,187	134	560	56	376	37	55
1995	1,053	1,771	143	589	75	641	32	126
1996	1,090	1,952	199	1,605	72	601	41	288
1997	943	1,921	230	909	76	483	36	282
1998	399	2,027	136	995	39	1,264	15	267
1999	679	1,324	325	1,420	42	305	25	257
2000	1,207	1,724	730	1,539	69	314	51	1,510
2001	1,462	1,858	537	1,891	69	2,134	24	125
2002	1,856	1,939	474	612	69	1,079	36	299
2003	2,096	2,714	560	1,098	70	260	33	615
2004	2,706	3,785	869	1,441	100	733	42	612
2005	3,026	4,382	1,103	1,299	143	662	60	655
2006	3,471	6,508	1,341	2,286	165	1,224	77	1,331
2007	3,776	12,082	1,327	3,763	254	4,466	103	1,501
2008	2,753	11,942	806	5,274	200	3,423	95	2,217
2009	1,572	7,150	531	6,056	130	5,346	89	998
2010	1,934	10,231	552	4,688	156	6,221	97	2,366
2011	1,832	11,200	473	8,765	160	4,389	121	2,691
2012	1,712	11,742	485	6,658	127	4,202	106	3,708
2013	1,911	11,387	514	6,491	164	5,454	108	3,722
2014	1,899	9,113	508	7,140	163	4,247	121	4,403
2015	2,014	10,565	552	7,451	167	3,411	154	5,541
2016	2,153	10,923	531	15,015	195	5,057	117	6,290
2017	2,204	13,277	547	15,752	246	7,173	128	6,854
2018	2,272	17,576	546	11,718	306	11,880	144	8,315
2019	2,483	20,431	673	16,590	360	14,249	232	10,831
2020	1,305	18,156	544	18,108	233	10,248	117	8,182
합 계	52,781	211,562	16,066	152,361	4,145	100,595	2,460	74,320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전체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1968~1980	26	6	30	23	20	25	352	145
1981	4	18	6	3	4	1	49	64
1982	4	38	5	7	3	1	50	112
1983	1	15	5	3	2	0	57	168
1984	3	11	4	7	3	1	45	50
1985	4	15	1	10	1	0	39	112
1986	4	53	2	80	-	-	51	316
1987	5	6	1	71	2	1	92	410
1988	15	3	1	41	2	1	172	231
1989	21	45	1	32	5	8	271	571
1990	20	32	0	40	2	27	345	1,074
1991	16	23	0	59	5	18	449	1,318
1992	9	24	2	75	4	29	503	1,356
1993	6	35	4	86	6	31	694	1,450
1994	35	25	4	38	8	114	1,491	2,354
1995	38	39	1	32	7	42	1,349	3,240
1996	69	73	5	26	8	22	1,484	4,568
1997	61	142	2	69	18	115	1,366	3,922
1998	17	137	1	21	9	110	616	4,820
1999	23	69	3	4	10	28	1,107	3,407
2000	55	90	4	31	7	157	2,123	5,367
2001	87	21	4	25	7	18	2,190	6,070
2002	75	78	11	48	10	22	2,531	4,077
2003	58	92	5	26	4	30	2,826	4,836
2004	53	76	9	36	13	49	3,792	6,733
2005	81	154	17	43	19	132	4,449	7,328
2006	97	205	35	170	21	213	5,207	11,937
2007	112	511	87	160	32	244	5,691	22,728
2008	101	777	51	181	30	347	4,036	24,161
2009	61	549	56	375	32	430	2,471	20,904
2010	74	1,388	59	318	24	297	2,896	25,510
2011	76	1,551	67	475	27	396	2,756	29,466
2012	59	2,451	32	309	31	391	2,552	29,461
2013	76	3,407	34	374	27	238	2,834	31,074
2014	59	2,049	31	1,157	32	315	2,813	28,425
2015	39	1,250	36	1,536	36	129	2,998	29,883
2016	67	1,629	29	1,086	23	145	3,115	40,146
2017	59	903	35	629	23	177	3,242	44,764
2018	63	658	19	938	20	145	3,370	51,230
2019	67	1,006	22	557	19	589	3,856	64,254
2020	78	1,108	16	759	17	294	2,310	56,855
합 계	1,878	20,763	737	9,961	573	5,332	78,640	574,894

제 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제 3부
부록제 4부
참고자료

각 지역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액 비중(2020년말 누적 기준)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제조업	52.9	17.9	22.9	16.7	5.2	8.8	15.4
금융보험업	14.2	23.2	24.9	47.1	4.2	0.1	0.4
광업	5.1	13.0	10.4	12.1	58.5	27.4	64.8
도소매업	9.7	15.5	11.3	2.2	2.0	1.7	5.6
부동산업	5.3	13.5	16.6	3.8	11.9	4.0	0.7
정보통신업	2.7	5.6	2.2	1.9	0.0	0.2	0.5
건설업	2.3	0.9	2.9	1.2	1.0	51.8	2.7
전기가스공급업	1.6	2.4	2.5	6.3	0.6	4.5	0.9
운수창고업	1.6	1.5	2.0	2.5	3.8	0.9	1.4
기타	4.7	6.6	4.4	6.1	12.8	0.7	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국가별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말 누적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수	투자액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액
			현지법인수	투자액	
미국	15,306	136,131	19.5	23.7	8.9
중국	27,196	74,891	34.6	13.0	2.8
케이만군도	624	43,084	0.8	7.5	69.0
홍콩	2,464	30,938	3.1	5.4	12.6
베트남	7,153	28,075	9.1	4.9	3.9
싱가포르	1,256	18,652	1.6	3.2	14.9
영국	500	18,594	0.6	3.2	37.2
오스트레일리아	760	16,230	1.0	2.8	21.4
캐나다	776	15,964	1.0	2.8	20.6
룩셈부르크	214	13,889	0.3	2.4	64.9
전체	78,640	574,894	100.0	100.0	7.3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13,657	34.0	15,303	34.2	11,194	21.9	15,382	23.9	15,154	26.7
중국	4,459	11.1	5,088	11.4	6,305	12.3	8,416	13.1	6,770	11.9
케이만군도	3,439	8.6	3,217	7.2	4,803	9.4	5,853	9.1	4,509	7.9
홍콩	1,171	2.9	1,032	2.3	1,642	3.2	3,206	5.0	3,799	6.7
베트남	1,357	3.4	448	1.0	523	1.0	1,208	1.9	2,954	5.2
싱가포르	881	2.2	1,592	3.6	2,893	5.6	3,278	5.1	2,743	4.8
영국	2,388	5.9	1,986	4.4	3,343	6.5	4,589	7.1	2,741	4.8
오스트레일리아	312	0.8	811	1.8	1,294	2.5	1,281	2.0	1,624	2.9
캐나다	1,588	4.0	3,358	7.5	3,626	7.1	2,756	4.3	1,446	2.5
룩셈부르크	662	1.6	674	1.5	678	1.3	984	1.5	1,320	2.3
전체	40,146	100.0	44,764	100.0	51,230	100.0	64,254	100.0	56,855	100.0

연도별 상위 5대 투자 국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	케이만군도	케이만군도	케이만군도	케이만군도	케이만군도
3	중국	홍콩	중국	중국	중국
4	베트남	베트남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5	홍콩	중국	베트남	룩셈부르크	캐나다

5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말 누적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수	투자액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액
			현지법인수	투자액	
대기업	11,049	392,671	14.1	68.3	35.5
중소기업	37,376	104,889	47.5	18.2	2.8
기타 ²	30,215	77,333	38.4	13.5	2.6
전체	78,640	574,894	100.0	100.0	7.3

투자자 규모 및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액 비중(2020년말 누적 기준)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대기업	71.1	64.8	69.2	59.8	75.3	93.7	87.7
중소기업	23.9	16.3	15.2	13.9	12.9	5.7	10.4
기타	5.0	18.9	15.6	26.3	11.9	0.6	1.9

투자자 규모 및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액 비중(2020년말 누적 기준)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제조업	33.5	38.5	6.8
금융보험업	18.6	19.4	42.9
광업	16.3	1.1	3.9
도소매업	12.6	6.1	2.8
부동산업	4.7	14.6	26.5
정보통신업	2.8	5.1	1.8
건설업	3.0	2.3	1.5
전기가스공급업	3.1	1.4	1.6
운수창고업	1.6	1.8	2.8
기타	3.7	9.8	9.5
전체	100.0	100.0	100.0

2 기타는 개인, 개인기업, 집합투자자,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

6 투자목적별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말 누적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구 분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액
	현지법인수	투자액	현지법인수	투자액	
현지시장진출	32,534	248,261	41.4	43.2	7.6
제3국진출	2,291	109,871	2.9	19.1	48.0
자원개발	3,436	80,980	4.4	14.1	23.6
수출촉진	16,299	63,225	20.7	11.0	3.9
선진기술도입	2,105	33,632	2.7	5.9	16.0
저임활용	11,128	22,176	14.2	3.9	2.0
보호무역타개	596	2,164	0.8	0.4	3.6
원자재확보	939	574	1.2	0.1	0.6
기타	9,307	13,331	11.8	2.3	1.4
전체	78,635	574,214	100.0	100.0	7.3

각 지역의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액 비중(2020년말 누적 기준)

(단위: %)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현지시장진출	52.7	48.2	38.2	18.5	22.5	61.7	13.3
제3국진출	10.9	9.1	28.2	57.4	8.2	3.4	1.7
자원개발	6.9	15.7	11.6	15.6	62.1	29.2	68.6
수출촉진	14.0	8.8	16.1	3.8	2.0	4.6	8.2
선진기술도입	2.5	15.9	3.3	1.0	0.3	0.5	0.0
저임활용	9.1	0.4	0.9	1.1	3.1	0.0	2.2
보호무역타개	0.7	0.2	0.2	0.1	0.1	0.1	0.1
원자재확보	0.1	0.1	0.0	0.1	0.3	0.0	0.1
기타	3.1	1.7	1.5	2.5	1.8	0.4	5.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I

2020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가. 지역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 비중
아시아	3,664	65.9	91,971	43.1
중국	1,510	27.2	47,162	22.1
ASEAN	1,654	29.8	33,949	15.9
베트남	1,002	18.0	16,539	7.8
인도네시아	267	4.8	5,811	2.7
싱가포르	94	1.7	3,746	1.8
필리핀	66	1.2	2,381	1.1
말레이시아	49	0.9	2,342	1.1
태국	74	1.3	1,313	0.6
캄보디아	57	1.0	901	0.4
기타	45	0.8	915	0.4
일본	170	3.1	4,147	1.9
인도	118	2.1	2,517	1.2
홍콩	106	1.9	1,550	0.7
우즈베키스탄	22	0.4	896	0.4
기타	84	1.5	1,751	0.8
북미	958	17.2	61,893	29.0
미국	918	16.5	54,848	25.7
캐나다	40	0.7	7,045	3.3
유럽	495	8.9	27,201	12.7
EU ³	320	5.8	17,285	8.1
독일	63	1.1	3,594	1.7
벨기에	13	0.2	2,826	1.3
체코	27	0.5	1,645	0.8
헝가리	20	0.4	1,497	0.7

3 2020년 1월 영국의 EU탈퇴로 2020년 EU에서 영국 제외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 비중
폴란드	45	0.8	1,291	0.6
네덜란드	15	0.3	1,086	0.5
스페인	14	0.3	1,161	0.5
프랑스	24	0.4	1,151	0.5
기타	99	1.8	3,036	1.4
영국	48	0.9	4,610	2.2
러시아	60	1.1	2,328	1.1
터키	43	0.8	1,966	0.9
그 외	24	0.4	1,012	0.5
중남미	259	4.7	11,854	5.6
브라질	54	1.0	4,505	2.1
멕시코	105	1.9	3,999	1.9
파나마	46	0.8	1,472	0.7
그 외	54	1.0	1,878	0.9
대양주	91	1.6	10,720	5.0
오스트레일리아	53	1.0	9,831	4.6
그 외	38	0.7	889	0.4
중동	50	0.9	5,324	2.5
사우디아라비아	18	0.3	2,393	1.1
아랍에미리트	12	0.2	1,647	0.8
기타	20	0.4	1,283	0.6
아프리카	39	0.7	4,424	2.1
전체	5,556	100.0	213,387	100.0
선진국	1,568	28.2	98,507	46.2
개도국	3,988	71.8	114,880	53.8
BRICs	1,742	31.4	56,512	26.5

제 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제 3부
부록제 4부
참고자료

나. 업종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 비중
제조업	3,391	61.0	99,454	46.6
전기전자	524	9.4	23,896	11.2
자동차	666	12.0	20,568	9.6
화학	293	5.3	9,751	4.6
1차금속	173	3.1	9,523	4.5
전기장비	195	3.5	7,538	3.5
기타기계	224	4.0	4,340	2.0
식료품	101	1.8	4,243	2.0
고무/플라스틱	178	3.2	2,874	1.3
의복	232	4.2	2,639	1.2
기타운송장비	29	0.5	2,308	1.1
섬유	110	2.0	2,091	1.0
금속제품	172	3.1	1,780	0.8
신발	104	1.9	1,566	0.7
의약품	77	1.4	1,234	0.6
기타	313	5.6	5,101	2.4
광업	95	1.7	33,531	15.7
도소매업	586	10.5	28,048	13.1
부동산업	404	7.3	17,914	8.4
정보통신업	248	4.5	8,489	4.0
건설업	109	2.0	5,836	2.7
전기가스공급업	75	1.3	4,581	2.1
전문과학기술업	181	3.3	4,204	2.0
숙박음식점업	72	1.3	4,012	1.9
기타	395	7.1	7,319	3.4
전체	5,556	100.0	213,387	100.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 비중
대기업	2,596	46.7	175,597	82.3
중소기업	2,643	47.6	34,726	16.3
기타	317	5.7	3,063	1.4
전체	5,556	100.0	213,387	100.0

2 주요 경영성과 비율

가. 지역별

(단위: %)

구분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아시아	2.4	1.5
중국	2.2	1.4
ASEAN	2.7	2.3
베트남	3.0	2.0
인도네시아	5.0	0.9
싱가포르	△0.4	4.1
필리핀	△1.4	2.1
말레이시아	2.4	1.2
태국	2.0	1.5
캄보디아	△11.8	△26.1
기타	36.7	17.3
일본	0.1	△4.9
인도	4.6	2.9
홍콩	△0.2	△1.2
우즈베키스탄	17.4	18.2
기타	3.2	2.1
북미	0.9	△0.7
미국	0.9	△0.4
캐나다	1.6	△7.0
유럽	2.4	1.5
EU	2.9	1.9
독일	2.2	0.0
벨기에	9.7	28.2
체코	0.7	△0.6
헝가리	9.7	7.4

제 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

제 3부
부록

제 4부
참고자료

(단위: %)

구분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폴란드	2.8	2.1
네덜란드	1.3	1.5
스페인	7.0	4.0
프랑스	1.8	0.7
기타	3.3	2.0
영국	△11.0	△9.0
러시아	4.7	3.2
터키	10.1	8.4
그 외	3.3	1.5
중남미	6.1	△0.5
브라질	14.8	0.4
멕시코	1.5	△0.1
파나마	3.2	△4.0
그 외	△2.5	△4.5
대양주	0.5	△4.0
오스트레일리아	0.8	△3.7
그 외	△2.4	△6.9
중동	15.5	△3.3
사우디아라비아	△3.5	△8.3
아랍에미리트	35.7	3.4
기타	5.2	△8.5
아프리카	△93.5	△106.4
전체	1.9	0.3
선진국	1.1	△0.5
개도국	2.5	0.8
BRICs	3.4	1.6

나. 업종별

(단위: %)

구분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제조업	1.9	0.7
전기전자	3.1	3.2
자동차	△0.4	△1.4
화학	4.1	1.9
1차금속	1.1	△2.8
전기장비	5.1	3.2
기타기계	4.7	1.4
식료품	8.6	5.5
고무/플라스틱	3.5	1.4
의복	△0.4	△1.4
기타운송장비	△16.5	△13.5
섬유	2.0	1.1
금속제품	3.7	2.6
신발	1.7	0.7
의약품	△15.0	△20.2
기타	2.5	1.1
광업	△4.7	△27.2
도소매업	2.2	2.0
부동산업	13.5	14.3
정보통신업	△5.1	△15.5
건설업	10.0	5.2
전기가스공급업	10.0	3.4
전문과학기술업	△12.9	△11.7
숙박음식점업	△5.8	△16.4
기타	4.9	0.9
전체	1.9	0.3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구분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대기업	2.0	0.4
중소기업	0.8	△0.6
기타	△3.5	△6.9
전체	1.9	0.3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 1부
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

제 3부
부록

제 4부
참고자료

3 매출 및 매입 비중 현황

가. 지역별

(단위: %)

구분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아시아	58.6	30.7	10.7	50.8	36.4	12.7
중국	61.6	33.7	4.6	62.2	31.6	6.1
ASEAN	49.7	35.5	14.9	38.6	40.1	21.3
베트남	48.4	42.4	9.2	36.9	47.5	15.6
인도네시아	62.0	24.3	13.7	55.5	17.6	26.9
싱가포르	41.3	31.3	27.4	32.6	41.4	26.1
필리핀	49.8	38.8	11.4	46.1	49.8	4.1
말레이시아	54.3	18.0	27.7	26.3	15.1	58.6
태국	55.7	33.5	10.8	42.2	38.5	19.4
캄보디아	32.0	60.4	7.5	68.0	26.9	5.1
기타	27.8	12.5	59.6	87.2	5.0	7.8
일본	75.5	10.8	13.8	30.9	65.2	3.9
인도	82.4	3.9	13.7	71.6	25.8	2.6
홍콩	62.7	11.0	26.3	41.6	34.9	23.5
우즈베키스탄	79.0	2.4	18.6	53.4	41.9	4.7
기타	39.5	13.5	47.1	11.0	54.8	34.1
북미	84.7	2.5	12.8	27.4	67.9	4.6
미국	84.1	2.5	13.4	28.4	67.4	4.2
캐나다	96.2	2.1	1.7	8.4	78.5	13.0
유럽	72.2	4.6	23.2	36.6	31.7	31.7
EU	66.2	5.7	28.1	36.3	30.3	33.4
독일	61.8	1.4	36.8	22.8	48.3	28.9
벨기에	97.3	2.2	0.4	28.6	59.2	12.2
체코	89.5	0.2	10.3	72.8	21.1	6.1
헝가리	18.5	0.4	81.0	15.9	28.8	55.4

(단위: %)

구분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폴란드	50.4	40.2	9.4	23.4	20.0	56.6
네덜란드	99.0	0.6	0.5	17.0	18.6	64.4
스페인	86.6	6.6	6.8	71.9	0.2	27.9
프랑스	94.3	0.5	5.1	7.6	57.5	34.9
기타	59.5	0.6	39.9	42.9	23.8	33.2
영국	80.9	3.6	15.5	25.3	21.3	53.5
러시아	94.6	0.2	5.2	44.1	44.7	11.2
터키	91.7	1.9	6.5	46.5	32.2	21.3
그 외	72.0	1.4	26.6	3.4	15.6	81.0
중남미	75.0	3.0	22.0	54.3	33.7	11.9
브라질	81.2	2.4	16.3	63.1	23.7	13.2
멕시코	74.9	0.6	24.5	54.5	36.0	9.5
파나마	73.1	0.6	26.3	22.3	42.9	34.8
그 외	50.4	21.2	28.4	51.0	43.2	5.8
대양주	91.4	6.6	2.0	32.4	65.1	2.5
오스트레일리아	97.2	0.7	2.1	29.0	69.7	1.3
그 외	28.2	70.7	1.1	72.2	11.8	16.0
중동	39.6	13.7	46.8	38.6	39.3	22.1
사우디아라비아	80.5	0.0	19.5	81.9	6.8	11.3
아랍에미리트	13.3	31.6	55.0	5.3	51.4	43.3
기타	28.8	0.0	71.2	8.0	86.8	5.2
아프리카	68.1	5.6	26.4	15.0	79.1	5.9
전체	68.9	16.9	14.2	41.6	44.6	13.9
선진국	79.1	3.8	17.1	30.1	55.0	14.9
개도국	61.0	27.0	12.0	51.1	35.9	13.1
BRICs	67.3	26.5	6.2	61.6	31.9	6.6

제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제2부
주제별 심층 분석제3부
부록제4부
참고자료

나. 업종별

(단위: %)

구분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제조업	63.1	23.4	13.4	48.8	39.0	12.1
전기전자	36.2	49.2	14.6	31.9	54.3	13.8
자동차	85.1	2.7	12.2	60.6	34.2	5.2
화학	81.6	3.9	14.5	59.3	23.4	17.3
1차금속	83.8	4.8	11.5	50.3	38.0	11.7
전기장비	43.0	41.5	15.6	36.8	41.2	22.0
기타기계	73.6	19.5	6.9	57.0	38.9	4.1
식료품	68.0	15.0	17.0	68.2	9.4	22.4
고무/플라스틱	70.1	10.1	19.8	53.7	39.1	7.2
의복	37.0	46.1	16.9	53.6	7.2	39.2
기타운송장비	40.1	52.1	7.8	56.0	36.3	7.7
섬유	58.1	24.2	17.6	59.1	12.7	28.1
금속제품	63.3	26.0	10.7	59.7	30.4	9.9
신발	19.6	69.2	11.2	46.0	30.7	23.2
의약품	88.4	8.5	3.1	75.5	10.5	13.9
기타	55.2	28.5	16.3	50.1	30.1	19.8
광업	80.5	10.1	9.4	91.1	7.5	1.3
도소매업	78.7	5.8	15.5	23.4	59.8	16.8
부동산업	94.7	4.4	0.9	97.6	1.0	1.4
전체	68.9	16.9	14.2	41.6	44.6	13.9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구분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대기업	68.9	16.3	14.8	39.9	46.0	14.1
중소기업	67.4	23.0	9.6	57.5	30.8	11.7
기타	91.3	5.0	3.8	79.9	9.9	10.2
전체	68.9	16.9	14.2	41.6	44.6	13.9

4 주요 재무비율

가. 지역별

(단위: %, 배)

구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금융비용부담률
아시아	113.0	20.7	2.8	133.8	0.9
중국	111.6	17.1	2.7	129.8	0.8
ASEAN	104.4	23.6	2.7	144.9	1.0
베트남	144.2	28.0	4.1	109.5	0.7
인도네시아	116.6	24.8	2.3	125.5	2.2
싱가포르	31.8	7.3	영업적자	423.2	0.3
필리핀	208.2	32.5	영업적자	97.4	1.8
말레이시아	38.6	7.4	4.1	253.5	0.6
태국	122.1	18.3	4.3	159.8	0.5
캄보디아	3,908.3	89.8	영업적자	164.8	3.9
기타	136.7	38.6	2.7	101	13.4
일본	150.8	34.5	0.1	104.6	0.5
인도	142.1	19.3	7.1	142.1	0.6
홍콩	191.0	39.4	영업적자	125	0.5
우즈베키스탄	25.2	12.5	8.4	217	2.1
기타	355.6	41.0	2.2	167.3	1.4
북미	171.5	28.8	1.2	170.7	0.8
미국	169.9	29.6	1.2	173.7	0.7
캐나다	201.7	15.2	1.0	117.2	1.5
유럽	151.5	24.0	3.0	144.9	0.8
EU	141.7	23.1	4.9	143.7	0.6
독일	313.2	18.2	2.6	121.8	0.8
벨기에	54.3	28.8	4.5	223.7	2.2
체코	146.4	22.6	7.7	174.5	0.3
헝가리	151.3	45.5	8.7	121.6	0.4

제 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

제 3부
부록

제 4부
참고자료

(단위: %, 배)

구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금융비용부담률
폴란드	120.0	16.1	6.9	131.3	0.4
네덜란드	99.7	13.7	2.6	137.9	0.5
스페인	112.6	15.8	5.2	138.9	1.3
프랑스	206.2	12.9	3.0	143.8	0.6
기타	122.8	22.7	7.2	169.9	0.5
영국	184.6	14.7	영업적자	154.3	1.3
러시아	117.1	16.3	15.0	177.4	0.3
터키	286.5	48.7	2.0	100.3	5.2
그 외	149.7	24.0	2.1	110.1	1.6
중남미	338.2	37.3	2.1	97.6	2.9
브라질	640.0	42.7	3.8	96.4	3.9
멕시코	313.7	29.1	1.3	93.1	1.2
파나마	398.0	53.7	0.4	112	8.7
그 외	129.3	32.4	영업적자	117.8	4.0
대양주	173.1	43.7	0.2	121.1	2.7
오스트레일리아	167.4	42.9	0.3	119.8	2.3
그 외	220.2	49.5	영업적자	134.2	6.2
중동	166.7	38.4	2.7	114.8	5.7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잠식	84.4	영업적자	87.5	5.7
아랍에미리트	66.9	10.4	19.1	135.8	1.9
기타	91.4	34.3	0.4	166.1	12.8
아프리카	344.3	51.0	영업적자	114.5	9.9
전체	141.7	25.3	1.8	142.6	1.0
선진국	162.8	27.9	1.5	158.4	0.8
개도국	128.4	23.4	2.0	131.6	1.2
BRICs	122.4	18.6	3.6	130.5	0.9

나. 업종별

(단위: %, 배)

구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금융비용부담률
제조업	152.3	28.6	2.4	145.7	0.8
전기전자	97.9	19.4	5.2	147	0.6
자동차	278.5	37.8	영업적자	166.8	0.5
화학	84.0	22.5	3.4	141	1.2
1차금속	192.1	39.2	0.6	110.4	1.9
전기장비	131.0	23.2	11.1	117.8	0.5
기타기계	102.0	17.0	6.2	158.1	0.8
식료품	67.4	22.5	4.9	143.1	1.8
고무/플라스틱	139.5	34.5	3.1	102.1	1.1
의복	152.8	25.0	영업적자	129.2	0.7
기타운송장비	1,181.8	34.1	영업적자	109.3	5.5
섬유	127.9	36.4	1.4	102.8	1.5
금속제품	252.7	19.6	3.8	104.6	1.0
신발	155.7	30.8	2.5	93.6	0.7
의약품	39.5	7.7	영업적자	243.8	1.7
기타	106.8	22.2	2.3	130.4	1.1
광업	117.7	29.5	영업적자	137	6.6
도소매업	132.9	5.9	7.6	139.1	0.3
부동산업	105.5	41.3	0.4	105	36.6
정보통신업	73.9	15.0	영업적자	144.3	1.1
건설업	684.1	55.2	1.6	115.1	6.2
전기가스공급업	174.1	39.2	1.0	148.1	10.2
전문과학기술업	52.5	11.5	영업적자	220.9	0.9
숙박음식점업	109.7	37.3	영업적자	110.1	4.9
기타	152.3	31.7	2.4	126.2	2.1
전체	141.7	25.3	1.8	142.6	1.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배)

구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금융비용부담률
대기업	145.9	25.4	2.1	145.1	1.0
중소기업	128.5	25.6	0.6	117.9	1.3
기타	55.6	16.1	영업적자	190.6	3.0
전체	141.7	25.3	1.8	142.6	1.0

5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아시아	4,350	120	2,073	6,542	91,971	7.1
중국	2,160	23	781	2,964	47,162	6.3
ASEAN	1,931	88	865	2,884	33,949	8.5
베트남	872	50	602	1,524	16,539	9.2
인도네시아	17	14	152	183	5,811	3.2
싱가포르	844	0	12	856	3,746	22.8
필리핀	106	0	33	140	2,381	5.9
말레이시아	48	6	24	78	2,342	3.3
태국	66	1	17	84	1,313	6.4
캄보디아	△40	4	0	△36	901	△4.0
기타	18	12	25	56	915	6.1
일본	△379	2	23	△354	4,147	△8.5
인도	482	4	365	851	2,517	33.8
홍콩	14	4	25	42	1,550	2.7
우즈베키스탄	68	0	0	68	896	7.6
기타	74	1	13	87	1,751	5.0
북미	△8	32	398	423	61,893	0.7
미국	445	29	398	872	54,848	1.6
캐나다	△452	3	1	△448	7,045	△6.4
유럽	1,256	90	632	1,978	27,201	7.3
EU	1,271	64	497	1,833	17,285	10.6
독일	32	3	7	42	3,594	1.2
벨기에	363	9	0	372	2,826	13.2
체코	71	6	206	283	1,645	17.2
헝가리	124	1	6	130	1,497	8.7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폴란드	138	5	12	154	1,291	11.9
네덜란드	51	4	-	56	1,086	5.1
스페인	131	1	-	132	1,161	11.3
프랑스	56	5	2	63	1,151	5.5
기타	306	30	264	600	3,036	19.8
영국	△632	25	-	△608	4,610	△13.2
러시아	393	1	106	500	2,328	21.5
터키	228	0	21	250	1,966	12.7
그 외	△4	0	7	3	1,012	0.3
중남미	△393	69	207	△118	11,854	△1.0
브라질	△330	13	99	△218	4,505	△4.8
멕시코	△40	14	107	80	3,999	2.0
파나마	△23	40	1	18	1,472	1.2
그 외	△0	2	0	2	1,878	0.1
대양주	△204	96	3	△105	10,720	△1.0
오스트레일리아	△178	86	0	△92	9,831	△0.9
그 외	△26	10	3	△13	889	△1.5
중동	△12	5	18	11	5,324	0.2
사우디아라비아	△90	0	5	△85	2,393	△3.6
아랍에미리트	52	0	-	52	1,647	3.2
기타	25	5	13	43	1,283	3.4
아프리카	△764	4	15	△745	4,424	△16.8
전체	4,225	416	3,345	7,987	213,387	3.7
선진국	91	209	919	1,219	98,507	1.2
개도국	4,134	208	2,426	6,768	114,880	5.9
BRICs	2,704	41	1,351	4,096	56,512	7.2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 1부
주제별 심층 분석제 3부
부록제 4부
참고자료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제조업	3,803	107	3,150	7,060	99,454	7.1
전기전자	2,883	22	896	3,800	23,896	15.9
자동차	△649	17	1,652	1,020	20,568	5.0
화학	422	9	63	493	9,751	5.1
1차금속	△336	11	31	△294	9,523	△3.1
전기장비	851	6	241	1,097	7,538	14.6
기타기계	157	4	38	199	4,340	4.6
식료품	204	3	70	276	4,243	6.5
고무/플라스틱	75	5	39	120	2,874	4.2
의복	△105	5	1	△99	2,639	△3.8
기타운송장비	28	2	29	59	2,308	2.6
섬유	23	8	44	74	2,091	3.5
금속제품	161	3	15	179	1,780	10.1
신발	39	7	-	46	1,566	2.9
의약품	△122	0	9	△113	1,234	△9.2
기타	174	6	23	202	5,101	4.0
광업	△2,734	113	13	△2,607	33,531	△7.8
도소매업	3,592	11	45	3,647	28,048	13.0
부동산업	249	103	1	353	17,914	2.0
정보통신업	△616	4	106	△507	8,489	△6.0
건설업	212	2	4	219	5,836	3.7
전기가스공급업	176	27	-	202	4,581	4.4
전문과학기술업	△122	2	3	△117	4,204	△2.8
숙박음식점업	△229	5	4	△220	4,012	△5.5
기타	△105	43	19	△43	7,319	△0.6
전체	4,225	416	3,345	7,987	213,387	3.7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대기업	4,022	261	3,035	7,318	175,597	4.2
중소기업	161	133	309	602	34,726	1.7
기타	42	22	2	66	3,063	2.2
전체	4,225	416	3,345	7,987	213,387	3.7

6 수출입 효과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아시아	91,971	71,574	80,346	77.8	87.4	△9.5
중국	47,162	28,321	42,229	60.1	89.5	△29.5
ASEAN	33,949	30,428	35,025	89.6	103.2	△13.5
베트남	16,539	17,984	21,395	108.7	129.4	△20.6
인도네시아	5,811	1,950	4,089	33.6	70.4	△36.8
싱가포르	3,746	8,044	6,198	214.7	165.4	49.3
필리핀	2,381	872	1,047	36.6	44.0	△7.3
말레이시아	2,342	405	724	17.3	30.9	△13.6
태국	1,313	1,143	1,375	87.0	104.7	△17.7
캄보디아	901	27	106	3.0	11.7	△8.7
기타	915	2	91	0.2	9.9	△9.7
일본	4,147	5,128	1,096	123.7	26.4	97.2
인도	2,517	3,378	623	134.2	24.7	109.4
홍콩	1,550	2,148	730	138.6	47.1	91.5
우즈베키스탄	896	108	8	12.0	0.9	11.1
기타	1,751	2,063	635	117.9	36.3	81.6
북미	61,893	77,158	3,510	124.7	5.7	119.0
미국	54,848	73,034	3,371	133.2	6.1	127.0
캐나다	7,045	4,124	138	58.5	2.0	56.6
유럽	27,201	24,196	4,202	89.0	15.4	73.5
EU	17,285	17,294	3,842	100.0	22.2	77.8
독일	3,594	6,313	219	175.7	6.1	169.6
벨기에	2,826	503	29	17.8	1.0	16.8
체코	1,645	1,854	18	112.7	1.1	111.6
헝가리	1,497	1,263	24	84.3	1.6	82.8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폴란드	1,291	1,323	3,199	102.5	247.9	△145.4
네덜란드	1,086	483	17	44.5	1.5	42.9
스페인	1,161	6	213	0.6	18.4	△17.8
프랑스	1,151	2,099	25	182.4	2.1	180.2
기타	3,036	3,449	98	113.6	3.2	110.4
영국	4,610	1,040	247	22.6	5.4	17.2
러시아	2,328	5,094	30	218.8	1.3	217.5
터키	1,966	618	65	31.4	3.3	28.2
그외	1,012	151	18	14.9	1.8	13.1
중남미	11,854	6,605	769	55.7	6.5	49.2
브라질	4,505	1,304	226	28.9	5.0	23.9
멕시코	3,999	3,905	70	97.6	1.8	95.9
파나마	1,472	573	9	38.9	0.6	38.3
그 외	1,878	823	463	43.8	24.7	19.2
대양주	10,720	2,819	352	26.3	3.3	23.0
오스트레일리아	9,831	2,778	35	28.3	0.4	27.9
그 외	889	40	318	4.5	35.7	△31.2
중동	5,324	730	529	13.7	9.9	3.8
사우디아라비아	2,393	54	0	2.3	0.0	2.3
아랍에미리트	1,647	358	529	21.7	32.1	△10.4
기타	1,283	318	0	24.8	0.0	24.8
아프리카	4,424	1,193	125	27.0	2.8	24.1
전체	213,387	184,275	89,833	86.4	42.1	44.3
선진국	98,507	103,414	8,745	105.0	8.9	96.1
개도국	114,880	80,861	81,088	70.4	70.6	△0.2
BRICs	56,512	38,096	43,108	67.4	76.3	△8.9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제조업	99,454	97,988	76,495	98.5	76.9	21.6
전기전자	23,896	38,380	43,591	160.6	182.4	△21.8
자동차	20,568	29,962	2,974	145.7	14.5	131.2
화학	9,751	3,712	833	38.1	8.5	29.5
1차금속	9,523	5,625	1,060	59.1	11.1	47.9
전기장비	7,538	9,216	10,921	122.3	144.9	△22.6
기타기계	4,340	3,055	1,935	70.4	44.6	25.8
식료품	4,243	337	834	7.9	19.6	△11.7
고무/플라스틱	2,874	1,159	506	40.3	17.6	22.7
의복	2,639	233	2,328	8.8	88.2	△79.4
기타운송장비	2,308	364	753	15.8	32.6	△16.8
섬유	2,091	284	832	13.6	39.8	△26.2
금속제품	1,780	1,405	1,738	78.9	97.7	△18.7
신발	1,566	1,348	4,421	86.0	282.3	△196.2
의약품	1,234	41	87	3.3	7.1	△3.7
기타	5,101	2,869	3,683	56.2	72.2	△16.0
광업	33,531	361	1,167	1.1	3.5	△2.4
도소매업	28,048	82,523	9,300	294.2	33.2	261.1
부동산업	17,914	2	59	0.0	0.3	△0.3
전체	213,387	184,275	89,833	86.4	42.1	44.3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대기업	175,597	173,576	78,256	98.8	44.6	54.3
중소기업	34,726	10,512	11,408	30.3	32.9	△2.6
기타	3,063	187	169	6.1	5.5	0.6
전체	213,387	184,275	89,833	86.4	42.1	44.3

III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가. 지역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연도	2016			2017		
아시아	3,190	77,684	42.5	3,333	78,663	40.9
중국	1,564	39,506	21.6	1,564	39,532	20.6
ASEAN	1,163	24,783	13.6	1,289	26,191	13.6
기타	463	13,396	7.3	480	12,940	6.7
북미	696	47,124	25.8	745	51,623	26.9
미국	648	39,720	21.8	694	44,314	23.1
캐나다	48	7,404	4.1	51	7,309	3.8
유럽	403	24,518	13.4	439	28,919	15.0
EU	293	17,358	9.5	329	21,184	11.0
기타	110	7,161	3.9	110	7,735	4.0
중남미	283	13,122	7.2	257	13,263	6.9
기타	215	20,170	11.0	209	19,720	10.3
전체	4,787	182,619	100.0	4,983	192,189	100.0
선진국	1,192	78,323	42.9	1,296	86,888	45.2
개도국	3,595	104,296	57.1	3,687	105,300	54.8
BRICs	1,779	47,822	26.2	1,764	48,452	25.2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연도	2018			2019			2020		
아시아	3,312	73,596	39.3	3,637	89,080	43.3	3,664	91,971	43.1
중국	1,475	38,047	20.3	1,566	45,112	21.9	1,510	47,162	22.1
ASEAN	1,325	24,542	13.1	1,521	30,462	14.8	1,654	33,949	15.9
기타	512	11,006	5.9	550	13,507	6.6	500	10,861	5.1
북미	858	59,179	31.6	846	54,073	26.3	958	61,893	29.0
미국	800	51,614	27.6	52	7,692	3.7	918	54,848	25.7
캐나다	58	7,565	4.0	794	46,381	22.5	40	7,045	3.3
유럽	440	26,301	14.1	491	27,243	13.2	495	27,201	12.7
EU	328	21,080	11.3	370	21,778	10.6	320	17,285	8.1
기타	112	5,221	2.8	121	5,465	2.7	175	9,916	4.6
중남미	258	11,370	6.1	232	13,392	6.5	259	11,854	5.6
기타	204	16,617	8.9	185	21,939	10.7	180	20,468	9.6
전체	5,072	187,063	100.0	5,391	205,727	100.0	5,556	213,387	100.0
선진국	1,427	91,910	49.1	1,468	91,050	44.3	1,568	98,507	46.2
개도국	3,645	95,153	50.9	3,923	114,677	55.7	3,988	114,880	53.8
BRICs	1,694	47,128	25.2	1,825	55,850	27.1	1,742	56,512	26.5

제 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제 3부
부록제 4부
참고자료

나. 업종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연도	2016			2017		
제조업	2,833	76,101	41.7	3,015	78,254	40.7
전기전자	466	17,097	9.4	501	18,314	9.5
자동차	556	13,118	7.2	601	14,986	7.8
화학	241	7,037	3.9	259	6,520	3.4
1차금속	164	7,761	4.2	163	7,502	3.9
전기장비	152	4,022	2.2	150	4,016	2.1
기타기계	161	6,277	3.4	179	5,326	2.8
식료품	117	2,515	1.4	105	2,665	1.4
고무/플라스틱	137	3,346	1.8	144	2,677	1.4
의복	192	1,917	1.0	214	2,050	1.1
기타운송장비	31	3,761	2.1	32	3,754	2.0
섬유	92	1,427	0.8	97	1,731	0.9
금속제품	143	1,567	0.9	154	1,519	0.8
신발	84	957	0.5	92	1,096	0.6
의약품	40	552	0.3	49	791	0.4
기타	257	4,746	2.6	275	5,306	2.8
광업	165	39,759	21.8	147	37,413	19.5
도소매업	586	28,611	15.7	556	34,361	17.9
부동산업	219	10,779	5.9	259	11,679	6.1
정보통신업	175	3,385	1.9	207	6,069	3.2
건설업	123	5,386	2.9	113	5,307	2.8
전기가스공급업	72	4,469	2.4	86	4,839	2.5
전문과학기술업	116	2,703	1.5	128	4,290	2.2
숙박음식점업	85	2,653	1.5	80	2,753	1.4
기타	413	8,773	4.8	392	7,223	3.8
전체	4,787	182,619	100.0	4,983	192,189	100.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연도	2016			2017		
대기업	2,590	158,604	86.8	2,631	166,194	86.5
중소기업	1,878	18,218	10.0	2,033	20,499	10.7
기타	319	5,796	3.2	319	5,495	2.9
전체	4,787	182,619	100.0	4,983	192,189	100.0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연도	2018			2019			2020		
제조업	2,931	76,704	41.0	3,334	96,429	46.9	3,391	99,454	46.6
전기전자	480	19,230	10.3	528	23,389	11.4	524	23,896	11.2
자동차	573	15,752	8.4	662	20,849	10.1	666	20,568	9.6
화학	258	7,348	3.9	283	8,418	4.1	293	9,751	4.6
1차금속	158	8,386	4.5	172	9,625	4.7	173	9,523	4.5
전기장비	151	3,754	2.0	183	6,462	3.1	195	7,538	3.5
기타기계	172	4,165	2.2	217	4,528	2.2	224	4,340	2.0
식료품	93	2,003	1.1	111	3,286	1.6	101	4,243	2.0
고무/플라스틱	139	1,722	0.9	163	3,342	1.6	178	2,874	1.3
의복	206	1,813	1.0	234	2,449	1.2	232	2,639	1.2
기타운송장비	31	2,309	1.2	28	2,610	1.3	29	2,308	1.1
섬유	99	1,700	0.9	115	2,079	1.0	110	2,091	1.0
금속제품	144	1,453	0.8	160	1,853	0.9	172	1,780	0.8
신발	95	1,045	0.6	104	1,482	0.7	104	1,566	0.7
의약품	54	847	0.5	62	917	2.4	77	1,234	0.6
기타	278	5,174	2.8	312	5,139	0.6	313	5,101	2.4
광업	125	30,228	16.2	105	36,060	17.5	95	33,531	15.7
도소매업	576	30,771	16.4	599	29,791	14.5	586	28,048	13.1
부동산업	473	12,015	6.4	353	13,493	6.6	404	17,914	8.4
정보통신업	203	5,874	3.1	234	6,689	3.3	248	8,489	4.0
건설업	122	6,477	3.5	116	6,615	3.2	109	5,836	2.7
전기가스공급업	52	2,926	1.6	68	3,599	1.7	75	4,581	2.1
전문과학기술업	136	13,178	7.0	151	4,132	2.0	181	4,204	2.0
숙박음식점업	72	1,965	1.1	71	2,441	1.2	72	4,012	1.9
기타	382	6,925	3.7	360	6,478	3.1	395	7,319	3.4
전체	5,072	187,063	100.0	5,391	205,727	100.0	5,556	213,387	100.0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연도	2018			2019			2020		
대기업	2,506	151,944	81.2	2,725	175,314	85.2	2,596	175,597	82.3
중소기업	2,139	30,252	16.2	2,374	26,511	12.9	2,643	34,726	16.3
기타	427	4,867	2.6	292	3,902	1.9	317	3,063	1.4
전체	5,072	187,063	100.0	5,391	205,727	100.0	5,556	213,387	100.0

2 주요경영성과

가. 매출액

(1)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시아	335,389	374,652	350,753	310,679	261,898
중국	187,032	175,845	142,015	147,538	125,234
ASEAN	102,004	139,605	159,531	113,252	98,786
기타	46,353	59,201	49,207	49,034	37,879
북미	146,984	150,666	115,139	151,390	141,964
미국	140,860	143,858	108,244	144,537	135,425
캐나다	6,124	6,808	6,894	6,853	6,539
유럽	98,230	112,482	107,808	101,201	91,088
EU	82,666	93,580	91,205	80,548	67,098
기타	15,563	18,902	16,603	20,653	23,990
중남미	22,314	33,359	34,256	36,594	25,715
기타	21,877	21,025	20,945	17,530	11,457
전체	624,794	692,183	628,900	617,394	532,123
선진국	247,512	264,556	226,139	253,523	232,158
개도국	377,283	427,627	402,760	363,871	299,965
BRICs	213,041	219,182	178,109	199,452	162,710

(2)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323,734	355,047	330,419	368,379	326,305
전기전자	103,065	130,823	122,951	99,768	88,578
자동차	107,084	101,804	81,946	126,321	110,492
화학	15,829	17,955	19,629	20,499	21,162
1차금속	18,002	23,514	27,250	26,210	22,273
전기장비	22,847	24,332	22,529	28,429	26,340
기타기계	8,145	7,492	7,760	9,907	9,914
식료품	5,391	5,406	3,893	7,063	5,570
고무/플라스틱	6,701	5,497	4,318	6,696	5,003
의복	4,112	4,636	3,919	5,175	5,053
기타운송장비	4,033	3,479	2,090	1,597	1,446
섬유	3,141	3,729	3,659	3,907	3,433
금속제품	9,870	9,473	10,952	10,465	6,694
신발	4,765	5,095	5,423	7,112	6,392
의약품	426	903	1,198	1,189	1,025
기타	10,321	10,908	12,900	14,039	12,928
광업	10,019	14,744	17,918	19,772	11,555
도소매업	258,048	282,538	240,637	193,066	161,081
부동산업	1,083	1,886	1,296	1,400	1,341
정보통신업	4,985	7,302	8,439	7,495	6,946
건설업	4,953	3,275	4,358	5,640	4,665
전기가스공급업	1,565	9,370	1,993	4,343	4,175
전문과학기술업	2,789	3,252	3,474	4,097	3,694
숙박음식점업	1,208	1,327	1,227	1,955	1,482
기타	16,409	13,443	19,141	11,247	10,879
전체	624,794	692,183	628,900	617,394	532,123

(3)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기업	583,858	649,248	586,817	565,705	479,209
중소기업	36,854	39,617	37,877	47,485	49,513
기타	4,082	3,318	4,206	4,205	3,400
전체	624,794	692,183	628,900	617,394	532,123

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1)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시아	12,603	14,092	11,072	7,697	6,396	3.8	3.8	3.2	2.5	2.4
중국	8,727	6,909	4,551	3,151	2,814	4.7	3.9	3.2	2.1	2.2
ASEAN	2,784	5,365	5,449	3,471	2,645	2.7	3.8	3.4	3.1	2.7
기타	1,092	1,819	1,072	1,075	936	2.4	3.1	2.2	2.2	2.5
북미	1,045	391	1,734	1,062	1,317	0.7	0.3	1.5	0.7	0.9
미국	1,078	107	1,599	991	1,215	0.8	0.1	1.5	0.7	0.9
캐나다	△32	284	135	71	102	△0.5	4.2	2.0	0.1	1.6
유럽	2,427	3,285	3,204	3,185	2,149	2.5	2.9	3.0	3.1	2.4
EU	2,067	2,506	2,339	2,348	1,939	2.5	2.7	2.6	2.9	2.9
기타	360	779	864	837	210	2.3	4.1	5.2	4.1	0.9
중남미	△452	2,118	1,838	2,381	1,558	△2.0	6.3	5.4	6.5	6.1
기타	△18	1,197	1,722	3,294	△1,479	△0.1	5.7	8.2	18.8	△12.9
전체	15,605	21,082	19,569	17,620	9,940	2.5	3.0	3.1	2.9	1.9
선진국	3,377	3,399	4,531	5,828	2,563	1.4	1.3	2.0	2.3	1.1
개도국	12,228	17,683	15,038	11,792	7,377	3.2	4.1	3.7	3.2	2.5
BRICs	10,018	10,748	7,767	6,587	5,499	4.7	4.9	4.4	3.3	3.4

(2)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12,833	13,863	11,216	8,362	6,219	4.0	3.9	3.4	2.3	1.9
전기전자	4,541	7,370	5,452	3,590	2,766	4.4	5.6	4.4	3.6	3.1
자동차	4,376	1,779	1,436	1,406	△454	4.1	1.7	1.8	1.1	△0.4
화학	1,060	1,462	1,042	825	877	6.7	8.1	5.3	4.0	4.1
1차금속	183	399	960	136	240	1.0	1.7	3.5	0.5	1.1
전기장비	764	674	613	1,030	1,333	3.3	2.8	2.7	3.6	5.1
기타기계	504	238	268	383	464	6.2	3.2	3.5	3.9	4.7
식료품	351	240	157	253	479	6.5	4.4	4.0	3.6	8.6
고무/플라스틱	560	204	132	302	174	8.4	3.7	3.0	4.5	3.5
의복	20	33	16	90	△20	0.5	0.7	0.4	1.7	△0.4
기타운송장비	△435	△28	△180	△88	△239	△10.8	△0.8	△8.6	-5.5	△16.5
섬유	119	163	64	17	70	3.8	4.4	1.7	0.4	2.0
금속제품	165	474	426	163	251	1.7	5.0	3.9	1.6	3.7
신발	120	160	94	241	107	2.5	3.1	1.7	3.4	1.7
의약품	31	120	194	△482	△153	△7.4	13.3	16.2	-40.6	△15.0
기타	538	573	541	495	326	5.2	5.3	4.2	3.5	2.5
광업	△272	3,540	4,847	5,140	△539	△2.7	24.0	27.1	26.0	△4.7
도소매업	2,060	1,033	2,617	3,482	3,582	0.8	0.4	1.1	1.8	2.2
부동산업	337	494	252	364	181	31.1	26.2	19.4	26.0	13.5
정보통신업	△165	△23	△437	3	△356	△3.3	△0.3	△5.2	0.0	△5.1
건설업	△104	130	503	△104	467	△2.1	4.0	11.5	△1.8	10.0
전기가스공급업	353	1,566	338	601	417	22.5	16.7	17.0	13.8	10.0
전문과학기술업	△108	△183	△356	△586	△475	△3.9	△5.6	△10.3	△14.3	△12.9
숙박음식점업	30	△8	△20	△2	△86	2.5	△1.3	△1.6	△0.1	△5.8
기타	642	680	611	360	530	3.9	5.1	3.2	3.2	4.9
전체	15,605	21,082	19,569	17,620	9,940	2.5	3.0	3.1	2.9	1.9

(3)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14,598	20,305	19,160	17,687	9,666	2.5	3.1	3.3	3.1	2.0
중소기업	737	726	140	449	394	2.0	1.8	0.4	0.9	0.8
기타	271	51	270	△516	△119	6.6	1.5	6.4	△12.3	△3.5
전체	15,605	21,082	19,569	17,620	9,940	2.5	3.0	3.1	2.9	1.9

다.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1)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시아	9,576	10,978	6,838	4,247	3,973	2.9	2.9	1.9	1.4	1.5
중국	7,418	5,131	3,201	1,199	1,709	4.0	2.9	2.3	0.8	1.4
ASEAN	2,056	4,770	3,334	2,812	2,226	2.0	3.4	2.1	2.5	2.3
기타	101	1,077	303	236	38	0.2	1.8	0.6	0.5	0.1
북미	△201	△322	△1,676	△564	△1,006	△0.1	△0.2	△1.5	△0.4	△0.7
미국	19	△332	△1,436	△128	△551	0.0	△0.2	△1.3	△1.9	△0.4
캐나다	△220	10	△240	△435	△456	△3.6	0.1	△3.5	△0.3	△7.0
유럽	1,904	2,639	1,529	1,889	1,337	1.9	2.3	1.4	1.9	1.5
EU	1,214	2,116	1,279	1,150	1,258	1.5	2.3	1.4	1.4	1.9
기타	689	523	250	739	79	4.4	2.8	1.5	3.6	0.3
중남미	△663	1,119	△185	839	△136	△3.0	3.4	△0.5	2.3	△0.5
기타	△2,060	△1,639	256	540	△2,738	△9.4	△7.8	1.2	3.1	△23.9
전체	8,555	12,774	6,763	6,952	1,430	1.4	1.8	1.1	1.1	0.3
선진국	577	595	△284	1,648	△1,052	0.2	0.2	△0.1	0.7	△0.5
개도국	7,977	12,180	7,047	5,304	2,482	2.1	2.8	1.7	1.5	0.8
BRICs	9,040	7,534	4,423	3,145	2,600	4.2	3.4	2.5	1.6	1.6

(2)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10,087	10,937	5,581	4,008	2,377	3.1	3.1	1.7	1.1	0.7
전기전자	5,336	7,374	5,382	2,803	2,824	5.2	5.6	4.4	2.8	3.2
자동차	3,194	1,153	422	699	△1,496	3.0	1.1	0.5	0.6	△1.4
화학	739	1,142	793	586	392	4.7	6.4	4.0	2.9	1.9
1차금속	17	△305	△243	901	△619	0.1	△1.3	△0.9	△3.4	△2.8
전기장비	489	424	313	616	847	2.1	1.7	1.4	2.2	3.2
기타기계	245	62	119	153	134	3.0	0.8	1.5	1.5	1.4
식료품	173	68	△54	7	308	3.2	1.3	△1.4	0.1	5.5
고무/플라스틱	358	152	34	159	68	5.3	2.8	0.8	2.4	1.4
의복	△14	△28	△49	10	△72	△0.3	△0.6	△1.3	0.2	△1.4
기타운송장비	△790	16	△1,468	202	△196	△19.6	0.5	△70.2	12.6	△13.5
섬유	63	101	△37	△111	38	2.0	2.7	△1.0	△2.8	1.1
금속제품	△40	277	73	△55	174	△0.4	2.9	0.7	-0.5	2.6
신발	88	94	12	157	44	1.8	1.8	0.2	2.2	0.7
의약품	39	79	132	△554	△207	△9.1	8.7	11.1	△46.6	△20.2
기타	269	330	152	239	138	2.6	3.0	1.2	1.7	1.1
광업	△3,266	△695	79	797	△3,141	△32.6	△4.7	0.4	4.0	△27.2
도소매업	1,843	1,632	2,526	3,660	3,276	0.7	0.6	1.0	1.9	2.0
부동산업	131	213	△448	233	192	12.1	11.3	△34.6	16.6	14.3
정보통신업	△221	△298	△631	△313	△1,077	△4.4	△4.1	△7.5	△4.2	△15.5
건설업	△513	△106	333	△581	241	△10.4	△3.2	7.7	△10.3	5.2
전기가스공급업	270	1,081	△183	45	140	17.3	11.5	△9.2	1.0	3.4
전문과학기술업	157	△178	△451	△643	△433	5.6	△5.5	△13.0	△15.7	△11.7
숙박음식점업	△5	△79	△117	△183	△244	△0.4	△5.9	△9.6	△9.3	△16.4
기타	71	266	75	△71	99	0.4	2.0	0.4	△0.6	0.9
전체	8,555	12,774	6,763	6,952	1,430	1.4	1.8	1.1	1.1	0.3

(3)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7,588	12,691	7,663	8,021	1,937	1.3	2.0	1.3	1.4	0.4
중소기업	1,179	215	△1,029	△546	△272	3.2	0.5	△2.7	△1.1	△0.6
기타	△212	△131	130	△523	△235	△5.2	△4.0	3.1	△12.4	△6.9
전체	8,555	12,774	6,763	6,952	1,430	1.4	1.8	1.1	1.1	0.3

3 매출현황

가. 지역별

(단위: %)

구분	현지매출 비중					한국수출 비중					제3국수출 비중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시아	58.5	55.1	52.2	57.3	58.6	27.4	30.2	32.2	29.2	30.7	14.0	14.7	15.5	13.5	10.7
중국	63.7	59.4	56.7	57.1	61.6	31.1	35.5	36.6	37.1	33.7	5.1	5.1	6.7	5.8	4.6
ASEAN	48.7	46.0	45.9	52.3	49.7	29.1	33.5	35.8	28.1	35.5	22.3	20.5	18.3	19.7	14.9
기타	59.3	64.1	60.0	57.5	71.7	9.0	6.7	8.0	51.7	8.2	31.7	29.2	32.0	48.3	20.1
북미	88.5	85.0	81.4	86.8	84.7	1.5	1.7	2.9	3.0	2.5	10.0	13.3	15.7	10.2	12.8
미국	88.2	84.6	80.6	94.1	84.1	1.5	1.6	2.8	2.9	2.5	10.3	13.8	16.6	10.6	13.4
캐나다	93.1	94.1	94.2	86.4	96.2	2.2	3.9	4.0	4.0	2.1	4.7	2.0	1.8	1.9	1.7
유럽	59.1	61.3	68.7	71.4	72.2	2.5	2.9	3.1	3.9	4.6	38.4	35.8	28.2	24.7	23.2
EU	55.1	57.1	66.9	68.1	66.2	2.9	3.4	3.6	4.7	5.7	42.0	39.5	29.5	27.2	28.1
기타	80.4	82.4	78.6	86.7	89.0	0.3	0.3	0.3	0.5	1.5	19.3	17.3	21.0	12.9	9.5
중남미	84.2	79.4	77.4	80.0	75.0	2.7	3.6	2.5	2.4	3.0	13.1	17.0	20.1	17.5	22.0
기타	74.9	75.6	74.3	72.0	69.3	7.4	8.4	9.8	12.8	8.8	17.7	16.0	15.9	15.2	21.9
전체	67.2	64.4	62.5	68.6	68.9	15.8	17.6	19.5	16.5	16.9	17.0	18.0	18.0	14.8	14.2
선진국	76.1	74.2	74.7	80.1	79.1	2.5	2.8	3.7	4.1	3.8	21.4	22.9	21.6	15.8	17.1
개도국	61.3	58.4	55.6	60.6	61.0	24.6	26.7	28.4	25.2	27.0	14.1	14.9	16.0	14.2	12.0
BRICs	66.9	65.4	63.2	65.5	67.3	27.6	28.8	29.6	27.9	26.5	5.5	5.8	7.2	6.6	6.2

나. 주요 업종별

(단위: %)

구분	현지매출 비중					한국수출 비중					제3국수출 비중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60.9	56.7	56.3	62.6	63.1	23.9	26.5	26.4	22.6	23.4	15.2	16.8	17.3	14.7	13.4
전기전자	35.0	34.5	35.2	36.3	36.2	53.2	52.3	50.2	51.3	49.2	11.8	13.2	14.6	12.4	14.6
자동차	81.6	76.2	78.0	83.1	85.1	1.6	1.8	2.4	2.1	2.7	16.7	22.0	19.6	14.8	12.2
화학	78.3	79.1	75.3	72.8	81.6	3.5	4.1	3.9	10.0	3.9	18.2	16.8	20.8	17.2	14.5
1차금속	87.8	82.3	81.3	82.5	83.8	4.5	6.9	5.4	6.5	4.8	7.7	10.8	13.3	11.0	11.5
전기장비	58.8	55.7	47.8	49.8	43.0	27.6	29.6	26.6	26.4	41.5	13.6	14.7	25.6	23.7	15.6
기타기계	76.9	69.7	66.8	74.0	73.6	18.5	24.7	26.2	19.5	19.5	4.5	5.6	7.1	6.5	6.9
식료품	82.0	74.2	82.8	75.8	68.0	3.4	4.1	2.8	10.2	15.0	14.6	21.8	14.4	13.9	17.0
고무/플라스틱	64.8	67.5	68.4	69.2	70.1	4.8	7.7	9.6	7.6	10.1	30.3	24.8	22.0	23.1	19.8
의복	28.2	26.9	15.4	25.4	37.0	59.8	60.7	69.3	55.2	46.1	12.0	12.4	15.2	19.4	16.9
기타운송장비	16.9	20.8	15.9	42.1	40.1	22.8	18.4	35.8	54.1	52.1	60.3	60.8	48.4	3.8	7.8
섬유	56.7	58.2	59.0	59.2	58.1	23.1	21.0	20.9	18.8	24.2	20.2	20.7	20.2	22.0	17.6
금속제품	63.4	69.8	76.7	73.6	63.3	16.6	19.6	15.4	18.9	26.0	20.1	10.6	7.9	7.5	10.7
신발	17.3	17.1	16.1	18.6	19.6	74.0	72.3	69.9	70.8	69.2	8.8	10.6	13.9	10.6	11.2
의약품	69.5	84.6	76.9	89.0	88.4	22.7	12.2	7.0	8.8	8.5	7.9	3.2	16.2	2.2	3.1
기타	58.4	56.0	50.3	51.3	55.2	15.8	16.8	22.6	25.3	28.5	25.8	12.7	27.0	23.5	16.3
광업	70.5	74.3	76.4	82.3	80.5	17.9	13.0	13.3	11.4	10.1	11.6	12.7	10.3	6.3	9.4
도소매업	73.5	70.8	67.4	77.2	78.7	6.8	8.2	12.3	7.1	5.8	19.7	21.1	20.3	15.7	15.5
부동산업	94.5	96.8	96.3	96.6	94.7	0.0	0.0	0.1	0.1	4.4	5.5	3.2	3.6	3.3	0.9
전체	67.2	64.4	62.5	68.6	68.9	15.8	17.6	19.5	16.5	16.9	17.0	18.0	18.0	14.8	14.2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구분	현지매출 비중					한국수출 비중					제3국수출 비중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66.8	63.9	61.9	68.9	68.9	15.8	17.6	19.7	16.0	16.3	17.4	18.5	18.4	15.1	14.8
중소기업	72.6	72.8	70.2	65.3	67.4	16.0	17.9	17.5	23.7	23.0	11.3	9.3	12.3	11.0	9.6
기타	75.5	61.7	77.8	74.7	91.3	11.3	13.0	4.6	6.0	5.0	13.2	25.2	17.7	19.2	3.8
전체	67.2	64.4	62.5	68.6	68.9	15.8	17.6	19.5	16.5	16.9	17.0	18.0	18.0	14.8	14.2

제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2부
주제별 심층 분석

제3부
부록

제4부
참고자료

4 매입현황

가. 지역별

(단위: %)

구분	현지매입 비중					한국수입 비중					제3국수입 비중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시아	48.4	44.1	41.5	50.7	50.8	36.3	41.1	42.6	36.2	36.4	15.3	14.8	15.9	13.1	12.7
중국	60.3	58.8	57.0	59.0	62.2	29.1	30.9	33.4	34.3	31.6	10.6	10.3	9.6	6.7	6.1
ASEAN	36.1	30.5	30.7	38.4	38.6	40.6	47.1	46.6	40.9	40.1	23.3	22.5	22.7	20.7	21.3
기타	30.5	35.2	34.9	44.1	47.9	54.2	55.4	54.6	37.8	41.2	15.4	9.4	10.4	18.2	10.9
북미	31.3	26.8	27.8	32.0	27.4	60.8	68.0	67.1	64.1	67.9	7.9	5.1	5.2	3.9	4.6
미국	32.5	27.7	29.2	32.9	28.4	60.2	67.6	66.3	63.9	67.4	7.3	4.7	4.5	3.3	4.2
캐나다	3.9	8.2	4.8	13.6	8.4	75.7	77.1	79.6	69.8	78.5	20.4	14.6	15.5	16.6	13.0
유럽	29.2	30.6	34.1	41.2	36.6	32.1	33.6	34.1	27.1	31.7	38.7	35.8	31.9	31.7	31.7
EU	26.9	28.4	33.9	39.6	36.3	31.6	33.2	32.7	25.5	30.3	41.5	38.4	33.4	34.8	33.4
기타	41.5	41.9	35.4	47.0	37.5	35.2	35.6	41.6	33.1	36.0	23.3	22.5	23.0	20.0	26.5
중남미	39.6	34.9	40.4	44.7	54.3	41.5	44.9	40.1	36.3	33.7	18.9	20.2	19.4	19.0	11.9
기타	31.3	20.1	19.9	34.1	30.5	46.7	56.4	54.3	62.0	61.6	22.0	23.5	25.9	3.8	7.9
전체	40.3	36.9	36.9	43.7	41.6	42.0	46.4	45.8	42.2	44.6	17.7	16.7	17.2	14.2	13.9
선진국	29.6	27.4	30.4	34.9	30.1	50.8	55.3	52.9	50.7	55.0	19.6	17.4	16.8	14.3	14.9
개도국	47.6	43.2	40.8	50.1	51.1	35.9	40.5	41.7	35.9	35.9	16.5	16.3	17.5	14.1	13.1
BRICs	58.1	57.2	54.8	59.1	61.6	30.5	31.7	34.2	33.0	31.9	11.4	11.1	11.0	7.9	6.6

나. 주요 업종별

(단위: %)

구분	현지매입 비중					한국수입 비중					제3국수입 비중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51.1	46.6	45.2	51.1	48.8	33.5	38.5	40.4	36.3	39.0	15.4	14.9	14.4	12.6	12.1
전기전자	28.5	67.7	24.4	31.7	31.9	48.1	24.3	58.8	52.7	54.3	23.4	8.0	16.8	15.6	13.8
자동차	72.2	55.9	66.2	62.9	60.6	22.8	25.0	26.2	30.3	34.2	5.0	19.1	7.5	6.8	5.2
화학	52.4	53.5	55.6	64.5	59.3	23.0	34.3	22.6	18.1	23.4	24.6	12.2	21.8	17.5	17.3
1차금속	51.4	44.6	50.3	47.9	50.3	34.8	39.4	38.0	40.0	38.0	13.8	16.1	11.7	12.1	11.7
전기장비	74.2	61.7	60.4	41.6	36.8	20.8	32.8	34.1	38.3	41.2	5.0	5.5	5.5	20.1	22.0
기타기계	39.9	71.2	31.1	55.4	57.0	43.3	7.8	45.9	39.7	38.9	16.7	20.9	23.0	4.9	4.1
식료품	37.0	40.8	50.1	82.4	68.2	33.6	46.9	36.8	5.9	9.4	29.4	12.3	13.1	11.7	22.4
고무/플라스틱	58.0	60.6	38.5	50.8	53.7	27.4	10.4	45.2	35.0	39.1	14.6	29.1	16.3	14.1	7.2
의복	49.2	34.6	76.4	51.2	53.6	15.2	48.1	7.9	11.4	7.2	35.5	17.3	15.7	37.4	39.2
기타운송장비	73.9	59.9	76.0	62.6	56.0	7.2	12.6	8.4	35.7	36.3	18.9	27.5	15.6	1.7	7.7
섬유	62.0	61.1	59.6	63.2	59.1	11.4	31.8	11.9	12.7	12.7	26.7	7.1	28.5	24.1	28.1
금속제품	65.1	53.5	68.2	73.0	59.7	27.1	32.0	23.5	19.6	30.4	7.8	14.5	8.2	7.4	9.9
신발	52.9	86.3	41.4	45.3	46.0	19.1	8.7	15.4	33.2	30.7	28.0	4.9	43.2	21.5	23.2
의약품	50.5	53.7	51.5	82.9	75.5	40.3	21.2	25.3	7.8	10.5	9.2	25.1	23.1	9.4	13.9
기타	54.4	90.1	58.0	52.3	50.1	20.2	9.5	21.7	27.3	30.1	25.3	0.3	20.3	20.3	19.8
광업	91.1	21.7	88.1	96.6	91.1	8.7	58.1	11.6	0.6	7.5	0.2	20.3	0.3	2.8	1.3
도소매업	25.0	99.1	23.5	27.4	23.4	53.6	0.0	54.3	55.9	59.8	21.4	0.9	22.2	16.8	16.8
부동산업	98.2	81.6	98.6	98.9	97.6	0.0	11.9	0.5	0.9	1.0	1.8	6.5	0.9	0.2	1.4
전체	40.3	36.9	36.9	43.7	41.6	42.0	46.4	45.8	42.2	44.6	17.7	16.7	17.2	14.2	13.9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구분	현지매입 비중					한국수입 비중					제3국수입 비중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38.8	35.7	35.6	42.5	39.9	42.9	47.3	46.8	43.2	46.0	18.2	17.1	17.6	14.3	14.1
중소기업	64.9	61.4	60.1	57.8	57.5	25.6	30.0	29.8	30.9	30.8	9.5	8.6	10.1	11.3	11.7
기타	72.5	53.0	67.0	62.4	79.9	17.7	18.5	12.9	15.1	9.9	9.7	28.5	20.1	22.5	10.2
전체	40.3	36.9	36.9	43.7	41.6	42.0	46.4	45.8	42.2	44.6	17.7	16.7	17.2	14.2	13.9

5 수출입 효과

가. 수출액 및 수입액

(1)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시아	96,939	124,109	122,804	84,575	71,574	92,024	113,141	113,054	90,590	80,346
중국	42,020	42,322	37,224	35,791	28,321	58,233	62,452	51,986	54,749	42,229
ASEAN	34,143	54,628	63,371	35,766	30,428	29,640	46,725	57,148	31,784	35,025
기타	20,776	27,159	22,210	13,018	12,825	4,151	3,964	3,921	4,057	3,092
북미	73,077	85,032	62,952	76,810	77,158	2,218	2,554	3,283	4,534	3,510
미국	69,315	80,899	58,592	73,057	73,034	2,085	2,291	3,005	4,263	3,371
캐나다	3,763	4,133	4,360	3,753	4,124	133	263	278	271	138
유럽	26,792	32,383	31,204	22,593	24,196	2,420	3,254	3,372	3,899	4,202
EU	22,299	26,654	25,527	16,814	17,294	2,374	3,195	3,315	3,800	3,842
기타	4,493	5,730	5,677	5,780	6,903	47	59	57	99	361
중남미	7,304	9,957	9,001	9,151	6,605	610	1,190	843	896	769
기타	7,922	8,520	8,286	5,030	4,742	1,611	1,757	2,046	2,249	1,006
전체	212,034	260,002	234,248	198,159	184,275	98,883	121,895	122,599	102,168	89,833
선진국	104,221	122,382	99,321	101,075	103,414	6,217	7,536	8,406	10,320	8,745
개도국	107,813	137,620	134,927	97,084	80,861	92,666	114,358	114,193	91,848	81,088
BRICs	49,720	52,373	45,767	47,222	38,096	58,698	63,157	52,772	55,627	43,108

(2) 주요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84,163	107,091	105,395	101,274	97,988	77,291	94,113	87,158	83,350	76,495
전기전자	41,063	21,197	58,602	41,316	38,380	54,864	68,466	61,694	51,196	43,591
자동차	20,047	3,429	18,474	29,779	29,962	1,748	1,864	1,959	2,606	2,974
화학	2,654	5,380	3,544	2,927	3,712	555	736	764	2,046	833
1차금속	4,088	7,919	7,072	7,236	5,625	807	1,630	1,478	1,695	1,060
전기장비	1,155	1,666	1,802	8,344	9,216	6,312	7,201	5,994	7,518	10,921
기타기계	8,191	226	8,478	2,977	3,055	1,507	1,854	2,031	1,933	1,935
식료품	1,500	1,611	206	257	337	181	220	111	723	834
고무/플라스틱	863	318	1,070	1,160	1,159	324	421	413	511	506
의복	401	1,212	194	373	233	2,460	2,812	2,716	2,857	2,328
기타운송장비	192	241	705	419	364	919	640	747	864	753
섬유	190	1,589	287	332	284	726	784	763	736	832
금속제품	1,513	1,081	1,652	1,659	1,405	1,636	1,860	1,690	1,981	1,738
신발	488	25	1,139	1,617	1,348	3,524	3,684	3,793	5,033	4,421
의약품	55	1,616	76	2,564	41	97	110	84	1,802	87
기타	1,327	444	2,094	314	2,869	1,631	1,832	2,920	1,849	3,683
광업	367	146,559	632	27	361	1,793	1,918	2,386	2,255	1,167
도소매업	122,398	0	118,579	92,817	82,523	17,589	23,087	29,591	13,662	9,300
전체	212,034	260,002	234,248	198,159	184,275	98,883	121,895	122,599	102,168	89,933

(3)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205,112	251,718	226,340	187,643	173,576	92,523	114,365	115,772	90,651	78,256
중소기업	6,569	7,987	7,618	10,148	10,512	5,898	7,098	6,636	11,263	11,408
기타	352	296	290	368	187	462	432	191	254	169
전체	212,034	260,002	234,248	198,159	184,275	98,883	121,895	122,599	102,168	89,833

제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2부
주제별 심층 분석

제3부
부록

제4부
참고자료

나. 수출입 유발효과

(1)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수출액					무역수지 개선효과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시아	4,916	10,968	9,750	△6,015	△8,772	6.3	13.9	13.2	△6.8	△9.5
중국	△16,213	△20,130	△14,762	△18,958	△13,908	△41.0	△50.9	△38.8	△42.0	△29.5
ASEAN	4,503	7,903	6,223	3,983	△4,597	18.2	30.2	25.4	13.1	△13.5
기타	16,625	23,195	18,289	8,960	9,733	124.1	179.3	166.2	66.3	89.6
북미	70,859	82,478	59,669	72,276	73,649	150.4	159.8	100.8	133.7	119.0
미국	67,230	78,608	55,587	68,794	69,663	169.3	177.4	107.7	148.3	127.0
캐나다	3,630	3,870	4,082	3,482	3,985	49.0	53.0	54.0	45.3	56.6
유럽	24,372	29,130	27,832	18,694	19,994	99.4	100.7	105.8	68.6	73.5
EU	19,925	23,459	22,213	13,013	13,452	114.8	110.7	105.4	59.8	77.8
기타	4,446	5,671	5,620	5,681	6,542	62.1	73.3	107.6	104.0	66.0
중남미	6,694	8,767	8,158	8,256	5,836	51.0	66.1	71.7	61.6	49.2
기타	6,310	6,763	6,240	2,781	3,735	31.3	34.3	37.6	12.7	18.3
전체	113,151	138,107	111,649	95,991	94,442	62.0	71.9	59.7	46.7	44.3
선진국	98,004	114,845	90,915	90,755	94,669	125.1	132.2	98.9	99.7	96.1
개도국	15,147	23,261	20,735	5,236	△227	14.5	22.1	21.8	4.6	△0.2
BRICs	△8,978	△10,784	△7,004	△8,406	△5,012	△18.8	△22.3	△14.9	△15.1	△8.9

(2) 주요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수출액					무역수지 개선효과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6,872	12,979	18,237	17,925	21,492	9.0	16.6	23.8	18.6	21.6
전기전자	△13,802	△47,269	△3,092	△9,880	△5,211	△80.7	△48.5	△16.1	△42.2	△21.8
자동차	18,299	1,565	16,515	27,172	26,988	139.5	129.0	104.8	130.3	131.2
화학	2,099	4,644	2,780	881	2,879	29.8	41.3	37.8	10.5	29.5
1차금속	3,281	6,289	5,594	5,541	4,565	42.3	50.0	66.7	57.6	47.9
전기장비	△352	△5,535	2,484	827	△1,705	△5.6	17.9	66.2	12.8	△22.6
기타기계	1,879	△1,627	△229	1,044	1,120	46.7	△3.5	△5.5	23.1	25.8
식료품	1,177	1,392	95	△466	△497	35.2	0.3	4.7	△14.2	△11.7
고무/플라스틱	△56	△102	657	649	653	△1.5	44.5	38.2	19.4	22.7
의복	△2,059	△1,600	△2,522	△2,483	△2,096	△107.4	△121.6	△139.1	△101.4	△79.4
기타운송장비	11	△399	△42	△445	△389	0.4	15.2	△1.8	△17.1	△16.8
섬유	△536	805	△477	△404	△548	△37.6	△31.4	△28.0	△19.4	△26.2
금속제품	△123	△779	△38	△322	△334	△7.8	△17.8	△2.6	△17.4	△18.7
신발	△118	△3,659	△2,654	△3,416	△3,073	△8.6	△237.5	△253.9	△230.4	△196.2
의약품	△42	1,505	△8	△68	△46	△7.6	△10.8	△0.9	△7.4	△3.7
기타	△304	△1,388	△826	△705	△815	△6.4	△4.1	△16.0	△13.7	△16.0
광업	△1,426	144,640	△1,754	△2,228	△806	△3.6	△3.9	△5.8	△6.2	△2.4
도소매업	104,808	△23,087	88,988	79,155	73,223	366.3	359.3	289.2	265.7	261.1
전체	113,151	138,107	111,649	95,991	94,442	62.0	71.9	59.7	46.6	44.3

(3)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수출					무역수지 개선효과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112,589	137,353	110,569	96,993	95,320	71.0	82.6	72.8	55.3	54.3
중소기업	672	890	982	△1,115	△896	3.7	4.3	3.2	△4.2	△2.6
기타	△110	△136	98	114	18	△1.9	△2.5	2.0	2.9	0.6
전체	113,151	138,107	111,649	95,991	94,442	62.0	71.9	59.7	46.6	44.3

제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2부
주제별 심층 분석

제3부
부록

제4부
참고자료

6 주요 재무비율

가.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1) 지역별

(단위: %)

구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시아	131.6	124.7	114.8	116.6	113.0	25.0	22.0	21.0	22.1	20.7
중국	115.5	104.0	98.1	105.8	111.6	20.5	15.4	14.9	17.1	17.1
ASEAN	158.8	161.0	130.1	123.9	104.4	33.4	32.4	27.2	27.4	23.6
기타	153.2	148.4	162.9	153.7	153.1	24.9	24.6	30.3	30.0	29.8
북미	196.2	176.3	122.8	189.0	171.5	36.4	34.8	21.4	32.1	28.8
미국	202.7	179.9	121.7	192.2	169.9	36.8	35.1	20.4	32.1	29.6
캐나다	116.6	127.7	135.5	147.6	201.7	30.1	30.5	31.6	32.2	15.2
유럽	199.4	177.2	142.4	155.0	151.5	21.6	16.8	17.8	23.1	24.0
EU	156.3	138.8	129.4	150.7	141.7	17.6	14.4	12.7	20.7	23.1
기타	414.7	370.0	211.2	171.6	178.5	31.5	23.0	37.6	31.9	26.3
중남미	245.5	180.3	213.0	217.2	338.2	43.5	37.6	38.1	38.0	37.3
기타	277.7	308.4	178.7	160.8	192.5	50.7	52.4	40.0	42.4	43.1
전체	166.3	152.0	128.0	144.3	141.7	30.4	27.0	22.8	27.1	25.3
선진국	188.7	172.5	126.5	165.9	162.8	33.3	30.3	20.4	29.2	27.9
개도국	153.9	141.0	128.8	131.8	128.4	28.6	25.1	24.2	25.6	23.4
BRICs	123.6	108.7	103.6	113.4	122.4	22.2	17.2	17.0	18.9	18.6

(2) 업종별

(단위: %)

구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134.4	122.7	113.3	142.5	152.3	23.7	22.5	22.9	28.8	28.6
전기전자	86.6	85.2	79.1	80.8	97.9	12.5	14.9	15.3	18.0	19.4
자동차	163.1	168.9	166.7	242.8	278.5	19.6	22.2	23.8	37.3	37.8
화학	101.8	71.3	69.3	81.7	84.0	27.1	18.9	23.4	18.9	22.5
1차금속	209.0	237.4	237.7	224.8	192.1	46.0	47.5	45.4	45.4	39.2
전기장비	146.4	118.5	115.2	149.7	131.0	22.9	17.3	17.3	24.0	23.2
기타기계	152.1	92.1	74.5	120.8	102.0	29.1	16.4	13.9	17.9	17.0
식료품	105.3	105.5	153.4	150.7	67.4	30.8	30.9	39.6	38.1	22.5
고무/플라스틱	119.6	154.0	159.9	85.7	139.5	32.9	35.4	38.1	27.0	34.5
의복	154.6	168.9	137.8	135.2	152.8	24.0	27.1	21.0	20.0	25.0
기타운송장비	자본잠식	3,168.2	403.9	자본잠식	1181.8	62.5	36.8	31.2	56.8	34.1
섬유	112.3	113.5	138.8	142.0	127.9	31.8	33.2	33.7	39.2	36.4
금속제품	455.7	219.4	236.3	297.2	252.7	27.8	24.2	28.2	28.7	19.6
신발	168.9	16.04	163.6	172.1	155.7	31.8	32.4	32.1	31.4	30.8
의약품	37.7	30.2	27.3	37.7	39.5	12.5	6.0	5.8	8.9	7.7
기타	95.7	89.7	95.7	99.6	106.8	23.6	22.3	23.0	23.3	22.2
광업	123.2	122.9	127.1	149.8	117.7	39.6	39.3	38.9	36.7	29.5
도소매업	252.2	222.5	158.8	132.5	132.9	32.4	23.4	5.9	6.4	5.9
부동산업	109.9	124.9	113.3	126.1	105.5	41.0	41.6	41.7	46.3	41.3
정보통신업	79.3	84.6	105.7	125.4	73.9	13.6	17.7	23.3	22.0	15.0
전기가스공급업	228.3	162.2	52.5	205.2	684.1	4.1	4.4	12.1	49.6	55.2
건설업	자본잠식	자본잠식	1465.6	961.5	174.1	68.1	72.9	58.8	56.0	39.2
전문과학기술업	99.9	143.6	111.0	69.3	52.5	42.5	44.2	45.3	15.9	11.5
숙박음식점업	110.7	127.6	148.1	140.8	109.7	39.2	43.9	44.8	43.8	37.3
기타	294.0	298.4	177.7	145.9	152.3	52.6	50.2	35.5	32.1	31.7
전체	166.3	152.0	128.0	144.3	141.7	30.4	27.0	22.8	27.1	25.3

(3)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구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167.6	154.8	128.1	146.5	145.9	30.3	27.0	22.4	27.1	25.4
중소기업	142.5	118.6	137.2	143.9	128.5	26.5	22.8	25.2	27.8	25.6
기타	203.7	178.8	95.2	66.4	55.6	48.6	49.3	32.5	20.5	16.1
전체	166.3	152.0	128.0	144.3	141.7	30.4	27.0	22.8	27.1	25.3

제 1부
2020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

제 3부
부록

제 4부
참고자료

나. 이자보상배율 및 유동비율

(1) 지역별

(단위: %, 배)

구분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시아	5.5	6.6	5.0	2.8	2.8	122.9	125.8	134.4	125.9	133.8
중국	8.5	7.8	5.3	2.9	2.7	125.7	134.3	138.4	125.7	129.8
ASEAN	2.9	5.4	5.5	2.8	2.7	112.4	108	126.4	125.6	144.9
기타	3.7	7.6	3.1	2.3	3.6	131.2	132.7	136.1	127.4	127.4
북미	1.0	0.4	1.4	0.7	1.2	183.3	170.3	118.6	156.7	170.7
미국	1.1	0.1	1.5	0.7	1.2	188.7	173.6	117.5	158	173.7
캐나다	영업적자	3.0	1.1	0.7	1.0	72.4	92.4	141.7	125.6	117.2
유럽	3.8	6.2	5.5	4.4	3.0	124.8	123.3	141	146.8	144.9
EU	4.9	6.1	5.7	5.2	4.9	133.2	130.4	141.1	143.7	143.7
기타	1.6	6.4	5.1	3.2	0.6	110.3	111	140.7	160.3	148.1
중남미	영업적자	4.0	2.4	2.4	2.1	122.1	123.2	117.4	121.7	97.6
기타	0.0	1.4	3.8	3.8	△2.5	90.9	108.3	110	116.7	117.3
전체	2.8	4.1	3.8	2.5	1.8	134.9	133.8	130.5	135.8	142.6
선진국	1.8	1.9	2.5	2.5	2.8	162.8	152	130.1	151	158.4
개도국	3.3	5.4	4.4	2.6	2.7	120.1	124	130.7	126.2	131.6
BRICs	6.9	8.2	5.6	3.6	2.7	128.2	137.7	142.6	131.7	130.5

(2) 업종별

(단위: %, 배)

구분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5.3	6.6	4.6	2.7	2.4	122.9	129.1	136.3	142.8	145.7
전기전자	6.8	22.8	15.9	8.9	5.2	153.3	163.0	178.0	167.6	147.0
자동차	12.6	3.9	2.8	1.9	영업적자	127.9	121.4	121.3	160.5	166.8
화학	5.2	10.2	6.3	3.5	3.4	110.0	138.1	148.6	123.3	141.0
1차금속	0.6	0.9	1.8	0.2	0.6	104.0	101.3	101.9	100.9	110.4
전기장비	4.0	4.2	3.0	5.2	11.1	133.5	144.7	137.7	117.0	117.8
기타기계	3.8	3.7	5.0	5.6	6.2	117.7	124.1	138.5	138.0	158.1
식료품	4.4	3.0	1.8	2.3	4.9	139.3	110.3	113.9	110.1	143.1
고무/플라스틱	4.6	2.3	3.1	5.9	3.1	93.3	87.4	95.2	118.8	102.1
의복	0.7	0.9	0.6	2.2	영업적자	117.3	115.2	112.4	125.8	129.2
기타운송장비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43.1	62.1	71.8	83.2	109.3
섬유	3.3	4.3	0.9	0.3	1.4	111.6	96.9	105.6	100.4	102.8
금속제품	3.1	10.8	2.6	0.9	3.8	78.0	107.0	110.9	95.8	104.6
신발	4.0	4.5	2.4	3.8	2.5	88.1	90.5	92.2	89.6	93.6
의약품	영업적자	7.7	22.9	영업적자	영업적자	219.4	290.5	304.2	247.9	243.8
기타	3.1	4.2	3.5	3.0	2.3	135.1	140.1	133.3	132.6	130.4
광업	영업적자	3.3	4.8	3.2	영업적자	99.8	106.6	127.1	95.3	137
도소매업	4.5	2.5	5.5	6.3	7.6	162	149.8	124	133.3	139.1
부동산업	1.0	1.4	0.6	1.0	0.4	157	158.3	108.8	130.8	105
정보통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0.0	영업적자	174	149.8	184.9	141.1	144.3
전기가스공급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1.4	1.6	118.5	116	157.2	112.6	115.1
건설업	영업적자	0.6	2.4	영업적자	1.0	75.9	78.7	104.4	94.2	148.1
전문과학기술업	1.7	5.2	1.9	영업적자	영업적자	108.1	101.8	91	157.9	220.9
숙박음식점업	2.4	영업적자	영업적자	2.3	영업적자	119.4	88.1	151.8	140.5	110.1
기타	1.2	1.5	2.0	영업적자	2.4	113.1	111.8	106.5	97.7	126.2
전체	2.8	4.1	3.8	2.5	1.8	134.9	133.8	130.5	135.8	142.6

(3)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배)

구분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2.9	4.5	4.2	2.8	2.1	136.6	134.7	131.3	137.9	145.1
중소기업	2.3	1.8	0.3	0.7	0.6	118.7	123.5	119.6	114.4	117.9
기타	1.1	0.3	2.1	영업적자	영업적자	110.4	122.1	151.6	151.8	190.6
전체	2.8	4.1	3.8	2.5	1.8	134.9	133.8	130.5	135.8	142.6

7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연도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시아	9,251	10,123	7,218	6,268	6,542	11.9	12.9	9.8	7.0	7.1
중국	6,945	4,425	3,579	2,663	2,964	17.6	11.2	9.4	5.9	6.3
ASEAN	2,087	4,331	3,053	2,761	2,884	8.4	16.5	12.4	9.1	8.5
그 외	220	1,367	586	845	695	1.6	10.6	5.3	6.3	6.4
북미	674	673	146	1,330	423	1.4	1.3	0.2	2.5	0.7
미국	878	711	297	1,394	872	2.2	1.6	0.6	3.0	1.6
캐나다	△204	△38	△151	△64	△448	△2.8	△0.5	△2.0	△0.8	△6.4
유럽	2,521	3,239	2,610	3,089	1,978	10.3	11.2	9.9	11.3	7.3
EU	1,760	2,516	1,905	2,121	1,833	10.1	11.9	9.0	9.7	10.6
그 외	761	723	705	968	146	10.6	9.3	13.5	17.7	1.5
중남미	189	1,380	354	907	△118	1.4	10.4	3.1	6.8	△1.0
기타	△1,605	△1,186	559	△102	△839	△8.0	△6.0	3.4	△0.5	△4.1
전체	11,029	14,229	10,887	11,492	7,987	6.0	7.4	5.8	5.6	3.7
선진국	2,042	2,046	2,372	3,434	1,219	2.6	2.4	2.6	3.8	1.2
개도국	8,987	12,183	8,515	8,058	6,768	8.6	11.6	8.9	7.0	5.9
BRICs	8,748	7,225	5,037	4,891	4,096	18.3	14.9	10.7	8.8	7.2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연도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11,264	13,455	8,332	8,658	7,060	14.8	17.2	10.9	9.0	7.1
전기전자	5,396	7,703	6,255	3,838	3,800	31.6	42.1	32.5	16.4	15.9
자동차	3,999	3,279	1,952	2,961	1,020	30.5	21.9	12.4	14.2	5.0
화학	481	740	561	486	493	6.8	11.3	7.6	5.8	5.1
1차금속	△36	△150	△96	△659	△294	△0.5	△2.0	△1.1	△6.8	△3.1
전기장비	644	89	160	911	1,097	16.0	16.5	16.5	14.1	14.6
기타기계	261	662	621	277	199	4.2	1.7	3.8	6.1	4.6
식료품	242	255	91	-21	276	9.6	4.9	0.1	△0.6	6.5
고무/플라스틱	457	32	△1,384	220	120	13.7	9.5	5.3	6.6	4.2
의복	△11	△19	△41	11	△99	-0.6	-0.9	-2.3	0.5	△3.8
기타운송장비	△714	131	2	388	59	-19.0	0.9	-59.9	14.9	2.6
섬유	125	131	9	△50	74	8.8	7.6	0.5	△2.4	3.5
금속제품	135	335	91	△37	179	8.6	22.0	6.3	-2.0	10.1
신발	83	130	243	155	46	8.7	8.3	1.4	10.5	2.9
의약품	△5	45	△147	△76	△113	-0.8	-1.6	-9.8	△8.3	△9.2
기타	205	91	15	255	202	4.3	3.5	3.5	5.0	4.0
광업	△2,306	△1,527	△78	△752	△2,607	△5.8	△4.1	△0.3	△2.1	△7.8
도소매업	1,807	1,702	2,597	3,793	3,647	6.3	5.0	8.4	12.7	13.0
부동산업	181	223	△269	395	353	1.7	1.9	△2.2	2.9	2.0
정보통신업	37	14	△248	28	△507	1.1	0.2	△4.2	0.4	△6.0
전기가스공급업	△520	△98	344	△589	219	△9.6	△1.8	5.3	△8.9	3.7
건설업	297	△12	△115	159	202	11.0	△0.3	△0.9	4.4	4.4
전문과학기술업	154	274	205	△10	△117	3.5	5.7	7.0	△0.2	△2.8
숙박음식점업	△18	△83	△121	50	△220	△0.7	△3.0	△6.2	1.8	△5.5
기타	134	279	241	△239	△43	1.5	3.9	3.5	△3.9	△0.6
전체	11,029	14,229	10,887	11,492	7,987	6.0	7.4	5.8	5.6	3.7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연도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10,041	13,846	11,163	10,783	7,318	6.3	8.3	7.3	6.2	4.2
중소기업	1,135	304	△297	522	602	6.2	1.5	△1.0	2.0	1.7
기타	△147	79	21	188	66	△2.5	1.4	0.4	4.8	2.2
전체	11,029	14,229	10,887	11,492	7,987	6.0	7.4	5.8	5.6	3.7

IV

2020 회계연도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경영분석

1 개요

가. 분석 배경

- 국내 금융시장 경쟁 심화, 금융규제 완화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2020년 금융보험업 투자액은 185억 달러로 업종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금융보험업 영위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필요성이 높음.
- 그러나 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현지법인과 손익구조 및 성과지표 등이 크게 상이하여, 재무제표의 단순 비교분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은 본 파트에서 별도로 분석하고자 함.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⁴ 현황

- 분석대상 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은 총 182개사로 2020년 말 기준 투자잔액은 164억 달러
- 총 204개의 현지법인(투자잔액 168억 달러)이 자료수집 대상이었으나, 청산, 미결산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현지법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잔액 기준 은행업이 51억 달러로 31.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증권중개업이 15억 달러로 9.0%, 보험업이 12억 달러로 7.7%를 차지

4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금융기관투자자의 투자잔액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에 대하여 현지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 보고서로 분석함.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업종별⁵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은행업	29	5,100	31.1
증권중개업	19	1,470	9.0
보험업	22	1,267	7.7
금융리스업	12	744	4.5
기타 ⁶	100	7,807	47.6
전체	182	16,388	100.0

- ◎ 지역별로 살펴보면, 투자잔액 기준 아시아가 122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74.2%)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 지역이 23.8억 달러(14.5%), 북미 지역이 9.2억 달러(5.6%), 중남미 지역이 9.2억 달러(5.6%)를 차지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 비중
아시아	125	12,162	74.2
유럽	22	2,378	14.5
북미	24	923	5.6
중남미	10	919	5.6
대양주	1	7	0.0
전체	182	16,388	100.0

5 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국내은행, 외국은행, 상호저축은행을,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재보험업을 포함.

6 기타는 자산운용회사, 투자 자문업, 기타 투자기관 포함.

2 경영성과

가. 재무현황

(1) 업종별 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자산규모는 2,483억 달러이며, 부채총계는 2,180억 달러, 자본총계는 303억 달러 수준을 기록
- 총 자산규모는 은행업(1,629억 달러), 금융리스업(125억 달러), 보험업(105억 달러), 증권중개업(25억 달러)순으로 높았음.
- 분석대상 전체 현지법인의 자기자본비율⁷은 12.2%을 기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증권중개업(66.5%), 보험업(24.5%), 금융리스업(15.8%), 은행업(8.7%) 순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주요 업종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 달러)

	은행업	증권중개업	보험업	금융리스업	전체
자산총계	162,900	2,450	10,517	12,514	248,349
현금및예치금	18,863	607	1,800	1,682	30,719
유가증권	16,609	911	5,646	177	30,069
부채총계	148,792	822	7,936	10,536	218,042
예수부채	125,766	178	-	26	160,749
차입부채	12,848	450	169	8,523	35,321
자본총계	14,108	1,629	2,580	1,979	30,308
자본금	5,682	1,428	2,349	1,714	16,992

(2) 지역별 현황

- 지역별로 현지법인의 자산규모를 분석하면 아시아 2,234억 달러, 유럽 155억 달러, 북미 77억 달러, 중남미 18억 달러 순
- 자기자본비율은 북미(24.3%), 중남미(18.7%), 유럽(15.2%), 아시아(11.7%) 순

7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주요 지역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전체
자산총계	223,375	15,494	7,685	1,785	248,349
현금및예치금	28,024	1,645	891	156	30,719
유가증권	27,776	1,364	465	457	30,069
부채총계	197,303	13,140	6,248	1,350	218,042
예수부채	152,126	2,958	5,294	371	160,749
차입부채	24,136	9,388	848	949	35,321
자본총계	26,072	2,355	1,437	434	30,308
자본금	14,742	849	895	498	16,992

나. 손익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영업수익 167억 달러, 영업이익 16억 달러, 당기순이익 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⁸은 0.51% 시현

(1) 업종별 현황

- 영업수익 규모는 은행업(87억 달러), 보험업(33억 달러), 금융리스업(8억 달러), 증권중개업(4억 달러) 순을 기록
- 당기순이익 규모로는, 은행업(5.0억 달러), 금융리스업(1.0억 달러), 보험업(0.7억 달러), 증권중개업(0.6억 달러) 순을 기록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주요 업종별 손익현황⁹

(단위: 백만 달러)

	은행업	증권중개업	보험업	금융리스업	전체
영업수익	8,733	368	3,293	765	16,672
영업비용	8,129	291	3,204	608	15,042
영업이익	605	77	89	157	1,631
당기순이익	496	62	72	103	1,264
ROA	0.30%	2.54%	0.68%	0.82%	0.51%

8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산총계

9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보험료수익,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이익 포함.

(2) 지역별 현황

-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체 영업수익의 89.2%에 달하는 149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11.8억 달러), 북미(4.0억 달러), 중남미(2.1억 달러) 순
- 당기순이익 규모로는, 아시아(11.3억 달러), 북미(93백만 달러), 유럽(26백만 달러), 중남미(15백만 달러) 순
- ◎ ROA는 북미 지역이 1.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남미(0.83%), 아시아(0.51%), 유럽(0.17%) 순
- 분석대상 현지법인 중 흑자 법인의 비중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으며(69.4%), 그 뒤를 이어 북미(13.4%), 유럽(10.5%), 중남미(6.0%)순을 기록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주요 지역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전체
영업수익	14,878	1,182	401	210	16,672
영업비용	13,463	1,109	296	173	15,042
영업손익	1,415	73	104	37	1,631
당기순이익	1,129	26	93	15	1,264
ROA	0.51%	0.17%	1.22%	0.83%	0.51%



236	1. 한국표준산업분류
241	2. 지역 분류표
246	3.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한국표준산업분류¹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	농업	Agriculture
02	임업	Forestry
03	어업	Fishing
B 광업 (05~08) Mining and quarrying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광업	Mining of coal,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6	금속광업	Mining of metalores
07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	Mining of non-metallic minerals, except fuel
08	광업지원서비스업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C 제조업 (10~34) Manufacturing		
10	식품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11	음료제조업	Manufacture of beverages
12	담배제조업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
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제조업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fur articles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Manufacture of leather, luggage and footwear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oke, briquette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and medicinal chemicals

1 소분류 및 세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내 통계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botanical products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24	1차금속 제조업	Manufacture of basic metals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sual, sound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28	전기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32	가구 제조업	Manufacture of furniture
33	기타 제품 제조업	Other manufacturing
3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36	수도업	Water supply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sewage, wastewater, human and animal waste treatment services
3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Waste collection, treatment and disposal activities; materials recovery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Remediation activities and other waste management services
F 건설업 (41~42) Construction		
41	종합건설업	General construction
42	전문직별공사업	Specialized construction activities

G 도매 및 소매업 (45~47) Wholesale and retail trade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Sale of motor vehicles and parts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Wholesale trade on own account or on a fee or contract basis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H 운수 및 창고업 (49~52) Transportation and storage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via pipelines
50	수상 운송업	Water transport
51	항공 운송업	Air transport
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55	숙박업	Accommodation
56	음식점 및 주점업	Food and beverage service activities
J 정보통신업 (58~6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8	출판업	Publishing activities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60	방송업	Broadcasting activities
61	우편 및 통신업	Postal activities and telecommunications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63	정보 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K 금융 및 보험업 (64~66)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64	금융업	Financial services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5	보험 및 연금업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L 부동산업 (68) Real estate activities		
68	부동산업	Real estate activities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70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71	전문 서비스업	Professional services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74	사업 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landscape services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Business support services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Renting and leasing activities; except real estate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P 교육 서비스업 (85) Education		
85	교육서비스업	Education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86	보건업	Human health activities
87	사회복지서비스업	Social work activities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reative, a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Sports activities and amusement activities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94	협회 및 단체	Membership organizations

9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Maintenanceandrepairservicesofpersonalandhouseholdgoods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Otherpersonalservicesactivities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and services-producing activities of households for own use		
97	가구내 고용활동	Privatehouseholdsasemployersofdomesticpersonnel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ndifferentiatedgoods-and-services-producingactivities ofprivatehouseholdsforownuse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99	국제 및 외국기관	Activitiesofextraterritorialorganizationsandbodies

지역 분류표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1. 아시아	Asia	태국	Thailand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동티모르	Timor-Leste
방글라데시	Bangladesh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부탄	Bhutan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베트남	Vietnam
캄보디아	Cambodia	합 계	30개국
중 국	China	2. 대양주	Oceania
홍 콩	Hong Kong SAR, China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인 도	India	피 지	Fiji
인도네시아	Indonesia	뉴질랜드	New Zealand
일 본	Japan	파푸아 뉴기니	Papua New Guinea
카자흐스탄	Kazakstan	사모아	Samoa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솔로몬제도	Solomon Islands
라오스	Laos	통 가	Tonga
마카오	Macao	바누아투	Vanuatu
말레이시아	Malaysia	서사모아	Western Samoa
몰디브	Maldives	미국령 사모아	American Samoa
몽 골	Mongolia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French Polynesia
미얀마	Myanmar	괌	Guam
네 팔	Nepal	키리바시	Kiribati
파키스탄	Pakistan	마셜제도	Marshall Islands
필리핀	Philippines	미크로네시아연방	Micronesia
싱가포르	Singapore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스리랑카	Sri Lanka	북마리아나	Northern Mariana
대 만	Taiwan, China	팔라우	Palau
타지키스탄	Tajikistan	투발루	Tuvalu
		합 계	19개국

* 아세안(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3. 북 미	North America	멕시코	Mexico
캐나다	Canada	니카라과	Nicaragua
미 국	U.S.A.	파나마	Panama
그린란드	Greenland	파라과이	Paraguay
생피에르미클론	St. Pierre and Miquelon	페 루	Peru
합 계	4개국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4. 중남미	Latin America	세인트킷츠네비스	St. Kitts and Nevis
앤티가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세인트루시아	St. Lucia
아르헨티나	Argentin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아루바	Aruba	수리남	Suriname
바하마	Bahamas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바베이도스	Barbados	우루과이	Uruguay
벨리즈	Belize	베네수엘라	Venezuela
버뮤다	Bermuda	프랑스령기아나	French Guiana
볼리비아	Bolivia	과데로프	Guadeloupe
브라질	Brazil	마르티니크	Martinique
케이만군도	Cayman Islands	미국령버진제도	Virgin Islands(U.S)
칠 레	Chile	영국령버진제도	Virgin Islands(U.K)
콜롬비아	Colombia		
코스타리카	Costa Rica		
쿠 바	Cuba		
도미니카연방	Dominica, Commonwealth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에콰도르	Ecuador		
엘살바도르	El Salvador		
그레나다	Grenada		
과테말라	Guatemala		
가이아나	Guyana		
아이티	Haiti		
온두라스	Honduras		
자메이카	Jamaica		
		합 계	42개국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5. 유 럽	Europe	노르웨이	Norway
알바니아	Albania	폴란드	Poland
아르메니아	Armenia	포르투갈	Portugal
오스트리아	Austria	루마니아	Romania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러시아연방	Russia
건지	Bailwick of Guernsey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벨라루시	Belarus	슬로베니아	Slovenia
벨기에	Belgium	스페인	Spain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Herzegovina	스웨덴	Sweden
불가리아	Bulgaria	스위스	Switzerland
크로아티아	Croatia	터 키	Turkey
키프로스	Cyprus	영 국	U. K.
체 코	Czech Republic	우크라이나	Ukraine
덴마크	Denmark	안도라	Andorra
에스토니아	Estonia	채널아일랜드	Channel Islands
핀란드	Finland	패로아일랜드	Faroe Islands
프랑스	France	지브롤터	Gibraltar
그루지야	Georgia	맨아일	Isle of Man
독 일	Germany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그리스	Greece	모나코	Monaco
헝가리	Hungary	몬테네그로	Montenegro
아이슬란드	Iceland	산마리노	San Marino
아일랜드	Ireland		
이탈리아	Italy		
라트비아	Latvia		
리투아니아	Lithuania		
룩셈부르크	Luxembourg		
마케도니아	Macedonia		
몰 타	Malta		
몰도바	Moldova		
네덜란드	Netherlands		
		합 계	52개국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6. 아프리카	Africa	말 리	Mali
알제리	Algeria	모리타니	Mauritania
앙골라	Angola	모리셔스	Mauritius
베냉	Benin	모로코	Morocco
보츠와나	Botswana	모잠비크	Mozambique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나미비아	Namibia
부룬디	Burundi	니제르	Niger
카메룬	Cameroon	나이지리아	Nigeria
카보베르데	Cape Verde	르완다	Rwand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	상투메프린시페	Sao Tome and Principe
차드	Chad	세네갈	Senegal
코모로	Comoros	세이셸	Seychelles
콩고인민공화국	Congo, Rep.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콩고민주공화국	Congo, Democratic Rep.	소말리아	Somalia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지부티	Djibouti	세인트헬레나	St. Helena
이집트	Egypt	수단	Sudan
적도기니	Equatorial Guinea	스와질란드	Swaziland
에리트리아	Eritrea	탄자니아	Tanzania
에디오피아	Ethiopia	토고	Togo
가봉	Gabon	튀니지	Tunisia
감비아	Gambia	우간다	Uganda
가나	Ghana	자이르	Zaire
기니	Guinea	잠비아	Zambia
기니비사우	Guinea-Bissau	짐바브웨	Zimbabwe
케냐	Kenya	마요트	Mayotte
레소토	Lesotho	레위니옹	Réunion
라이베리아	Liberia	남수단	Republic of South Sudan
리비아	Libya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말라위	Malawi		
		합 계	58개국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7. 중 동	Middle East	오 만	Oman
바레인	Bahrain	팔레스타인	Palestine
이 란	Iran	카타르	Qatar
이라크	Iraq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이스라엘	Israel	시리아	Syria
요르단	Jordan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Kuwait	예 멘	Yemen
레바논	Lebanon		
		합 계	14개국

주주 현황 ^기	국 가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순투자액 ⁸⁾ (천미불)		계열 여부 ⁹⁾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합계	100.0			
현지법인 자본현황			전기말		금기말	
		자본금	천미불		천미불	
		자본잉여금	천미불		천미불	
		자본조정	천미불		천미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천미불		천미불	
		이익잉여금	천미불		천미불	
		합계(A)	천미불		천미불	
한국투자자 지분투자 내역	한국투자자 지분율 합(B)		%		%	
	지 분 투 자(A×B)		천미불		천미불	

- 주) 1. 현지법인의 법정상호는 영어 full-name으로 기재하고 법적명칭이 영문이 아닌 경우에도 ()속에 영문명칭을 반드시 함께 표시. 중국 및 일본의 경우는 한자명칭을 < >속에 함께 표시함
2. 국가명은 영문기재를 원칙. 중국은 성(省), 미국은 주(州)를 포함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토록 법정소재지를 상세히 기재. 중국의 성(省)은 국한문 모두 기재하며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국가로 기재함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가지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함
4. 제조업, 무역업의 경우 현지법인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주요 제품명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 세부사업내용을 기재(예:신사의류제조)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품목 및 매출비중을 기재함
5. 구주 및 신주 비율의 합은 지분인수비율임
6. “공동투자”는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작투자”는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함
7. 주주현황은 지분율 합이 100이 되도록 투자자 모두를 국가별로 기록하여 함
8. 순투자액은 투자액에서 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록함
9. 계열여부 코드: 한국측 최대지분투자자 또는 한국측 최대지분투자자와 계열관계(1), 한국측 최대지분투자자와 비계열관계(2)

3.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투자자 대부투자 내역 (금기말 현재)

대부투자	대여금 (단위 : 천미불)		전 기 말	금 기 말
	- 지분율 10% 이상 투자자			
	- 지분율 10% 미만	주투자자 관계사 ¹⁾		
		기 타		
	계(A)			
	채권인수 ²⁾ (단위 : 천미불)		전 기 말	금 기 말
	- 지분율 10% 이상 투자자			
	- 지분율 10% 미만	주투자자 관계사 ¹⁾		
		기 타		
	계(B)			
합계(A+B)				

- 주) 1. 주투자자 관계사란 주투자자가 10%이상 투자한 한국소재 회사를 말함
 2. 채권인수는 채권, 무보증회사채, 상업어음, 약속어음, 비참가적 우선주를 말함

4.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역투자¹⁾ 현황

	금 액(천미불)		지 분 율(%)		배당금 및 이자 (금기,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지분투자					배당금:
대부투자 (대여금 및 채권인수)					이 자:
매출채권					
합 계					

- 주)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10% 미만일 경우에만 역투자에 해당됨. 10% 이상일 경우에는 역투자가 아니라 독립된 직접투자에 해당됨

5. 현지법인 경영현황

가. 현지법인의 투자자 및 근로자 앞 지급액¹⁾

(단위: 천미불)

배 당 금		한국투자자앞 대부이자지급액	한국투자자앞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한국인근로자앞 임금지급액
지급총액	한국투자자앞 지급액			

주) 당 회계기간 중 현지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기준

나. 현지법인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금기말 현재)

(단위: 천미불)

차입처	코드 ¹⁾	차입 금액	보증자	코드 ¹⁾	차입기간		금리		용도 ³⁾
					1년 미만	1년 이상	변동 ²⁾	고정	

주) 1. 코드가 2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코드별로 분리 작성 :

- ① 차입처코드 : 1.한국금융기관, 2.한국금융기관의 해외법인, 3.현지국금융기관, 4.외국계금융기관, 5.관계회사(모기업 포함), 6.신디케이트론, 7.회사채 등 기타
- ② 보증자코드 : 1.관계회사(모기업 포함), 2.한국금융기관, 3.한국금융기관 해외법인, 4.외국계 금융기관, 5.현지법인 물적담보, 6.현지법인 신용, 7.합작투자자, 8.기타(구체적 기재)
2. Libor(Sibor, TB) + spread 형태로 기록할 것
3. 용도코드 : 1.시설자금, 2.운전자금, 3.채무상환, 4.기타(구체적 기재)

다. 현지법인의 판매처별 매출금액 및 비중(당 회계기간 중)

	현지판매		대 한국 수출		제3국 수출		계
	관계회사앞	기 타	한국투자자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액							
비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라. 현지법인의 매입처별 매입금액 및 비중(당 회계기간 중)

	현지매입		대 한국 수입		제3국 수입		계
	관계회사앞	기 타	한국투자자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액							
비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마.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¹⁾

(단위: 천미불)

자 산			부채와 자본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유동자산 (매출채권) - 한국 투자자 앞 - 한국투자자의 관계사 ²⁾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1. 유동부채 (매입채무) - 한국 투자자 앞 - 한국투자자의 관계사 ²⁾ 앞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		
2. 고정자산 (투자자산) - 관계회사출자금 -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기타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주) 1. 각 항목은 회계연도말 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대차대조표 작성

2. 한국 투자자의 관계사란 한국 투자자가 10% 이상 투자한 한국 소재 회사를 말함

바. 현지법인 손익계산서(당 회계기간 중)

(단위: 천미불)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매출액			7. 영업외비용		
2. 매출원가			(이자비용)		
(당기매입액)			(리스료)		
3. 매출총이익			(외환차손)		
4. 판매비와 관리비			(외화환산손실)		
5. 영업이익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 영업외수익			9. 법인세비용		
(이자수익)			10. 당기순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주) 회계기간중 평균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1) 자회사

(단위: 천미불)

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재무지표						
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 손자회사

(단위: 천미불)

손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재무지표						
손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 증손자회사 이하

(단위: 천미불)

현지법인과 관계	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재무지표							
현지법인과 관계	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현지법인 영업환경	구 분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					
	향후 영업전망					
현지법인 운 영 상 애로사항	1.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인사/노무관련 요인(고용/현지종업원 또는 노동조합과의 불화 등) <input type="checkbox"/> 생산관련 요인(노동생산성/부품·원자재 조달) <input type="checkbox"/> 마케팅관련 요인(홍보/판매) <input type="checkbox"/> 재무관련 요인(현지금융 조달/과실 송금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간접자본관련 요인(도로/항만/전력/용수 등) <input type="checkbox"/> 현지국 정부의 간섭(과도한 준조세/현지기업과의 차별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2. 개선이 필요한 투자국의 법규나 제도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노동관련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장부지 확보 등 토지관련 분야: <input type="checkbox"/> 분쟁해결 절차: <input type="checkbox"/> 세제: <input type="checkbox"/> 금융: <input type="checkbox"/> 회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현지법인 향후계획	1. 현지법인의 향후 계획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대 정부 건의사항	2. 현지법인 철수 및 이전 계획인 경우, 향후 투자 대상 국가					
	국가명					

6. 첨부서류

- 현지법인 감사보고서(결산서) 또는 세무보고서

2020년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인 방문규

편집인 이상헌

발행처 한국수출입은행

우편번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